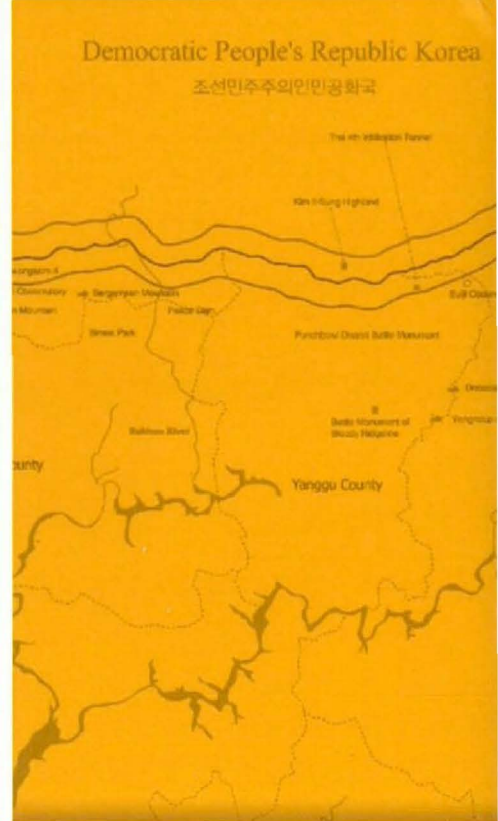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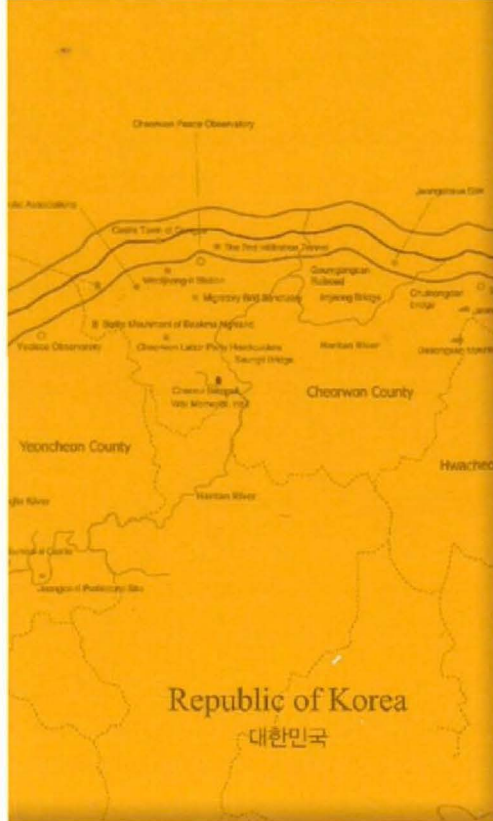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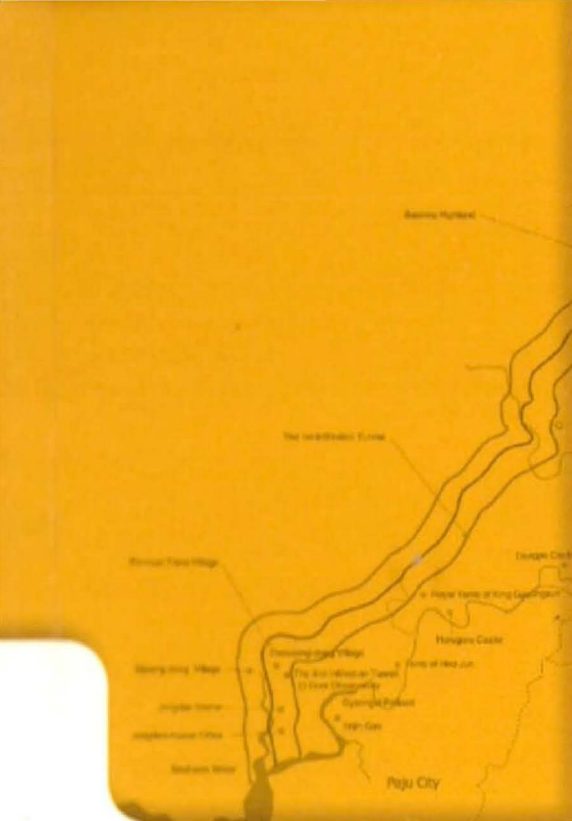




DMZ 총람

문화·관광 현황

D E M I L I T A R I Z E D Z O N E

손기웅·문광춘·최순미



365열린도서관



B00000044806



여 백

여 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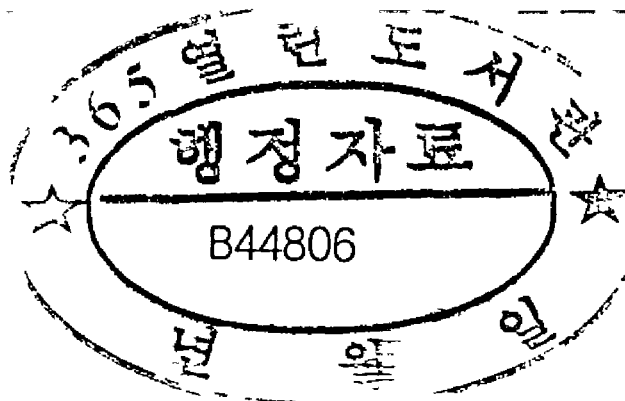
여 백

여 백

DMZ 총람

문화·관광 현황

손기웅 문광춘 최순미



목 차

I	DMZ의 역사	· 15
1	구석기시대와 DMZ	· 16
2	신석기 청동기시대와 DMZ	21
3	삼국시대와 DMZ	· 36
4	후삼국시대 태봉국과 DMZ	62
5	조선시대 이후 DMZ	· 71
II	DMZ의 관광	· 79
1	DMZ 관광의 의미	· 80
2	지역별 DMZ 관광자원	· 84
III	DMZ의 마을	159
1	대성동 자유의 마을	161
2	백연리 통일촌	162
3	동파리 해마루촌	162
4	횡산리	163
5	양지리	163
6	정연리	164
7	유곡리 통일촌	164
8	생창리	165
9	마현1, 2리	166

IV DMZ의 영화	167
1 공동경비구역 JSA	169
2 DMZ, 비무장지대	170
3 태극기 휘날리며	171
4 GP506	172
5 풍산개	173
6 고지전	174
7 홈(Home)	175
8 발해를 꿈꾸며 뮤직비디오	176
9 박치기	178
10 전초선	181
V DMZ 일원 북한지역의 문화유적 현황	183
1 판문군	184
2 장풍군	187
3 철원군	189
4 평강군	189
5 김화군	190
6 금강군	191
7 고성군	194
참고문헌	197

그림목차

[그림 I-1]	전곡리유적 위치	17
[그림 I-2]	전곡리에서 발굴된 아슐리안 석기	19
[그림 I-3]	강화도 부근리 강화지석	26
[그림 I-4]	김포 하성면 고정리 고인돌	26
[그림 I-5]	파주 덕은리 고인돌군	28
[그림 I-6]	연천 양원리 고인돌	29
[그림 I-7]	철원 토성리 고인돌	30
[그림 I-8]	철원 토성리 토성	31
[그림 I-9]	파로호 바닥에서 발견된 고인돌	32
[그림 I-10]	양구 용하리 쌍선돌	33
[그림 I-11]	화진포 고인돌	35
[그림 I-12]	4세기 백제 전성기	37
[그림 I-13]	연천군 횡산리 적석총	39
[그림 I-14]	한강 하구와 오두산 통일전망대	41
[그림 I-15]	오두산 산성	42
[그림 I-16]	5세기 고구려 전성기	43
[그림 I-17]	임진강의 고구려 성들	47
[그림 I-18]	은대리성 흑색 고구려 토기	48
[그림 I-19]	당포 성터	49
[그림 I-20]	연천 호로그루성	51
[그림 I-21]	호로그루성 고구려 관모(절풍)형 토기	52
[그림 I-22]	무등리 제2보루 탄화미와 탄화조	54

[그림 I-23] 무등리 제2보루 고구려 찰갑	55
[그림 I-24] 6세기 신라 전성기	56
[그림 I-25] 양구 두타연 계곡	59
[그림 I-26] 연천 대전리 산성	62
[그림 I-27] 궁예도성 위치	65
[그림 I-28] 철원에서 바라본 궁예도성 터	66
[그림 I-29] 궁예도성 석등	68
[그림 I-30] 포천 반월성 궁예미륵	70
[그림 I-31] 성재산 전골총	73
[그림 I-32] 성재산성	75
[그림 I-33] 일제시대 고랑포	76
[그림 I-34] 구 철원농산물검사소	77
[그림 II-1] 외국인 대상 DMZ 관광상품 브로셔	81
[그림 II-2] 고성에서 바라본 해금강	84
[그림 II-3] 고성 통일전망대	85
[그림 II-4] 고성 통일전망대 입장절차 및 규칙	86
[그림 II-5] 고성 DMZ박물관	87
[그림 II-6] 금강산관광안내지도	88
[그림 II-7] 금강산육로시범관광단 금강산도착 환영행사	90
[그림 II-8] DMZ에서 8번 통문을 통해 남측CIQ로 이동하는 관광버스	91
[그림 II-9] 금강산육로관광 안내페이지	92

[그림 II-10]	내설악에서 바라본 인제군 산지	93
[그림 II-11]	한국DMZ평화생명동산	94
[그림 II-12]	대암산용늪자연생태학교	95
[그림 II-13]	2010년 인제서화DMZ평화생명문화제 개최식	96
[그림 II-14]	양구의 위치	98
[그림 II-15]	2010년 양구배꼽축제 포스터	100
[그림 II-16]	양구통일관 및 전쟁기념관	101
[그림 II-17]	을지전망대	102
[그림 II-18]	편치볼 위치	103
[그림 II-19]	군견 헌트	104
[그림 II-20]	제4땅굴과 관람차	105
[그림 II-21]	가을의 두타연	106
[그림 II-22]	2011년 양구 곰취축제 개막식	107
[그림 II-23]	곰취찜빵	108
[그림 II-24]	평화의 댐	109
[그림 II-25]	평화의 댐에서 개최된 2011 DMZ 미래길 전기대회	110
[그림 II-26]	평화의 댐과 세계평화의 종 공원	110
[그림 II-27]	세계평화의 종	112
[그림 II-28]	평화의 종 비둘기 날개 부분	113
[그림 II-29]	세계평화의 종을 타종하고 있는 국내외 관광객들	114
[그림 II-30]	염원의 종	115

[그림 II-31] 악수하는 손	115
[그림 II-32] DMZ아카데미	116
[그림 II-33] 비목공원	116
[그림 II-34] 비목 시비	117
[그림 II-35] 2008년 비목문화제 개최식	118
[그림 II-36] 파로호	120
[그림 II-37] 산천어회	121
[그림 II-38] 철원평야 두루미의 군무	122
[그림 II-39] 토교저수지 경계병과 독수리	123
[그림 II-40] 철새보는집	125
[그림 II-41] 철의 삼각지 안보견학 코스	126
[그림 II-42] 제2땅굴	127
[그림 II-43] 철원평화전망대	128
[그림 II-44] 월정리역 인민군화물열차 잔해	129
[그림 II-45] 백마고지전투전적비와 위령탑	130
[그림 II-46] 철원 노동당사	131
[그림 II-47] 승일교	132
[그림 II-48] 샘통의 미온수를 이용한 물고추냉이 재배	134
[그림 II-49] 연천지역 탱크방호 시설물들	135
[그림 II-50] 철원-연천 길목 탱크방호 시설	136
[그림 II-51] 신탄리역 경원선 철도중단점	137
[그림 II-52] 열쇠전망대	138

[그림 II-53]	태풍전망대	139
[그림 II-54]	상승OP	141
[그림 II-55]	상승OP에 전시된 제1땅굴모형	142
[그림 II-56]	연천 울무	146
[그림 II-57]	연천 망향비빔국수	147
[그림 II-58]	파주 관광지도	148
[그림 II-59]	임진각 전망대	149
[그림 II-60]	임진각 자유의 다리	150
[그림 II-61]	임진각 평화누리공원	150
[그림 II-62]	제3땅굴 관람차	151
[그림 II-63]	파주 오두산 통일전망대	152
[그림 II-64]	오두산 통일전망대 벚꽃시즌 공지	153
[그림 II-65]	공동경비구역 내 군사분계선	154
[그림 II-66]	공동경비구역 내 장명기 상병 추모식	155
[그림 II-67]	파주 장단콩	156
[그림 II-68]	파주 장단콩두부음식점	157
[그림 II-69]	2011년 장단콩축제 포스터	158
[그림 III-1]	DMZ의 마을	160
[그림 IV-1]	공동경비구역 JSA 포스터	169
[그림 IV-2]	DMZ, 비무장지대 포스터	170
[그림 IV-3]	태극기 휘날리며 포스터	171
[그림 IV-4]	GP506 포스터	172

[그림 IV-5]	풍산개 포스터	173
[그림 IV-6]	고지전 포스터	174
[그림 IV-7]	흙 포스터	175
[그림 IV-8]	발해를 꿈꾸며 뮤직비디오 한 장면	176
[그림 IV-9]	박치기 포스터	178
[그림 IV-10]	전조선 영화장면들	181
[그림 V-1]	불일사터	186
[그림 V-2]	후릉	187
[그림 V-3]	후릉의 문무관원상과 석수들	187
[그림 V-4]	장학리 적석무덤	189
[그림 V-5]	고려돌관	189
[그림 V-6]	금장암사자탑	193
[그림 V-7]	묘길상	193
[그림 V-8]	보덕암	193
[그림 V-9]	소실된 신계사 대웅전	196
[그림 V-10]	신계사3층석탑	196
[그림 V-11]	월비산리석불좌상	196

표목차

[표 II-1] 비목문화제 개최안내장	·	· 119
[표 II-2] 민통선북방지역 출입승인신청서	·	· 144
[표 II-3] 민통선북방지역 출입신청 각서		· 145
[표 V-1] 판문군 문화유적	·	· 188
[표 V-2] 장풍군 문화유적	·	· 190
[표 V-3] 철원군 문화유적	·	· 191
[표 V-4] 평강군 문화유적	·	· 191
[표 V-5] 김화군 문화유적	·	· 192
[표 V-6] 금강군 문화유적	·	· 194
[표 V-7] 고성군 문화유적	·	· 197



인류학자 타일러(Edward B. Tylor)는 문화를 “지식, 신앙, 예술, 도덕, 법률, 관습 등 인간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획득한 능력 또는 습관의 총체”라고 정의했다¹ 유네스코는 “문화는 한 사회 또는 사회적 집단에서 나타나는 예술, 문학, 생활양식, 더부살이, 가치관, 전통, 신념 등의 독특한 정신적, 물질적, 지적 특징”으로 정의한 바 있다 즉 문화란 한 민족이나 사회의 전반적인 삶의 모습을 칭한다 문화는 영어의 ‘culture’나 독일어의 ‘kultur’ 등을 번역한 낱말인데 이들은 라틴어 ‘cultura’에서 유래하여 17세기 이래로 유럽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 단어는 원래 ‘농사’ 또는 ‘육체와 정신의 돌봄’이라는 두 가지 뜻을 가졌다 문화의 개념은 후자의 뜻에서 점차 한 민족이나 사회의 정신적 예술적 표현의 총체라는 의미로 확장되어 갔다 오늘날 ‘문화’는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 하나는 교양이 있고 세련되었으며 예술적인 면을 가리키는 것으로 예의바르고 세련된 사람을 두고 ‘문화인’이라 부르는 것이 여기에 해당된다 다른 하나는 이보다 훨씬 광범위한 문화를 뜻하는데, 인간에 의하여 이룩된 모든 것이 그 범주에 포함된다 문화인류학이 대상으로 다루는 것은 이 넓은 의미의 문화이며 이 총람에서 다루고자 하는 문화의 유형도 후자와 같은 유형의 문화이다

문화에 관한 다양한 정의에 공통적이며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개념은 유형이든, 무형이든 ‘인간의 공동체적 활동에 기인한 것들’이다 따라서 ‘DMZ의 문화’라는 것은 DMZ라는 한정적 공간 안에서 존재하는 인간의 공동체적 활동에 기인한 그 무엇인가를 의미한다 하지만 이러한 정의에 입각했을 때 ‘DMZ의 문화’는 그 자체에 모순을 내포한다 DMZ는 60여 년간 인간의 손길이 거의 닿지 않은 특수한 지역이다 따라서

¹-Edward B. Tylor, *Primitive Cultur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871)

DMZ에는 문화를 생산해 내는 주체가 되는 인간이 (거의) 존재하지 않으므로 현 상태에서의 문화란 존재할 수 없다 DMZ 내부의 사람은 남북한이 DMZ 내부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계초소(GP, Guard Post)에 거주하는 소수의 남한과 북한의 군인 및 DMZ 수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민정경찰(DMZ Police)이 전부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현존하는 DMZ의 문화를 규정한다면 DMZ라는 특수한 물리적 공간에 복무하는 소수의 군인들의 문화에 불과하다

여기에 DMZ의 문화의 개념에 현재라는 시간적 제약을 적용한다면 DMZ라는 공간 안에 과거에 존재했던 유형(有形)의 역사유물들이나 과거의 DMZ에 존재했던 무형의 문화적 요소들도 무시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렇게 시 공간적 차원에서 한정된 DMZ의 문화에 관한 고찰은 DMZ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크게 침식하는 위험이 있다 DMZ는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한반도에만 존재하는 특별한 곳이다 모든 국가에는 국경선이 존재하지만 DMZ로 갈라진 국가는 존재하지 않는다

DMZ는 위치적으로 한반도의 정중앙에 자리하여,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일어났다 사라진 많은 국가들에게 있어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 곳이며, 한국전쟁을 거치며 냉전의 산물이자 현재 진행 중인 전쟁의 증거로 남아있다

또한 한민족의 대립과 갈등, 분단과 이별과 같은 민족적 의미도 지니고 있다 더불어 현대에 이르러 60여 년 동안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은 채 겹겹의 철책과 군사시설들로 둘러싸여 자신만의 독특한 생태적 환경을 구성해 왔다

이러한 DMZ의 특별한 정치적, 생태적 특성은 불가피하게 주변의 지역과 환경에 영향을 미치며 한반도의 다른 지역과 유사하지만 한편으로는 구별되는 문화를 만들어왔다

이 총람에서는 우선 DMZ가 한반도 문화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였는지 역사적인 맥락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역사의 굴곡을 통해 형성된 DMZ가 관광지 음식 축제 등의 영역에서 어떠한 관광자원을 가지게 되었는지 살펴볼 것이다. 다음으로는 DMZ의 마을을, 마지막으로 북한에 있는 DMZ 일원의 문화유적을 정리하고자 한다.

여 백

I . DMZ의 역사

DMZ는 지리적으로 한반도의 중심이다 DMZ의 이러한 지리적 특징은 비단 한국전쟁 등을 통해 근대사 이후로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다 한반도에 인류가 처음 ‘문화’의 흔적을 남긴 장소도 바로 DMZ이며 그 후 많은 왕조들과 세력들이 DMZ와 그 인근지역을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다툼을 벌여 왔다

한반도에서의 DMZ의 역사는 전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 첫째, DMZ는 한반도 문화의 발상지이자 주변으로 문화를 전파했던 지역이다 둘째, DMZ는 한반도의 북방세력이 남하하고, 남방세력이 북진하는 군사적 요충지이다 셋째, DMZ는 한반도의 흩어진 문화가 다시 모이는 집결지이자 통로이다

한반도의 중심에 위치한 DMZ는 선사시대부터 한반도의 역사가 격랑에 흔들릴 때마다 한가운데 등장하였고, DMZ 일원을 지배한 자들이 한반도전체의 지배권을 차지했다 근대 한국전쟁의 교착이 바로 DMZ에서 이루어졌다는 점 또한 결코 우연이 아닐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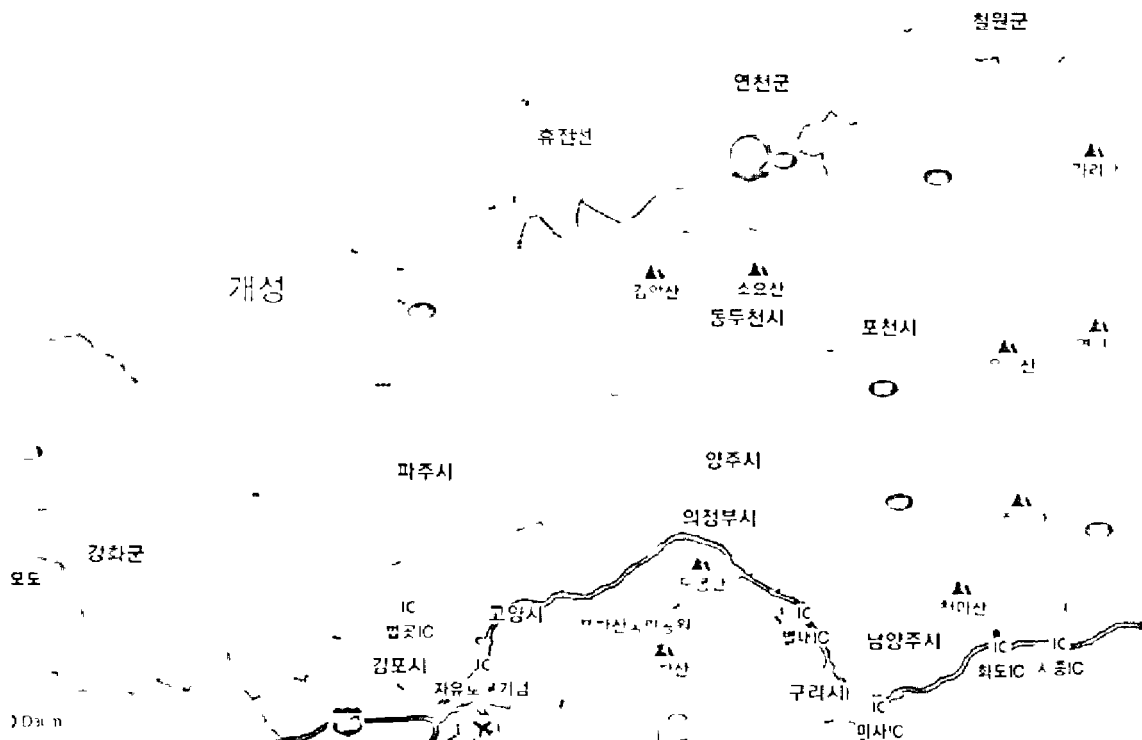
DMZ는 남북으로 갈라진 한반도에서 지금도 여전히 미래 통일문화의 싹을 틔울 수 있는 기회의 땅으로 남아 있다 그런 점에서 DMZ 역사의 시작과 끝 그리고 미래는 한반도 전체의 역사 문화와 그 맥을 같이 한다

1 구석기시대와 DMZ

DMZ의 역사는 한반도의 역사 전체와 궤를 같이할 정도로 오래되었다 한반도에서 발견된 고대유적 중 시간적으로 가장 오래된 유적은 단양의 금굴과 공주 석장리의 전기 구석기시대의 유물이다 하지만 전 세계의 고고학자들이 가지고 있던 기존의 이론을 단번에 뒤엎는 획기적인

발견이 바로 DMZ 인근 한탄강 유역의 전곡리에서 있었다

[그림 I-1] 전곡리유적 위치



출처 다음지도, <<http://map.daum.net>>

1978년 당시 동두천 미군 부대에 근무하던 그렉 보웬(Bowen G)은 휴일을 맞아 한국인 여자친구와 함께 한탄강 주변으로 산책을 갔다

길을 걷다가 평소에 보던 돌과는 다른 ‘다듬은 흔적이 있는’ 돌석기 몇 점을 발견했다 인디애나 대학에서 고고학을 전공하고 있었던 그는 그 돌이 예사롭지 않음을 직감하고 군용 작전지도를 사용하여 돌을 발견한 위치를 기록해 두었다 또한 현장사진, 유물사진과 함께 자신이 돌석기를 발견한 곳들을 보고서로 작성했다 보웬은 자신이 발견한 돌석기의 사진과 보고서 내용을 세계적인 구석기 권위자인 프랑스의 보드르 교수에게 보냈고, 보드르 교수는 다음과 같은 답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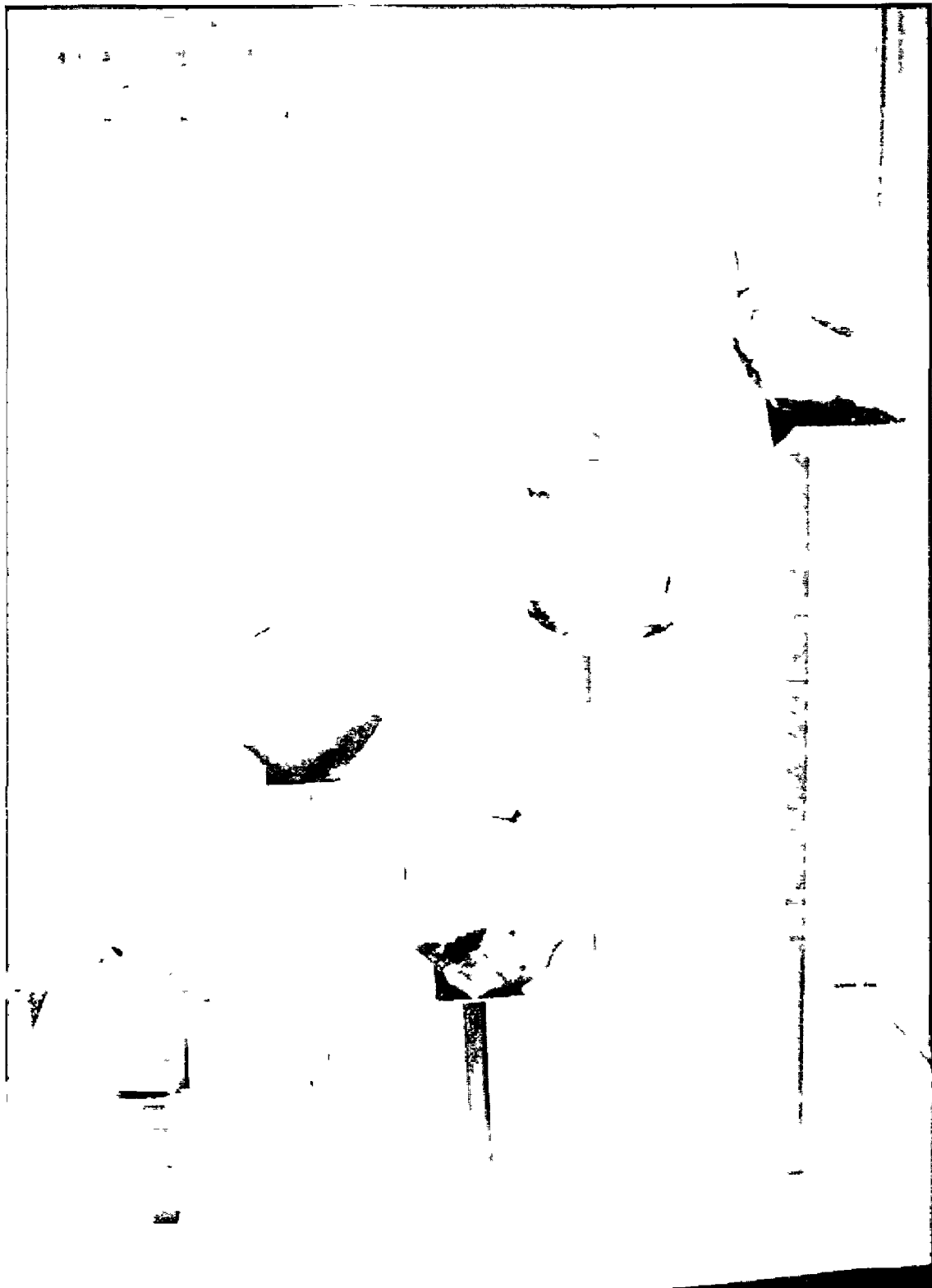
을 보냈다

“이 사진에 있는 돌들이 유럽이나 아프리카에서 발견되었다고 이야기한다면 나는 이것을 당연히 아슐리안 석기라고 판단할 것이다 내 자신이 직접 보고 싶은 중요한 발견이다 그러나 지금 바로 한국에 갈 수 없으니 서울대학교 고고학과로 연락해보길 바란다”

보웬은 틈을 내어서 서울대학교 박물관장인 김원룡 교수를 찾아갔다 김원룡 교수와 영남대학교 정화영 교수는 이 역사적인 발견을 확인하기 위하여 즉시 현장을 답사하였고 보웬이 발견한 것이 아슐리안 석기라는 것을 확인했다 연천 전곡리 주변에서 발견된 구석기의 유물은 곧 세계 학계에 공개되었고 기존의 구석기시대를 지배하던 이론은 새롭게 쓰여져야만 했다

아슐리안 석기는 양면핵석기라고도 불리는데 전기 구석기시대의 대표적인 유물이다 프랑스 생 타술 유적에서 처음 발견돼 이런 이름을 얻게 된 것인데 150만 년 전부터 10만 년 전까지 사용됐던 구석기다 그때까지만 해도 모비우스 학설이라 하여 아슐리안형 석기문화는 유럽과 아프리카에만 있다는 것이 정설이었다 그런데 동아시아, 그것도 한반도 DMZ 인근 전곡리에서 아슐리안형 도끼가 나온 것이다 전곡에서의 아슐리안 주먹도끼의 발견은 고고학의 가장 중요한 이론을 처음부터 다시 쓰게 한 획기적인 발견이었다

[그림 I-2] 전곡리에서 발굴된 아슬리안 석기



출처 전곡선사박물관, <<http://www.jgpm.or.kr/index.asp>>

연천 전곡리 전기 구석기시대 유적은 1979년 3월 26일 서울대학교, 경희대학교, 영남대학교, 건국대학교가 연합하여 1차 발굴조사를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사적지를 포함한 주변지역에서 총 18차례에 걸쳐 조사가 이루어졌다 30여 년에 걸친 발굴조사 결과 현재까지 약 8,500여 점의 구석기시대 유물들이 발견되었다

가장 특징적인 유물들은 주먹도끼, 뿔쪽끝찍개, 찍개, 다각면원구 등 대형석기들이며 박편을 이용하여 제작한 긁개, 밀개, 뿔개 등 소형석기들도 발견되었다 석기와 박편이 서로 맞게 접합하는 것들도 많이 발견되어 석기가 다른 곳에서 흘러들어온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전곡리 유적 발견이후 한반도에서는 잇달아 구석기시대를 알리는 유적들이 발견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발견된 유적지가 전국적으로 약 20여 곳에 달하기는 하지만, DMZ 인근에서 특히 많이 발견되었는데 한탄강과 임진강 유역에서만 15곳 이상의 구석기 유적지가 확인되었다

전곡리 유적지는 현재 사적지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으며(사적 268호) 인근에 유적관과 토충전시관을 마련해 관람객들의 구석기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유적지 곳곳에 다양한 조형물들을 설치해 구석기시대 사람들의 생활상을 현장감 있게 감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매년 5월 즈음에 ‘연천전곡리 구석기축제’라는 행사를 개최하여 유적지의 홍보와 선사시대 한반도인의 생활상을 알리고 있다

일반적으로 한민족의 직접적 기원이 되는 집단의 출현은 신석기시대로 보고 있으며 청동기시대부터 부족체제의 사회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그렇다 할지라도 DMZ 일원에서 발견되고 있는 구석기시대의 유적은 한반도에 발전된 ‘문화’를 가진 최초의 인류 집단이 역사시대 이전부

터 존재하고 있었음을 증명해 준다

경기북부의 파주, 연천 등의 DMZ 일원은 뒤로는 산을 끼고 앞으로는 강을 두른 넓고 풍족한 평지들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이곳은 한반도에 문화가 처음 자리를 잡기 위한 최적의 장소였을 것이다 DMZ는 한반도에서 문자로 기록된 역사가 시작되기 훨씬 이전부터 세계적으로 발전된 ‘문화’의 중심지였던 것이다

2. 신석기·청동기시대와 DMZ

신석기시대 이후 인류는 현저한 진보를 이루게 되는데 그것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농사의 시작이다 채집과 수렵에만 의존했던 시대를 지나 일정한 장소에 정착하여 씨를 뿌리고 결실을 거두어들이는 방식의 발견은 생활과 기술에 커다란 진보를 가져오게 되었다 또한 수확한 식물을 보관하기 위한 그릇류의 발달도 이 시대부터 시작된다

농업의 발달은 인류가 씨족 혹은 부족단위로 정착하여 살아가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고, 이로 인한 잉여생산물의 발생은 인류로 하여금 자신의 몫을 더 차지하려는 욕심과 함께 힘으로 다른 사람의 것을 취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제도인 ‘계급’을 발생시켰다

농업으로 인한 정착생활과 계급이라는 문화의 발생은 한반도에 원시적인 상태의 공동체생활을 만들어 내었다 DMZ와 그 인근지역은 한반도에서의 신석기 청동기의 농업의 시작과 계급의 발생을 보여주는 흔적이 가장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장소이다

가 신석기·청동기시대 농업

농업의 발전을 가리키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되는 작물은 바로 한국인과 전 세계 인구의 60%가 주식으로 삼고 있는 ‘벼’의 재배이다. 신석기시대의 초기에는 조와 피 등의 작물만이 많이 발견되었는데 이 작물들은 재배가 아닌 단순한 채집에 의해서도 많이 얻어진다. 따라서 벼와 맥류의 재배야말로 정착농업의 완전한 시작을 나타내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한반도의 벼 재배의 확산은 신석기시대 후반에 DMZ 일원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벼의 재배와 전파경로는 ‘탄화미’와 ‘탄화물 토기’의 발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². 일반적으로 한반도에서 쌀을 처음 재배하기 시작한 것은 청동기시대 초기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이 근래 들어 새롭게 수정되었는데, 그것은 1991년 경기도 고양시 일산 신도시의 가와지(현재 지명 성저마을), 경기도 김포시 가현리, 강화도 우도 등에서 범씨와 토기 등에 남은 범씨자국, 벼과 식물의 화분(花粉)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기존의 벼과의 유물은 평양, 부여, 김해 등의 청동기시대 유적되어 발견되었고 따라서 한반도의 벼농사의 시작은 청동기시대라고 인식되었다. 하지만 고양, 김포, 강화 등 DMZ 일원의 신석기시대 후기 벼농사

² 유적 출토 곡물의 하나로 불에 타거나 지층 안에서 자연 탄화되어 남아 있는 쌀을 말한다. 탄화미(炭化米)가 출토되는 유적은 벼농사와 관련되는 경제활동(經濟活動)이 이루어진 곳을 뜻하며 탄화미의 생김새에 따라 벼의 종을 추정할 수 있고, 나아가 벼농사의 기원 및 벼농사 전래과정에 대한 연구의 기초자료가 되기도 한다. 벼농사의 기원 문제와 관련되는 유물로는 농경도구(農耕道具), 논유구(水田遺構) 등이 있지만 직접 자료로서의 벼가 나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벼의 출토상황은 탄화미 형태, 벼 껍질 형태, 식물 규산체(Plant Opal) 분석을 통한 증거 등 다양하며, 토기에 범씨자국이 찍힌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유적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벼농사의 기원이 신석기시대 이전으로 훨씬 앞당겨졌다

DMZ 서단의 고양과 김포, 강화에서 한반도 최초의 쌀농사가 시작되고 확산된 것은 지리적인 이점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그중에서도 넓은 벌판이 발달한 김포가 가장 중요한 벼농사 지역이다 김포 일대는 오랜 침식작용을 받아 낮아진 준평원과 한강 중상류 및 지류에서 운반된 토사가 매립되어 발달한 퇴적지대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에 연평균 11.2℃의 온난한 기후와 1,100mm 내외의 적당한 강수량으로 벼농사의 최적지이다 한강과 황해를 이은 수로를 통한 중국대륙과의 교류도 강화, 김포, 고양 등으로 이어지는 DMZ 일원의 벼농사 발전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 민족이 벼농사를 시작한 이래로 쌀은 단순한 먹을거리의 의미를 넘어 정신적인 뿌리 중 하나가 되었다 또한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쌀은 물물교환의 매개물 즉 화폐로 취급되었을 만큼 경제에 있어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왔다

이러한 중요성을 지니는 벼농사가 DMZ 일원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은 과거의 DMZ 일원이 단순히 물리적으로 한반도의 중심이기 이전에, 쌀이 그 중심에 있는 한민족문화의 출발지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농사의 시작을 통해 잉여생산물이 출현하였고 이로 인한 계급이 출현한 점으로 보아 DMZ 일원은 한반도에서 국가가 탄생하는데 큰 영향을 미친 지역임이 분명하다

나 DMZ 일원의 고인돌 유적³

한반도에서 청동기시대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유물은 고인돌이다. 청동기시대는 농업에 대한 지식이 발달하고 청동기의 발견 및 활용으로 인해 생산량이 획기적으로 증대된 시기이다. 생존과 직결된 농업이 발달함에 따라 생존하는데 필요한 생산물 외에도 잉여자원이 생겼을 것이다. 이 잉여생산물의 축적과 분배의 과정을 통해 부족집단 내부에서는 빈부의 격차가, 부족집단 간에는 갈등과 정복전쟁이 발생하였을 것이다.

더 많은 잉여생산물과 종족의 보전을 위해 정복전쟁의 승리자들은 패배한 부족들을 노예로 삼게 되었고 이로 인해 계급이 발생했다.

청동기시대의 이러한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 바로 ‘무덤문화’이다. 청동기시대의 지배자들은 자신들의 지배력 강화와 사후세계를 대비해 크고 화려한 무덤을 만들기 시작했고 자신들이 쓰던 물건들을 함께 매장하기 시작했다. 고인돌은 매장문화와, 부장품들을 통해 청동시대에 일어났던 사회의 발달과 생활문화를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유물들이다.

전 세계 고인돌의 80% 이상이 한반도에서 발견된다. 농업의 역사가 시작된 흔적들이 DMZ의 서부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견되는 것과는 달리 고인돌은 DMZ 일원 전역에서 발견된다.

고인돌들은 남방식과 북방식으로 나뉘는데, 고성에서부터 인제, 양구, 화천, 철원, 연천, 파주, 김포 거쳐 강화도까지 북방식 고인돌이 발견되고 있다. DMZ가 북방식 고인돌과 남방식 고인돌의 위치를 가르는

³- 이 장에서의 고인돌 구분은 최현진, 『한국사의 중심 DMZ』 (서울 파란하늘, 2010)의 구분을 따름

기준점이 되는 것이다

북방식은 남방식에 비해서 노동력이 많이 들어간다.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는 고인돌이 세워졌다는 것은 당시 이 지역을 지배하는 지배자의 지배범위와 집단의 인구가 남쪽의 세력들보다 상대적으로 컸다는 것을 의미한다. 남쪽에서는 전라도와 경상도를 중심으로 대부분 남방식 고인돌이 존재하며, DMZ 북쪽으로부터 북방식 고인돌이 발견된다. 따라서 DMZ 일원에서 발견되는 북방식 고인돌은 청동기시대 DMZ 일원의 세력이 여타 지역의 세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력했음을 보여주며 강화도 등지에서 남방식과 북방식 고인돌이 혼재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이 일원이 청동기시대 남쪽과 북쪽의 세력이 교류했던 지점이라는 것을 시사해준다.

(1) 강화군 김포시

강화도 부근리 고인돌은 지금까지 남한에서 발견된 고인돌 중 가장 큰 규모의 고인돌이다. 특히 이 고인돌을 중심으로 300m 반경에 10여 기 이상의 고인돌들이 존재하는데 2000년 11월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될 만큼 학술적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부근리 고인돌은 높이 26m, 길이 71m, 너비 55m의 화강암 판석이 궤돌 위에 얹어져 있는 형태이다. 부근리 삼거리 인근에도 10여 기의 남방식과 북방식이 혼합된 형태로 남아 있다. 부근리 일대에는 이와 같이 큰 화강암을 운반할 수 있는 화강암 채석장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큰 돌을 멀리서 옮겨오기 위해서는 당연히 수많은 노동력이 필요했을 것이며, 고인돌을 조성하기 위해서 또 다른 노동력이 요구되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이 지역에서는 청동기시대부터 큰 부족국가가 존재했음을 추론할 수 있다.

[그림 I-3] 강화도 부근리 강화지석



출처 우리가 만드는 미래 홈페이지, <<http://woorimirae.tistory.com/39>>

김포의 하성면 고정리 부근에도 북방식 고인돌이 발견된다 김포가 풍족한 별판을 갖고 있음을 미루어 볼 때 이 지역 역시 벼농사 문화의 발달과 관련된 청동기시대의 부족문화가 존재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림 I-4] 김포 하성면 고정리 고인돌



출처 홀로 가는 산경표 홈페이지, <<http://cafe.daum.net/holsan/KzLC/5?docid=15GeCKzLC5200904160717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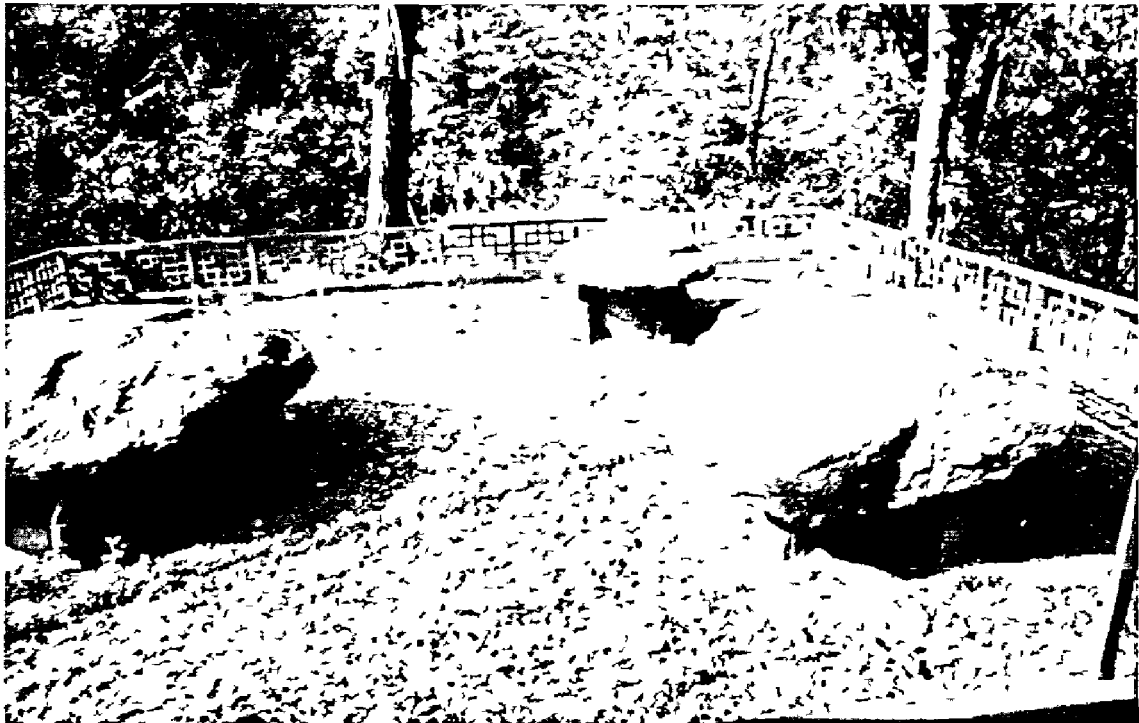
(2) 파주시

파주의 고인돌 분포양상은 주로 임진강 연안을 끼고 있는 산사면이나 낮은 구릉지를 끼고 분포하는데 특히 임진강과 한강이 만나는 교하지역인 다울리, 당하리, 교하리, 상지석리, 하지석리, 산남리 등에 고인돌 유적이 많이 분포하고 있다 월릉면 덕은리, 진동면 초리 등 임진강 연안 지역에서도 밀집되어 발견된다

특히 교하읍 교하중학교 인근 다울리와 당하리, 교하리가 인접한 구릉지대에 106여 기의 고인돌이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는데 군사시설 및 산림훼손으로 인해 대부분의 고인돌이 파괴 또는 훼손되었으며 20여 기만이 그 원형을 확인할 수 있다 그 가운데 상태가 양호한 6기가 경기도 기념물 제129호로 지정되어 있다 이곳의 고인돌들은 조사당시 이미 훼손이 심해 하부구조가 제대로 남아 있지 않은 상태였으나 탁자식 고인돌로 추정되며 고인돌 주변에서 작은 토기조각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현재 일부 고인돌은 경기도청, 통일로, 온양 민속박물관등에 이전 복원되어 있으며 발굴 당시 고인돌 대부분이 제자리를 벗어나 있었다

또 당하리 고인돌은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동기시대의 집터가 발굴되었는데 집터는 매우 긴 네모꼴의 움집터로 동서길이 157m, 너비 37m, 깊이 40~80cm의 크기이다 집터 안에서는 구멍무늬토기, 민무늬토기, 간돌검, 가락바퀴 등이 출토되었으며 집터 안쪽에서 화덕자리 두 군데가 발견되어 이곳이 청동기인들의 생활주거지였음이 확인되었다 이는 청동기시대에 생활지역과 매장지역이 같이 존재함을 보여주는 고대 주거문화연구에 매우 귀중한 학술적 자료이다

[그림 1-5] 파주 덕은리 고인돌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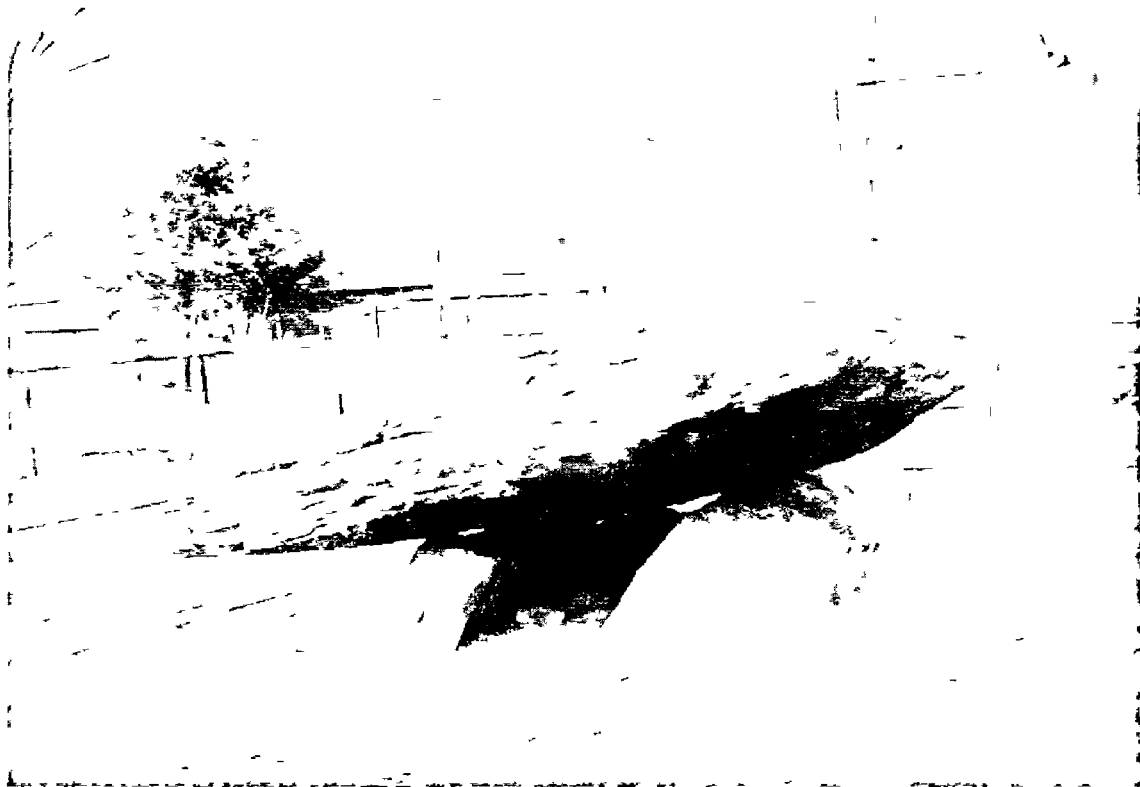


출처 함께 배우는 식물의 사계 홈페이지,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rbtnrla&logNo=150042475952&parentCategoryNo=16&viewDate=¤tPage=1&listtype=0>>

(3) 연천군

연천은 아슐리안 석기가 발견되면서 세계 고고학의 역사를 다시 쓰게 만든 지역이다. 이 지역에서도 구석기를 비롯하여 신석기와 청동기시대의 유적이 많이 발견된다. 특히 청동기시대에 만들어진 고인돌과 많은 유물들이 발견되었다. 그중 통현리와 양원리 등에 고인돌이 다수 존재하는데 양원리의 고인돌은 판석의 규모가 길이 38m, 넓이 34m, 높이 34cm로 매우 커서 청동기시대에 연천군 일대가 한탄강을 낀 비옥한 평야를 기반으로 하는 강력한 부족집단이 존재했음을 알려주는 지표가 된다.

[그림 1-6] 연천 양원리 고인돌



출처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홈페이지, <<http://younghwan12.tistory.com/2268>>

(4) 철원군

철원지역은 청동기시대의 주거지 및 고인돌이 다수 발견되었다 갈말읍 토성리, 신철원, 지포리, 문혜리 등지에서 고인돌이 많이 발견되는데, 특히 고인돌과 함께 청동기시대 부족세력의 영역표시 구조물 중 하나인 선돌이 다수 발견되기도 하는 지역이다

특히 갈말읍 토성리 일대는 남대천을 따라 평야지대가 넓게 펼쳐져 있어서 청동기시대의 부족국가의 흔적을 많이 발견할 수 있다 이 지역에는 14기 이상의 고인돌들이 있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지만 한국전쟁으로 인해 대부분 파괴되고 현재 2기만이 보존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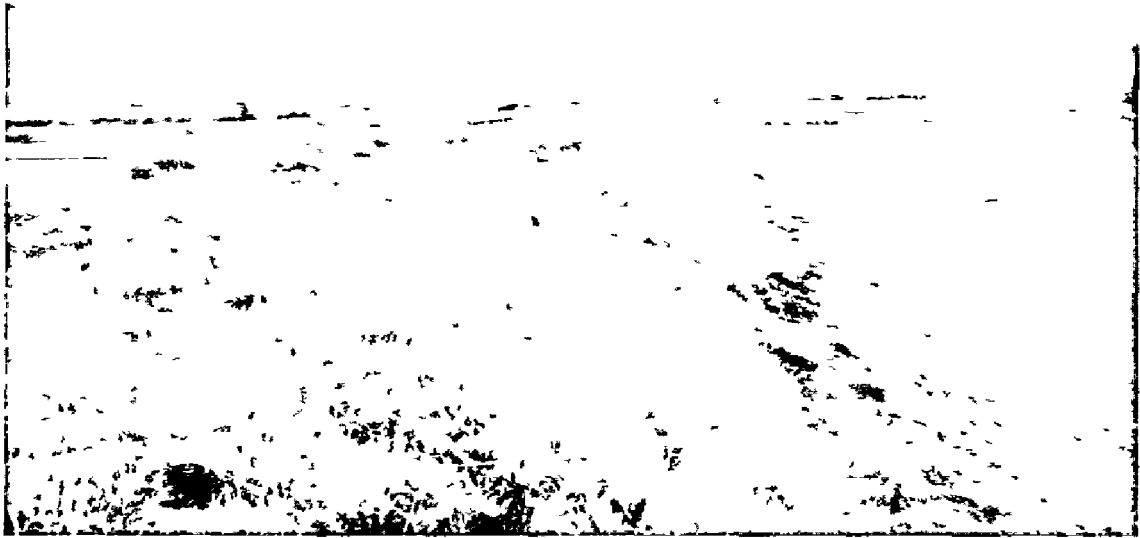
[그림 1-7] 철원 토성리 고인돌



출처 “DMZ를 점령한 고인돌,” 『동일뉴스』, 2009년 12월 2일,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7633>>

특히 토성(土城)리에서는 그 이름이 말해주듯이 삼한시대 무렵에 축성된 것으로 보이는 토성이 자리잡고 있다 이 지역은 남대천 하류 부근에 위치하는 청양분지의 가운데 위치하며 동쪽, 서쪽, 남쪽으로 뚫린 협곡의 중심부인 점을 미루어 보아 선사시대 이래로 매우 중요한 요충지임을 추측할 수 있다 토성 주위에서는 청동기시대의 대표적인 토기인 민무늬토기와 석기류 등의 유물이 다량 출토되었다

[그림 I-8] 철원 토성리 토성



출처 KBS 88 영우회 홈페이지, <[http://cf231 uf daum net/image/166785024AE7FAE4AC6FD4](http://cf231.uf.daum.net/image/166785024AE7FAE4AC6FD4)>

(5) 화천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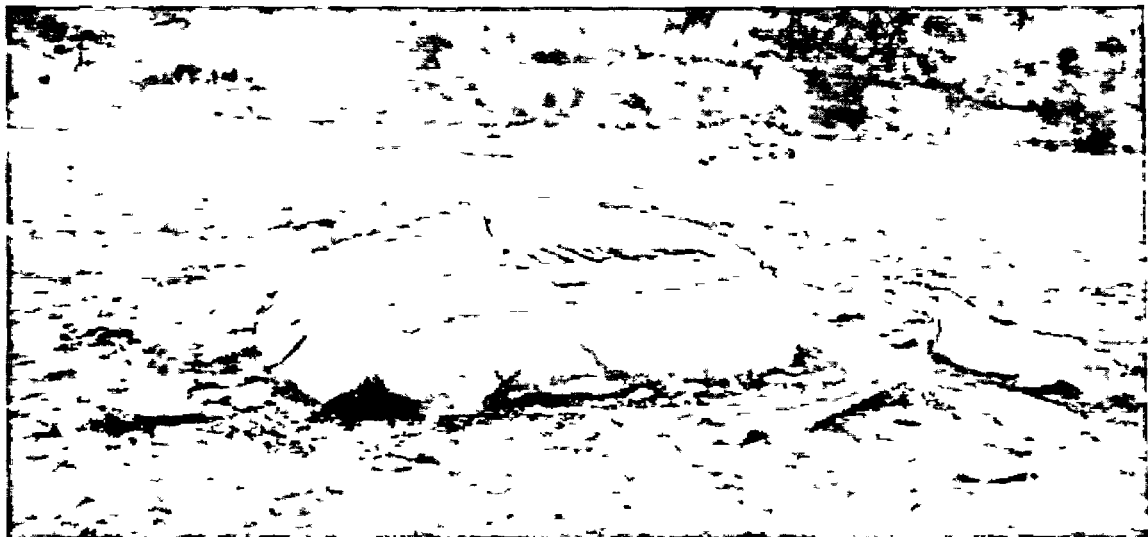
화천은 화남면 용화산 주변에 맥국의 성이 축성되었던 흔적이 남아 있다
맥국은 청동기시대에 나타난 부족국가로 강원도 춘천과 화천 등의
지역을 중심으로 발전한 국가이다 예국, 한과 더불어 우리 민족의 주
(主)구성체로 중국에까지 알려졌던 국가이다⁴

⁴ 한반도에서 발생한 노래, 춤, 축제 등의 문화적 원형을 발견할 수 있는 곳들 중 하나가 바로 DMZ 일원에 자리 잡았던 예국과 맥국이다 「후한서(後漢書)」 동이전(東夷傳) 예조(濊條)와 「삼국지」 동이전의 예조(濊條)에 보면 예에서는 ‘새벽이면 일어나 별의 움직임을 보고 농사일이냐 풍년이 들고 흉년이 들 것을 미리 점쳤다 또 10월이면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데 이때가 되면 밤낮으로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추었다 이것을 무천(舞天)이라고 했다’고 기록하였다 하늘에 제사 지내는 것과 춤추고 노래하는 것은 제정일치(祭政一致) 시대의 신성한 의식(儀式)이지만, 현대적 의미에서는 노래와 춤의 기원이 되는 예술작품으로 평가된다 예인(濊人)들의 무천제는 원시종합예술로서 오늘날의 음악과 시가 무용과 연극의 근원이 된다 예맥 또는 동맥의 영역이었던 중 동부 DMZ 지역에서는 신석기시대 후기 또는 청동기시대에 이미 무천제의 노래

용화산은 화천에서 남쪽으로 약 8km, 춘천에서 북쪽으로 약 20km 지점에 위치하는 높이 878m의 산으로 동남쪽으로는 고탄령(古灘嶺)과 사야령(四夜嶺)을 지나 소양강에 이른다 남쪽 사면을 흘러내리는 양통개울은 남서쪽으로 흘러 춘천호로 흘러든다 산맥과 하수를 동시에 끼고 있는 용화산은 선사시대부터 맥국 등 부족국가의 중심이 될 만한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 용화산 주변에서 화천 유촌리 고인돌이 발견되고 있다

또한 매우 흥미롭게도 화천의 파로호 안에서도 청동기시대의 고인돌이 다수 발견되기도 하였다 평화의 댐을 북한강 상류에 건설하기 위해 하류에 있던 파로호의 물을 방류시키자 파로호 바닥에 있던 유물들이 노출되면서 21기의 고인돌군이 함께 발견된 것이다 DMZ 일원에서의 민족적 대립으로 인해 발견된 역사유물인 점이 매우 흥미롭다

[그림 I -9] 파로호 바닥에서 발견된 고인돌



출처 국가문화유산포털, <http://www.heritage.go.kr/culture_2008/kor/index.js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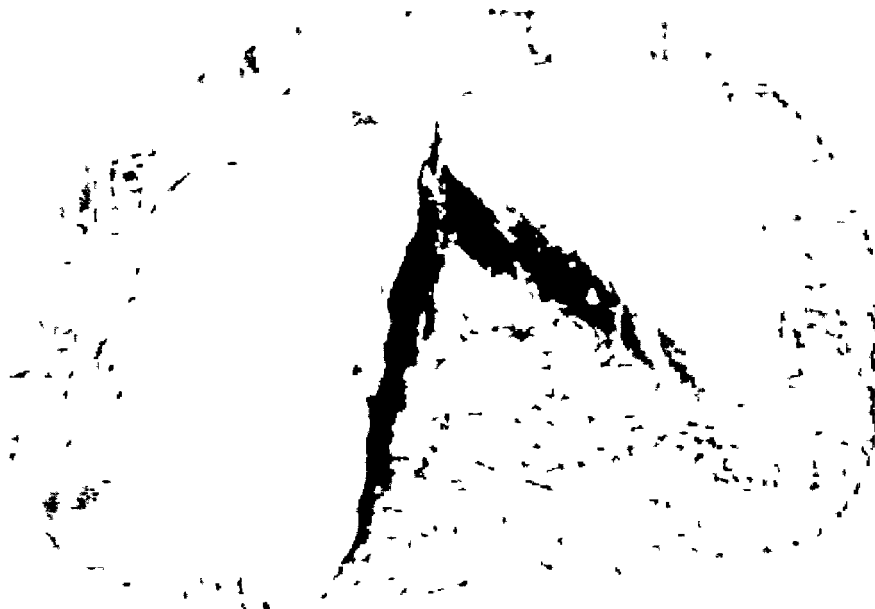
와 춤을 통해서 예술활동이 전개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노래와 춤의 형식은 전연 알려진 것이 없으므로 그 실상을 파악할 수는 없지만, 원시종합예술이 발달한 청동기시대 이후 한반도의 예술적 기원들이 여기서 비롯되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고성군문화원, <<http://www.goseongcul.com>>을 참조

(6) 양구군

양구는 선사시대 유물이 가장 많이 출토되는 지역으로 이는 양구가 선사시대부터 매우 발전한 지역이었음을 나타내준다 고대리, 공수리, 동면 지석리, 남면 송우리, 죽리 등 양구 전역에서 고인돌이나 고인돌군들이 발견되고 있다

또한 남면 용하리에서는 다른 지역에서는 보기 힘든 쌍선돌이 있는데 이를 미루어 보아 당시 성읍국가가 이 지역에 존재하고 있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그림 I-10] 양구 용하리 쌍선돌



출처 강원도DMZ관광청, <<http://www.korea-dmz.com/home/page/sub04/03/0057900575300427.asp>>

양구의 고인돌의 재질은 대부분이 화강암으로, 채취한 돌을 일정한 장소에 모아 두었다가 필요할 때에 사용했던 저장소로 추정되는 장소가 발견되기도 하였다 또한 고인돌이 있는 주변지역에서는 간석기와 민무

늪토기 등이 함께 발견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양구 주변에서도 큰 부족 국가가 형성되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7) 인제군

인제군은 대부분이 험한 산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유적이 적지만, 북면 원통리 일대에서 3기의 고인돌이 발견되었으며 월 학리에서는 간돌칼 1점과 간돌화살촉 14점이 발견되어 청동기시대에 이 지역에도 사람들이 살았음을 알려준다

(8) 고성군

DMZ의 동쪽 끝인 고성군에서도 많은 고인돌이 발견되고 있다 거진읍 거진리, 봉평리, 화포리, 간성읍, 화진포, 현내면 등지에서 고인돌 군이 다수 발견되었으며, 화진포와 현내면에서 발견된 10여 기의 고인돌은 북방식으로 동해안지역의 북방식 고인돌의 남방한계선을 보여주고 있다

고성지역은 바다가 육지 안으로 만입하여 들어와서 만들어진 화진포라는 72만 평에 달하는 담염호⁵를 끼고 있는 지역이다 담염호에는 다양하고 풍부한 어족자원이 존재하는데, 청동기시대부터 이러한 풍부한 식량자원을 바탕으로 이 지역에서 강력한 청동기문화가 성장할 수 있었을 것이다

⁵- 담염호(淡鹽湖)는 바다가 육지 안으로 격리되면서 담수와 해수가 섞여 있는 호수를 뜻한다

[그림 I-11] 화진포 고인돌



출처 국가문화유산포털, <http://www.heritage.go.kr/culture_2008/kor/index.jsp>

고인돌문화는 청동기시대를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유물이다 고인돌은 단순히 무덤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많은 부장품이 함께 출토되며, 인근에서는 쉽게 청동기시대의 거주지 및 유물들이 발굴되기 때문이다

한반도의 북방과 남방이 만나는 지역인 DMZ 일원에서 이러한 고인돌이 다수 발견되는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며 과거부터 DMZ가 ‘한반도 청동기 문화’의 중심지였음을 시사해 준다

하지만 DMZ 일원의 많은 선사시대 유적들이 군사시설이나 개발 등으로 인해 잘 보존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민통선과 DMZ 내부의 선사시대 유적에 대한 조사 및 현황 파악은 더 어려운 문제이다 현재까지 발견된 유적들로 미루어 보아 DMZ 안의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지역에는 더 많은 신석기 청동기시대의 유적들이 잠들어 있을 것이다 남북의 화해와 협력이 진전되어 유적의 연구 및 보전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삼국시대와 DMZ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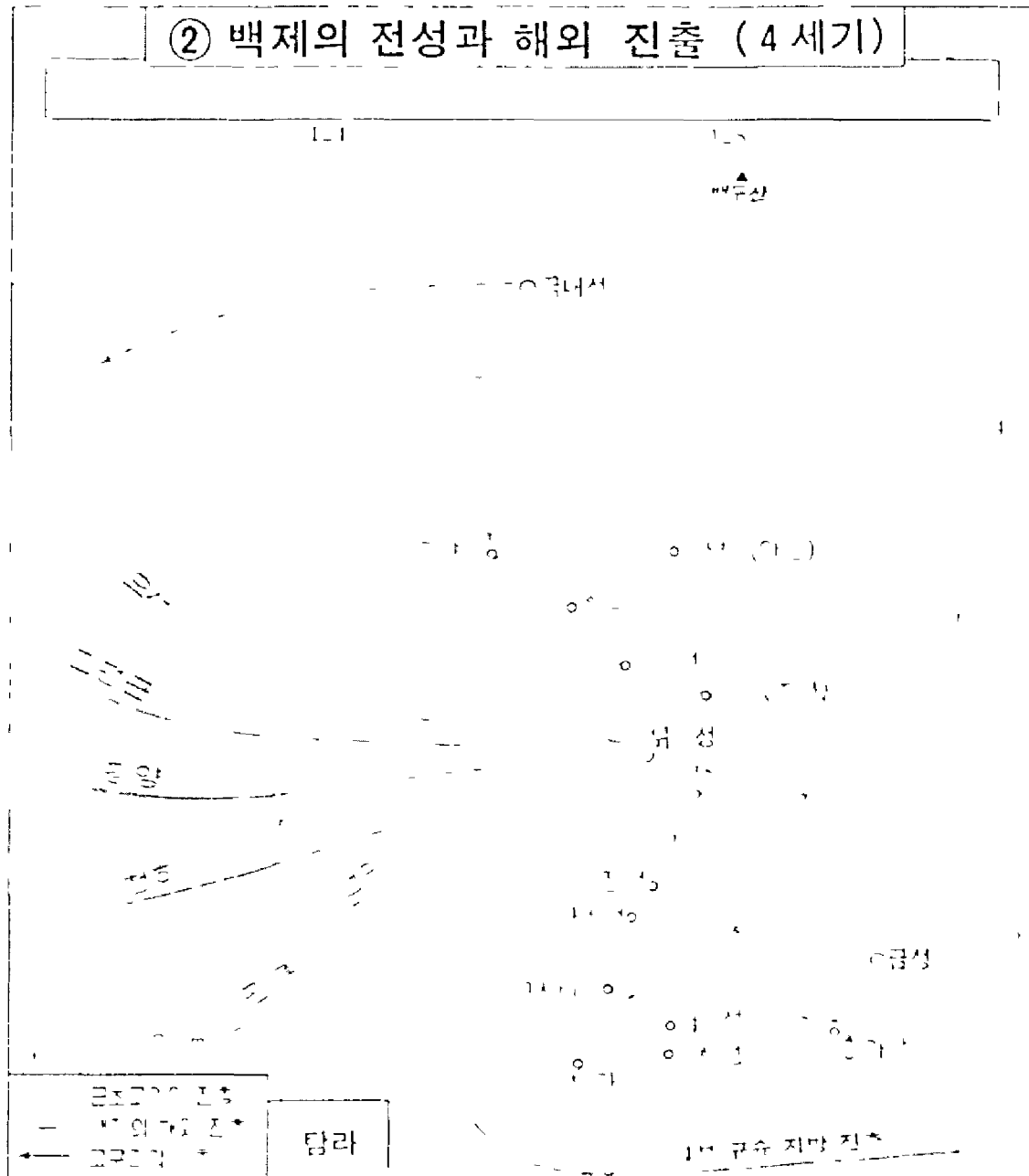
한반도에 거주했던 선사시대 사람들은 DMZ를 중심으로 아슐리안 석기, 벼농사 흔적, 고인돌 등으로 자신들의 주 활동 무대가 DMZ 일원이었음을 보여주었다 이와 같이 발달된 문화를 바탕으로 한반도에서는 부족국가들이 발전하였고 이 부족국가들은 고구려, 신라, 백제로 대표되는 고대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다 고구려가 5부족 연맹체에 그 기원을 둔 사실 등에서 청동기시대의 부족국가문화가 고대국가의 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할 수 있다

DMZ 주변은 한강을 이용하여 한반도 중심을 ‘동서’로 연결해주며 요동과 만주의 육로를 거치지 않고서도 해로를 통해서 중국 대륙과 연결이 되는 곳이다 또한 육로로는 추가령구조대가 발달되어 있어 남쪽 지역의 문물을 함경도를 통해 만주까지 남북을 연결해주는 교통로 구실도 한다 이 육 해상의 교통로의 장악은 각 고대국가들이 중국과 손을 잡거나 남하를 시도 혹은 저지하기 위한 핵심적인 요충지가 되었다

고구려, 신라, 백제가 경합하던 삼국시대 한반도에서도 DMZ 일원, 특히 임진강과 한강 주변의 DMZ 서부지역을 차지하는 것이 각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하나의 지렛대가 되었을 만큼 영향력이 큰 지역이었다 따라서 DMZ는 삼국시대의 문화와 유산들을 어느 곳보다 풍성하게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 되었다

가. 백제와 DMZ

[그림 I-12] 4세기 백제 전성기



출처: 서브코리아 홈페이지, <<http://www.subkorea.com>>

삼국 중 가장 먼저 DMZ를 차지한 국가는 백제로, 백제가 한강 북부의 DMZ 지역을 차지한 시대를 한성백제시대라고 칭하며 이 시대를

백제의 최전성기로 평가한다

369년 백제 근초고왕이 고구려의 평양을 공격하여 시작된 전쟁은 DMZ 서부지역 일원을 두고 벌인 한반도 최초의 격전이었다 초기에는 백제군에게 유리하게 상황이 전개되어 고구려의 고국원왕을 전사시키는 개과를 올렸으나, 광개토대왕의 등장으로 인해 상황이 역전되었다

광개토대왕은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다섯 차례나 남정을 감행하여 백제를 압박하고 396년 대남정을 통해 백제의 국경을 한강 이남으로 밀어내었다

광개토대왕의 남정 이전에 DMZ 일원의 많은 성들이 백제에 의해서 축조되었고 그중 많은 수가 군사 지리적 이점 때문에 고구려나 신라시대까지도 계속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백제에 있어 DMZ는 국운의 흥망이 일어난 계기가 된 땅이었다

(1) 초기무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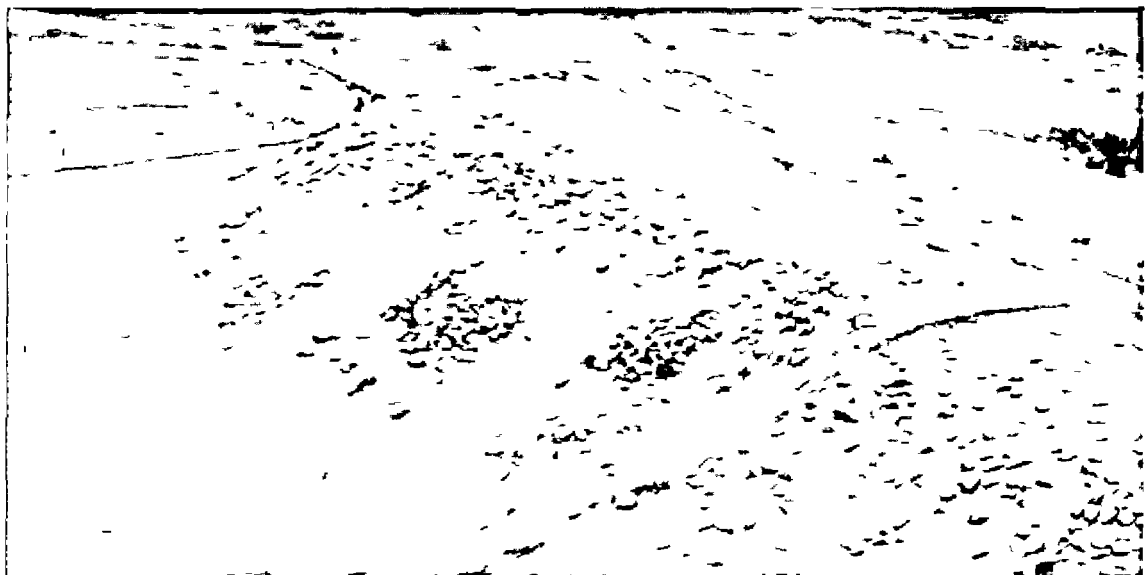
DMZ 일원의 백제의 초기유적으로는, 아직 확정된 설은 아니지만, 임진강변에 붙어있는 파주 주월리 육계토성이 있다 이곳은 백제 창업주 온조왕이 기원전 18년 고구려 유리왕을 피해 남하하여 정착한 최초의 장소라는 주장이 있는 곳이다 이를 뒷받침하듯 인근에는 초기 백제의 무덤 양식을 보여주는 연천 횡산리 적석총(積石塚, 돌무지무덤)을 비롯해 삼곶리, 삼거리, 우정1 2리, 동이리, 학곡리, 전곡리 적석총 등이 존재한다.

최근에 수몰된 연천군 군남댐 수몰예정지에서는 기원 전후에 초기백제 철제품을 생산하던 ‘제철마을’이 발굴되었고, 또 인근 강내리에서 역시 초기백제 주거지 74기와 청동기시대 주거지 4기, 경작유구와 수혈유구⁶ 131기 등이 발견된 점 또한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수몰예정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2009년 발굴이 진행된 경기 연천군

중면 횡산리 233번지 임진강 서쪽면에 소재하는 이른바 ‘횡산리 적석총’은 강변에 자연적으로 조성된 제방 위에 돌을 쌓아 조성한 무덤이다 이 적석총에서는 신석기시대 각종 빗살무늬 토기편을 비롯해 타날문토기조각과 창 등의 철기류, 옥제품과 돌제품 등이 출토됐다 특히 타날문토기와 철기류 등이 적석총 축조 무렵에 매장된 유물일 가능성이 있다 석재들이 발견되는 양상으로 미뤄 이 적석총은 남북으로 길이가 무려 58m에 이르렀을 것으로 추정되며 그 형태가 압록강 유역에서 조사된 무기단식 적석총과 계통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증거들로 인해 적석총을 축조한 주체는 고구려에서 남하한 백제건국자 집단, 고구려와 말갈, 백제변방 수장층 등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중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이 고구려에서 남하한 백제 건국자들의 무덤이라고 연구자들은 추정하고 있다

[그림 I-13] 연천군 횡산리 적석총



출처 “연천 횡산리 적석총, 무덤 맞나?” 『연합뉴스』, 2009년 10월 5일, <<http://blog.yonhapnews.co.kr/ts1406>>

6- 둥그런 구덩이를 파서 집을 지은 흔적

(2) 관미성

광개토대왕릉비에 보면 영락 6년에 “광개토대왕이 직접 ‘수군’을 이끌고 백제를 공격하여 각미성과 이단성등 58성과 700여 촌을 공략하고, 한강을 건너 백제의 도성에까지 육박하였으며, 백제의 아신왕이 굴복하여 영원한 신하가 되겠다는 맹세를 하였다”고 나온다 여기에 나오는 각미성이 백제의 관미성과 같은 성으로 추측되고 있다

고구려와 백제는 육로로 국경을 접하고 있었으므로 백제를 공격하는데 일부러 수군을 동원할 필요는 없었다 그러나 각미성(관미성)은 광개토대왕이 일부러 수군을 동원했어야 할 만큼 중요하고 점령하기 어려운 요충지였다

따라서 관미성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은 DMZ 일원의 백제역사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길잡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과거 많은 연구자들이 예성강 서쪽의 강화 교동도를 관미성으로 분석하였다 이는 서해에서 한강을 거슬러 올라가 백제를 공략하는 데 교동도가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학자들은 황해도 예성강 중류로 관미성이 있었다고 분석하기도 한다

하지만 조선시대 최고의 지리학자 고산 김정호(金正浩)는 『대동지지(大東地志)』에서 관미성의 위치는 임진강과 한강의 합류지점인 교하의 오두성, 즉 현재 ‘오두산 통일전망대’가 위치하고 있는 파주시 탄현면 오두산이 관미성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대부분의 문헌이 관미성을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절벽위의 성”이라 묘사하는데, 오두산의 지리적 위치와 모양이 기록과 가장 유사하기 때문에 최근 학계에서는 이 설을 많이 지지하고 있다 [그림 1-14]는 북한강과 임진강이 합쳐지는 부분에 위치한 오두산의 전경을 보여주는 사진이다 오른쪽 가운데 부분에 홀로 솟은 오두산 정상에 통일전망대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삼면

에 바다로 둘러싸이고, 높은 절벽 위에 위치했다는 관미성의 기록과 매우 흡사하다 사진의 아래 보이는 자유로가 과거 개령에서 임진강을 거쳐 한성으로 들어오던 길과 같은 길이다

[그림 I-14] 한강 하구와 오두산 통일전망대



출처 “동네 뒷산인줄 알았는데 명산이네,” 『오마이뉴스』, 2010년 1월 21일,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3045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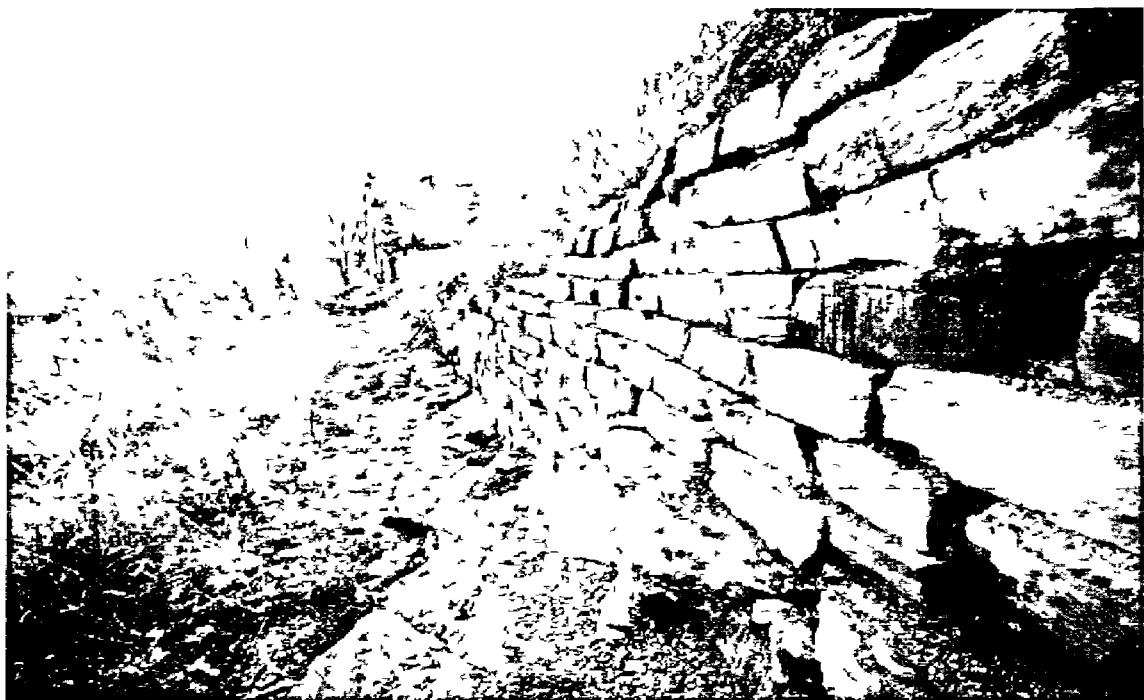
오두산에 위치한 산성은 한강과 임진강이 서로 만나는 지점인 오두산 정상을 중심으로 축조된 길이 약 620m의 백제시대 테뢰식 산성⁷이다 사면이 가파르고 서쪽은 임진강, 남쪽은 한강과 면하고, 동쪽은 농경지로 북쪽은 산록으로 연결되어있다 산 정상에는 여기저기에 성벽용 석

⁷ 테뢰식(퇴뢰식) 산성은 봉우리들을 둘러쌓아 성을 축조한 것으로, 산 정상을 중심으로 하여 7~8부 능선을 거의 수평으로 산을 둘러싸 지은 성을 말한다

재가 흩어져 있으며, 삼국시대에서 조선시대까지 계속 수축된 것으로 보인다 1990년~1991년 사이의 발굴조사에서 토기, 백자, 기와, 철촉 등이 다수 발견되었다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리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통일전망대가 들어서면서 원형을 찾기가 어려워졌지만 이 유적에 대한 관계전문가의 현지조사 결과, 임진강과 한강의 합류지점인 서안에 높이 1~15m, 길이 약 30m, 폭 6~7m인 당시의 성벽이 정연하게 남아 있음이 확인되었다 축조방법은 초석 위에 5~15cm 두께의 지대석을 들여쌓기하여 내측은 전부 돌로만 채운 뒷채움식 형식이다 큰 암반을 초석으로 이용하고 그 단면을 성벽으로 이용한 성곽형태를 갖추고 있어 백제시대 성곽 연구에 중요한 유적이다 사적 351호로 지정되어 있다 현재(2011년 11월)도 발굴과 보존작업이 진행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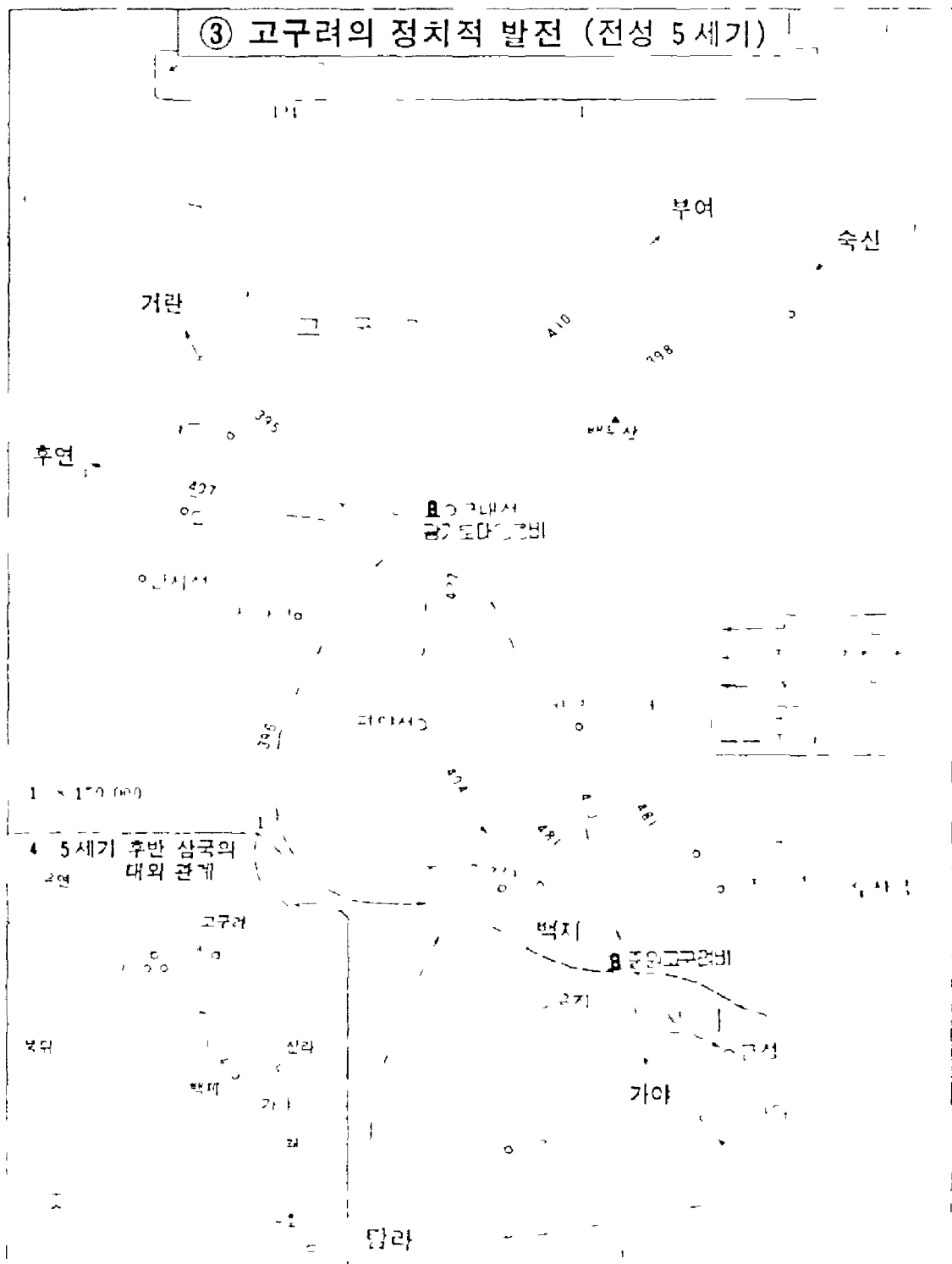
[그림 I -15] 오두산 산성



출처 파주문화원 <http://www.pajucc.or.kr/renew_html/paju_culture/view.php?uid=7>

나 고구려와 DMZ

[그림 I -16] 5세기 고구려 전성기

출처 서브코리아 홈페이지, <[http //www subkorea com](http://www.subkorea.com)>

백제의 유적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언급하였듯이 한성백제시대가 광개토대왕의 남정으로 인해서 마무리되었고 DMZ 일원은 잠시 고구려가 지배하게 된다 때문에 임진각 일원의 여러 산성에서는 남한에서 발견하기 어려운 고구려 양식의 성들과 유적들이 다수 발견되어 고구려사 및 삼국시대의 문화 연구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DMZ 일원에서 발견되는 고구려의 유물들은 고구려가 한반도의 남쪽에까지 영향을 미쳤던 고구려의 최전성기 시대의 역사와 문화를 반영해주는 중요한 사료들이다

(1) 임진강 여울

광개토대왕의 백제 정벌 후 DMZ 일원에 대한 고구려의 진출은 더 활발해졌다 그런데 장수왕 시절에 이르러 고려의 남진통로에 변화가 일어났다 기존의 관미성을 통과하여 파주와 고양을 거쳐 연신내를 통해 서울로 들어오는 길을 취하지 않은 것이다

장수왕의 고구려 군대는 개성에서 연천으로 돌아 지금의 의정부 수유리 쪽을 통해 서울로 들어오는 루트를 개척하였다 이 길은 1,500여 년이 지난 한국전쟁에서 중화기로 무장한 북한 군대가 서울을 점령할 때 사용한 길과 동일한 루트이다 삼국시대에 만들어진 길이 현대까지 영향을 미친것이다 고구려와 북한은 비슷한 이유에서 이 길을 사용하였다

고구려와 북한의 공통점은 강력한 중무장부대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다 고구려는 철기로 중무장한 기마대가, 북한은 탱크들의 기갑부대가 주력부대였다 고구려와 북한은 이러한 주력부대의 특성으로 인해 파주, 고양으로 통하는 길보다 연천을 통하여 남하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북쪽에서 남진하는 세력이 일반적으로 파주, 고양을 거쳐서 남하하기 위하여 반드시 거쳐야 하는 강이 임진강이며, 때문에 DMZ를 끼고 흐르는 임진강은 항상 격전의 무대가 되었다

파주지역의 임진강은 바다와 만나는 하구로 강의 폭이 상당히 넓어서 강폭이 1~2km에 다다른다 또한 서해바다는 조수간만의 차가 매우크며 갯벌도 발달하여 중무장한 부대가 빠른 속도로 도강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 중화기와 중무장기병은 도강하는 데 많은 시간과 자원들이 필요하며 교두보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도하작전은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그런데 연천지역은 임진강의 상류는 아니지만 배를 타고 건너지 않아도 되는 여울목이 나타나는 지점이다 고구려의 철갑기마대와 북한의 탱크는 중화기가 건너는 데 배를 필요로 하지 않는 연천의 얇은 여울을 따라 별다른 방해 없이 남하할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파주, 고양은 개활지를 통해 부대를 이동시켜야만 한다 개활지에서의 부대의 이동은 방어하는 측에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연천과 수유리를 거쳐 서울로 들어오는 길은 산악지형으로 부대를 숨기기에 아주 유리하다 이곳은 산지임에도 서울과 원산까지 이어져 있는 추가령구조곡이 철원을 거쳐 연천을 지나 서울로 들어오는 구릉지 위에 평탄한 길을 뚫어 놓았다 지금의 경원선 철로가 바로 그곳이다 연천은 산악지형의 이점을 살려 부대를 숨길 수 있고 동시에 평탄한 길을 따라서 부대를 이동시킬 수 있는 지형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2) DMZ 일원의 고구려 성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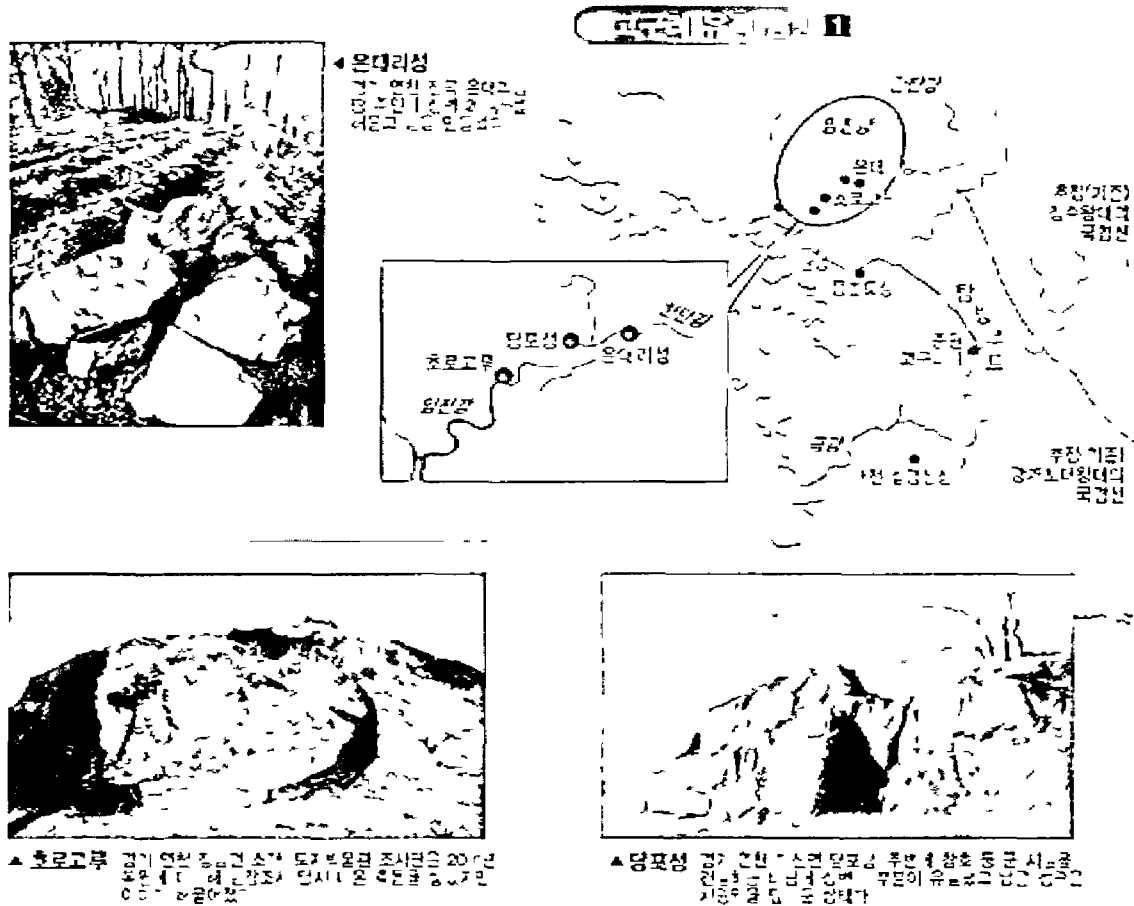
이 고구려의 남하루트를 따라서 고구려의 성들이 선형으로 지어졌다 5~6세기 무렵 한탄강과 임진강 유역, 천보산과 불곡산을 중심으로 하는 양주 일원, 한강 유역의 아차산 일대 세 곳을 중심으로 고구려의 성들이 많이 축조되었다 대부분의 고구려 성터들이 특정한 통로에 선형으로 집중되어 있으며, 이는 삼국시대의 교통문화 및 지방에 대한 '통치 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사료가 된다

특히 DMZ 일원의 임진강 유역과 한탄강변에 중요한 고구려의 성곽들이 많이 위치한다 임진강 상류에는 강서리보루, 고성산보루, 무등리보루, 우정리성이 있고, 한탄강 유역에는 은대리성과 성동리산성, 대전리산성 등이 있으며, 임진강 중하류지역에는 당포성, 아미리보루, 호로고루성이 남아 있다

이 성들은 개인농지, 민간인통제구역 등의 군사지역 안에 방치되었는데 최근 들어서야 문화재청이 은대리성을 사적 469호, 당포성을 사적 468호, 호로고루성을 사적 467호로 지정하였다

이 세 성은 고구려가 한성백제를 함락시킨 뒤 유사 시 증원군을 급파하기 위해 교통요지에 만든 교두보이자 고구려가 이후 신라에 패해 후퇴할 때까지 최후의 교두보로 유지했던 군사기지라는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그림 I-17] 임진강의 고구려 성들



출처 “[민족의 혼, 고구려는 지금 (1)] 호로고루, 당포성, 은대리성,” 『국민일보』, 2005년 1월 21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0189999>>

(가) 은대리성

은대리성은 연천구 전곡읍 은대리 577번지 일대 한탄강과 한탄강의 지류인 차탄천이 합류되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성은 삼각형 형태로 이루어져 있으며 남벽과 북벽은 하천이 형성한 자연단애를 이용하였고 동쪽 평지에는 돌과 흙을 섞어서 성벽을 쌓아 올렸다. 내성과 외성으로 구성된 2중 구조로 둘레가 1km에 이를 정도로 큰 성이다.

출토된 유물이 대부분 토기 파편인데 주로 흑색과 회색을 띠어 고구

려 토기의 전형을 보여주며, 철제유물이 소량 발견되었다 특이한 점은
기와가 한 점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또한 신라의 유물이 전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삼국시대 이후 곧바로 폐지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방어시설이나 도강시설 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주변의 농지
를 관리하고 전쟁에 대한 보급을 하기 위한 성으로 보인다

[그림 I-18] 은대리성 흑색 고구려 토기



출처 Hello 연천, <<http://kr.blog.yahoo.com/1yc21net/42>>

(나) 당포성

당포성은 한탄강이 임진강에 합류하는 지역인 연천군 미산면 동이리
778번지 일대에서 발굴되었다 서쪽 부분 뾰족한 삼각형 형태로, 서북
쪽은 임진강 북안과 그 지류를 이용한 천연단애를 이용하였고 동쪽은
성벽을 높게 쌓았다 절벽을 끼고 있는 남북성벽은 낮게 축조되었다
주변에서 참호의 흔적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그림 I-19] 당포 성터



출처 정오의 빛 홈페이지, <<http://blog.daum.net/ksch3305/17048367>>

발굴조사로 성벽 밖에 폭 6m, 깊이 3m의 대형 해자가 있다는 점, 성벽 상단 부위에 이른바 기둥구멍(柱洞 또는 石洞)들이 확인된다는 점, 성벽에 일정한 간격으로 수직형태의 홈이 파여져 있고, 그 끝에 동그랗게 판 확(確)돌이 연결되어 있다는 점 등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특징들은 기존의 고구려의 축성술과 유사하여 남한지역에서 고구려성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수직형태의 홈은 동벽 조사 당시 발견됐는데 이러한 수직홈은 중국 지안의 환도산성, 패왕조산성, 흑구산성 등 여러 곳의 고구려 산성에서 이미 확인된 바 있다 그러나 그 용도에 대해서는 명확한 결론이 나있는 상태가 아니다 다만 이 수직홈이 투석기나 노기(弩機)같은 수성용 무기가 설치됐던 흔적으로 추정되기도 한다

당포성이 관할하는 당개나루는 수철성과 아미성 사이에 개설된 간파천로의 초입에 해당된다 특히 당포성의 배후에는 개성으로 향하는 길목인 마전현이 자리잡고 있어 양주분지 일대에서 북상하는 적을 방어하는데 필수적인 성곽이다

대부대의 이동에는 호로그루성 앞의 고랑포나 육계토성 앞의 강여울이 이용됐을 것이지만 이 두 여울은 양안에 모두 튼튼한 요새가 자리잡고 있어 도강에 매우 불리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당포성은 가장 단거리의 요도를 차단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반면에 북진 시에는 강의 북안에 교두보를 확보해야 하는 절실함이 있었기 때문에 신라 점령기에도 꾸준히 이용됐을 것으로 보인다

성터에서 발굴되는 기와 중 신라계 기와가 고구려계 기와보다 많이 발견되는 점으로 보아 신라시대에도 지속적으로 성이 이용 및 유지되었음은 확실해 보인다

(다) 호로그루성

호로그루성은 연천군 장남면 원당리의 고랑포 북쪽에 위치한다 ‘호로’는 고구려 말로 ‘성’을 뜻하는 홀이 변형된 이름이다

2000년부터 발굴되기 시작한 이 성은 군부대 안에 위치하고 있어 발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성은 한탄강과 임진강이 만나는 삼각평야에 조성되었는데 이 지역은 얇은 여울이 발달해 고대로부터 교통의 중심지였다 호로그루성 앞은 수심이 얕아 임진강에서 배 없이 건널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곳으로 군사적 요충지다 중무장 기마부대로 편성된 고구려군이 백제의 수도 한성으로 진격하기 위해 최단 코스인 문산 방면 대신 택한 연천 방면의 진격로가 바로 호로그루성 앞의 여울목이다

[그림 I-20] 연천 호로그루성



춘천 서림의 홈페이지, <<http://blog.daum.net/poet0725>>

높이 10m, 길이 80m의 호로그루 성벽은 20~30m 높이의 천연절벽과 맞물려 위에서 내려다보면 삼각형 모습을 갖추고 있다 또한 성터 발굴조사 결과 네 차례에 걸쳐 보수한 흔적이 발견되었는데, 판자를 측면에 대고 성을 쌓는 초기 백제식과 바깥에 돌을 쌓고 자갈로 다진 고구려의 성벽축조방식, 그리고 외벽하단에 석재를 덧붙인 신라의 축성법이 모두 발견되었다

호로그루에서는 구석기시대의 주먹도끼를 비롯하여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는 다양한 유물이 출토되었는데 그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고구려 기와류이다

또한 고구려의 생활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유물이 출토되었다 ‘절풍’이라고 하는 고구려 관모의 실제 모습이 어떠했는가를 유추할 수 있는 토제 모형이 출토되었으며, 고구려 도량형을 이해할 수 있는

저울추, 삼족벼루, 토제품 등 지금까지 출토 선례가 없는 다양한 유물이 쏟아져 나왔다

창고시설에서는 쌀, 콩, 조 등의 탄화곡물과 소, 말, 사슴, 개, 멧돼지 등 다양한 동물 뼈가 수습되었다

금속유물로는 화살촉과 도자기류, 금동불상 등이 출토되었다 특히 금동불상은 현재까지 출토된 적이 없는 특이한 형태의 것으로 중앙의 불좌상 좌우에 보살상이 한 구씩 배치되어 있으며 그 사이에 합장한 인물이 하나씩 서 있는 독특한 양식의 삼존상이다 크기가 작아서 몸에 지닐 수 있게 만들어졌다 고구려인들의 ‘불교문화’를 이해하는 데 소중한 사료로 평가받고 있다

[그림 1-21] 호로그루성 고구려 관모(절종)형 토기



출처 “토공 토지박물관 호로그루(瓠蘆古壘) 2차 발굴조사 현장설명회 개최,” 『뉴스와이어』, 2006년 8월 31일, <<http://www.newswire.co.kr/newsRead.php?no=181463&picno=73355&ected=>>>

이로 미루어 보아 호로그루성은 남한지역 고구려성 40여 개 중 가장 중요한 거점이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고구려가 멸망하기 전까지 북진하는 신라에 맞선 거점성으로 활용되었을 것이다 고구려가 긴 안목으로 천혜의 요소에 지어 놓은 호로그루성은 현재도 남북의 군사들이 대치하

는 참호와 막사로 1,600여 년 전부터 주어진 임무를 지속하고 있다

(라) 무등리 제2보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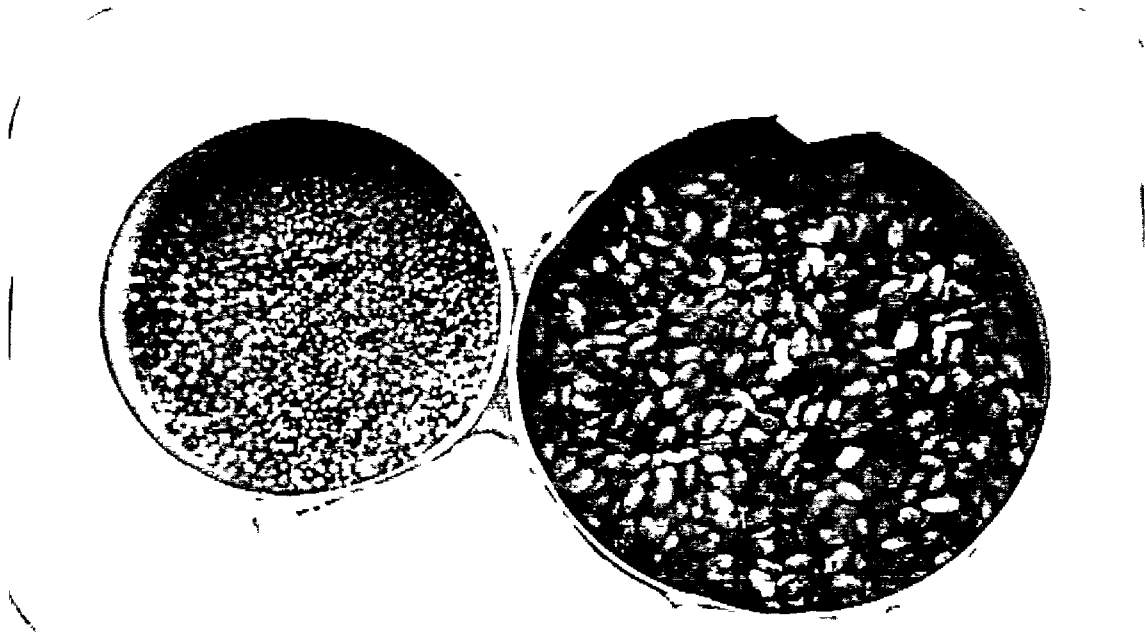
상기 세 고구려성 외에도 DMZ 일원에 존재하였던 고구려의 생활문화 등을 알려주는 중요한 유적이 연천군 왕징면 무등리의 제2보루이다. 무등리 제2보루 아래에서 1998년 8월 17일 탄화된 쌀과 조로 이루어진 곡물이 대량으로 발굴되었다. 이 조사를 진행한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조사단은 이 지역 200m에 걸쳐 분포하는 탄화곡물이 수백 가마니는 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탄화미에 대해서 한국 국립문화재연구소와 미국 BETA연구소에 방사성 탄소연대 측정을 의뢰한 결과 각각 530~690년, 660~895년이라는 결과치를 내어 놓았다. 탄화미의 연대가 5~7세기 중후반이라는 결과는 고구려가 DMZ 일원을 장악하고 있었던 시기와 겹친다.

무등리 제2보루의 탄화곡물은 남한지역에서는 최초로 발견된 고구려 식생활 자료로 고구려인의 주식인 쌀과 조 등이었음을 알려주고 있다. 황해도 안악고분의 벽화에는 부엌에서 시루로 밥을 짓는 광경이 묘사되어 있어 고구려 귀족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쌀밥을 주식으로 삼았다고 여겨져 왔었다.

무등리 제2보루의 탄화미를 분석한 결과 자포니카 계통으로 발아된 쌀이 있는 것으로 보아 당시 고구려군이 장기간의 보관과 운반을 위해 현미로 도정한 쌀을 상당량의 백미와 섞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현미는 껍질만 벗긴 것으로 소화에 문제가 있고, 백미는 잘 다듬기는 했으나 영양분이 파괴되는데다 보관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군용으로 두 가지를 섞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또한 당시로서는 고급 곡물인 쌀을 최전방 군사들에게까지 먹였을 정도로 고구려가 부강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그림 I -22] 무등리 제2보루 탄화미와 탄화조



출처 “고구려 보루 유적의 탄화미,” 『연합뉴스』, 2011년 5월 19일,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Gallery/YIBW_showPhotoNews_New.aspx?contents_id=PYH20110519118400005>

이곳에서는 2011년 5월에 고구려의 철제갑옷이 발견되어 고고학계를 다시 한 번 흥분시켰다 서울대박물관이 연천군 선사문화관리사업소의 의뢰를 받아 시작한 보루의 2차 조사 결과 철제 비늘모양 갑옷인 찰갑(札甲) 상의 한 벌의 전체가 발굴된 것이다

한국과 북한, 중국을 통틀어 기존의 고구려 영토에서 투구 관련 유물과 갑옷의 조각들이 발굴된 적은 있지만 갑옷상의 전체가 확인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이전까지 발견된 유물들은 찰갑의 편린들이 떨어져 있는 형태로 발견되어 갑옷의 어느 부위에 사용된 철비늘인지 확인하는 것조차도 어려웠었다 단지 고구려 고분 등에 그려진 벽화를 통해서 그 형태를 짐작해 오고는 했었는데 무등리 제2보루의 발견을 통해서 고구려사 및 고구려의 ‘전쟁 복식문화’ 연구에 진일보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

된다

이 유물의 중요도를 감안하여 문화재청 산하 문화재보존과학센터가 직접 수습하고 보존처리 중이다

이 찰갑편의 출토 지점은 임진강변 쪽 성벽과는 정반대 성벽 내부 건물터 중 문이 있던 곳으로 추정되는 곳이다 이 찰갑을 고구려 장수가 입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그보다는 사령관이 머물던 건물의 문을 지키던 보초병이 도망가기 위해 황급히 벗어 놓은 것이라는 추정도 나온다 이런 추정은 그 반대편 임진강변 단애 쪽에 마련된 대지에서 1998년 탄화된 상태의 쌀과 기장 같은 곡물이 다량으로 수습됐다는 점에서 비롯된다 통상 이런 곡물은 여유가 있는 군대라면 철수할 때 가져가거나 다 소비하지만 탄 채 그대로 남았다는 점에서 주둔하던 군대가 급히 퇴각하면서 식량창고에 불을 질렀다는 추론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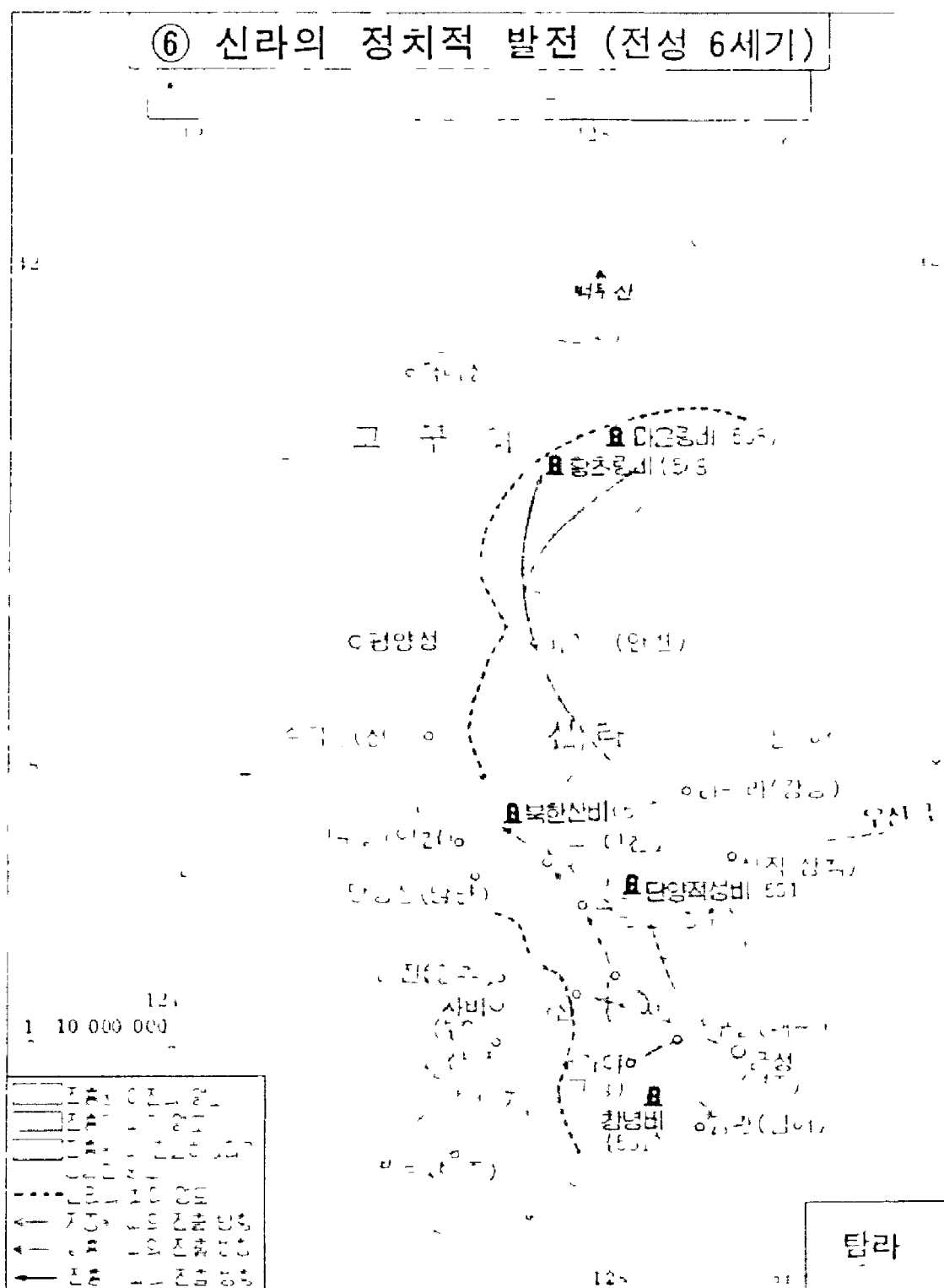
[그림 I -23] 무등리 제2보루 고구려 찰갑



출처 “1500년 잠 깬 고구려 철갑옷 경기 연천서 원형대로 출토,” 『동아일보』, 2011년 5월 18일, <<http://news.donga.com/3/all/20110518/37325899/1>>

다 신라·통일신라와 DMZ

[그림 I -24] 6세기 신라 전성기

출처 서브코리아 홈페이지, <[http //www subkorea com](http://www.subkorea.com)>

7세기 접어드는 시점에 신라는 DMZ 일원 및 한강유역의 장악을 공고화하여 남으로는 백제를 멸망시키고, 북으로는 고구려를 DMZ 이북으로 밀어내면서 통일의 발판을 마련한다 DMZ 일원의 마지막 지배자가 삼국통일을 이룩한 것이다

신라는 DMZ 일원을 가장 마지막으로 장악하여 백제와 고구려에 비해 신라 고유의 유적이 적은 편이다 DMZ 일원이 백제와 고구려의 치열한 다툼이 펼쳐진 최전선임에 반해, 신라에 있어서는 7세기 들어서야 지배력이 확실히 굳어졌고 그 후 백제와 고구려를 정복하여 발해와 접하는 최전선이 대동강과 두만강 사이로 북상하여 형성되는 바람에 이곳에서는 신라와 관련된 뚜렷한 역사적 유물들이 많이 발견되지는 않고 있다

또한 신라는 기존의 백제와 고구려가 사용하던 전략적 요충지들은 흡수하여 사용하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백제나 고구려양식의 성터유적에서 신라의 기와 파편들이 많이 발견되는 것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DMZ는 통일신라시대 신라가 당나라 군대를 몰아내고 민족적인 통일을 이루기 위한 전쟁이 격렬하게 치러진 곳으로, 한반도 안에서 최초의 민족적 통일을 실질적으로 완성한 의미가 있는 지역이다

(1) 두타연

신라가 삼국을 통일할 수 있었던 힘 중 하나는 ‘화랑도’⁸⁾의 존재였다. 화랑도는 삼국전쟁이 한창인 진흥왕 때 제정되어 삼국이 통일되는 100여 년 동안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였다. 신라는 유·불·선의 세 가지 종교를 동시에 포용한 국가였는데 선(仙)도가 추구하는 최고의 수련장소는 경치와 산수가 빼어난 곳이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화랑들의 수련장소로 알려진 곳들 중 가장 유명한 곳이 양구의 두타연 계곡과 금강산 일대이다. 일찍이 동해안 따라 DMZ의 동부지역에는 고구려의 지배력이 많이 미치지 못하였다. 따라서 맥국과 같이 동해 부근에서 삼한시대까지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던 부족국가들은 신라의 영향력 아래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 부족국가들이 자리잡고 있던 DMZ 중 동부지역의 경치가 뛰어난 산지는 신라화랑의 수련장소로 애용되었을 것이다.

⁸⁾ 화랑은 단체정신이 매우 강한 집단으로 골품제를 통해 엄격하게 유지되었던 신라의 계급제도에 대한 긴장과 갈등을 완화하는 정치적 장치로 이해되기도 한다. 불교적 색채를 바탕으로 한 화랑의 신조인 세속오계 중 하나가 싸움에 임하여서는 물러서지 않는다는 임전무퇴(臨戰無退)인 점이나, 삼국전쟁의 중요한 시기마다 관창, 반굴 등의 화랑이 전쟁에서 활약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화랑도는 전쟁에 필요한 군사력과 젊은 장수들을 얻기 위한 제도였다.

[그림 I -25] 양구 두타연 계곡



출처 하늘정원의 홈페이지, <<http://blog.naver.com/leciel670?Redirect=Log&logNo=40070791607>>

DMZ 일원에서 수련하던 화랑들의 활약으로 신라는 삼국을 통일할 수 있었지만, 통일전쟁에 참여한 당나라는 한반도를 차지하려는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었고 신라는 통일전쟁에 이어서 바로 당나라를 축출하기 위한 전쟁을 벌이게 된다

당나라는 옛 백제의 땅에 식민통치기구인 5도독부를 일방적으로 설치하였다가 이후 웅진도독부와 7주로 개편하였다 이후 663년에는 신라를 일방적으로 계림도독부로 칭하고 문무왕을 계림도독에 임명한다 고구려가 멸망한 이후에도 평양에 안동도호부를 설치하여 한반도를 분리하여 지배하려는 야욕을 드러낸 것이다

백제와 고구려의 땅에 당의 야욕이 강해지자 신라는 고구려와 백제의 부흥군들과 손을 잡고 당나라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비록 왕조는 멸망하였지만 지방의 호족들을 중심으로 백제와 고구려의 끈질긴 부흥군들이 각 지역에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다

결국 당나라는 자신들에게 적대적인 문무왕을 인정하지 않고 그의 동생인 김인문을 신라왕으로 봉하여 신라의 내부적 분열을 획책하였다 그러자 신라는 당나라 유인계의 군대를 격파하는 것을 시작으로 당나라에 대한 전쟁에 돌입하였다

전투는 675년 가장 치열했다 당은 675년에는 이근행을 안동진무대사(安東鎭撫大使)로 삼아 신라로 남하시켰다 이와 동시에 설인귀는 서해로 침입했지만 신라 장군 문훈(文訓)이 응전하여 1,014명을 죽이고 병선 40척을 빼앗는 대승리를 거두었다 675년 9월 29일에는 이근행의 20만 군대가 매초성에 주둔하자, 신라군이 이를 포위 공격해서 당병을 패배시키고 전마(戰馬) 3만 380필과 많은 무기를 전리품으로 획득했다 이 매초성전투는 신라군이 당나라에게 결정적 타격을 주고

나당전쟁을 승리로 이끈 최대성과였다 이 이후로 당나라 군대는 힘을 잃어 676년 기벌포전투를 마지막으로 신라군에게 패배하며 요동으로 밀려난다

(2) 매초성

이 매초성은 매초천성(買肖川城)이라고도 하며, 그 위치는 매성현(買省縣, 지금의 경기도 양주)으로 추정되었으나 최근의 연구에 의해서 매초성을 연천의 대전리 산성으로 보는 견해가 우세하다

대전리산성은 연천군 청산면 대전리 산 2-2번지, 대전리와 장탄리에 걸쳐 있는 성재산에 위치한다 성재산은 한탄강의 동쪽 기슭에 인접해 있으며 서남쪽에서는 양주와 동두천을 흘러온 신천이 한탄강에서 합류한다 산 정상부에서면 주변의 교통로뿐만 아니라 한탄강, 신천, 및 전곡 일대의 넓은 평야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전략적 요충지이다 석축 및 성벽의 일부가 노출되어 있기는 하지만 성벽의 흔적을 찾기가 어렵다 1984년부터 실시된 역사편찬위원회 실측조사결과 이 성이 매초성 터임을 확인했다 성 내부에서 발견된 토기와 기와들이 백제와 고구려의 것이 없고 통일신라시대의 것들만 발견되는 점도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현재까지도 병커와 헬기착륙장 등 군사시설로서의 용도를 유지하고 있다

[그림 1-26] 연천 대전리 산성



출처 “역사의 미스터리, 연천 대전리 산성,” 『데일리안』, 2010년 5월 28일, <http://www.dailian.co.kr/news/news_view.htm?id=205499&sc=naver&kind=menu_code&keys=4>

4. 후삼국시대 태봉국과 DMZ

한반도에서 신라의 지배가 끝나가는 10세기경 한반도에는 신라의 뒤를 이어 한반도의 주인을 차지하기 위한 여러 국가들이 등장하여 각축을 벌였다. 이 혼란의 시대는 왕건의 고려건국에 의해서 정리되는데 이 고려 건국의 기반이 DMZ 일원에서 시작되었다.

당시 일천년 역사의 통일신라는 그 이름에 걸맞지 않게 경주를 위시한 경상도 일부지역을 다스리는 작은 나라에 지나지 않게 되었다. 반면 그 시절 DMZ 일원을 수도로 정한 궁예(弓裔)의 태봉(泰封)국은 잠시나마 한반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큰 국가를 이루었다.

사료가 충분하지 않아 정확한 일생을 알 수 없지만 궁예의 아버지는 신라 47대 헌인왕이며 어머니는 이름 없는 궁녀였다고 한다. 궁예가 태어났을 때 왕실의 길흉을 점치던 일관이 궁예가 나중에 왕실을 해칠 것이라 예언하여 왕이 궁예를 죽이려 하였으나 창문으로 던져진 아이를 유모가 받아서 살렸는데 그때 눈이 찢려 애꾸가 되었다고 전해진다.

그 후 10여 세에 영월의 세달사(世達寺)라는 절의 들어가 승려생활을 한다. 세달사를 떠난 궁예는 다음해 북원(원주)을 지배하고 있는 지방세력의 수하로 들어간 후 영토를 넓힐 것을 명령받고 600명의 병사를 받아 북원을 떠났다. 하지만 그 후 4년 만에 궁예는 철원에서 자신의 나라를 세웠음을 선포한다.

불과 600의 병사로 어떻게 4년 만에 철원평야를 위주로 한 경기지방의 많은 땅들을 차지한 왕이 되었는지는 많은 학자들과 전문가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많지 않은 사료들에 의존해서 추적해보면 궁예는 양길의 휘하에서 얻은 병사를 가지고 영월, 영주, 울진, 강릉(명주)로 이동하면서 자신의 세력을 확보하였다. 이후 북쪽으로 방향을 잡았으나 발해와 말갈에 의해서 진출이 좌절되었을 것이다.⁹⁾

북진을 포기한 궁예는 이전의 군주였던 양길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대관령과 미시령을 피해 한계령과, 진부령을 통해 서진한 것으로 파악된다. 895년 궁예는 백두대간의 서쪽으로 넘어서 저족(인제), 생천(화천), 부약(김화), 금성(김화), 동주(철원) 등 10여 군현들을 자신의 세력권 아래에 두었다.

철원에 이르러서는 호족들뿐만 아니라 농민과 하층민들의 지지가 절대적이었다. 궁예의 군사적 능력과 민심의 쏠림으로 인해 예성강 일대

⁹⁾ 함광복, 『한국 DMZ 그 자연사적 탐방』 (서울 집문당, 2005)의 설명을 참조

의 많은 호족들이 궁예에게 귀화하는 현상을 보였고 궁예는 연천과 파주를 거쳐 개성까지 자신의 세력권에 넣었다

개성에서 해양세력을 장악하고 있었던 호족인 왕륜의 일가도 이때 궁예에게 귀순하게 되었고 901년 왕륜의 아들 왕건이 개성에서 반란을 일으켜 ‘고려’를 세우게 된다 이후 한반도를 통일 지배하게 될 고려의 역사 역시 DMZ 일원에서 그 터가 닦였다고 할 수 있다

가 궁예도성 터

통일신라시대 이후로 개성은 위로 고구려의 유민들과, 아래로 백제, 신라의 유민들이 모여드는 가장 번잡한 도시로 발전하고 있었다 남동쪽에 치우쳐 한반도 전체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었던 경주에 비해 궁예가 처음 자리를 잡은 DMZ 일원은 당시에도 한반도의 중심이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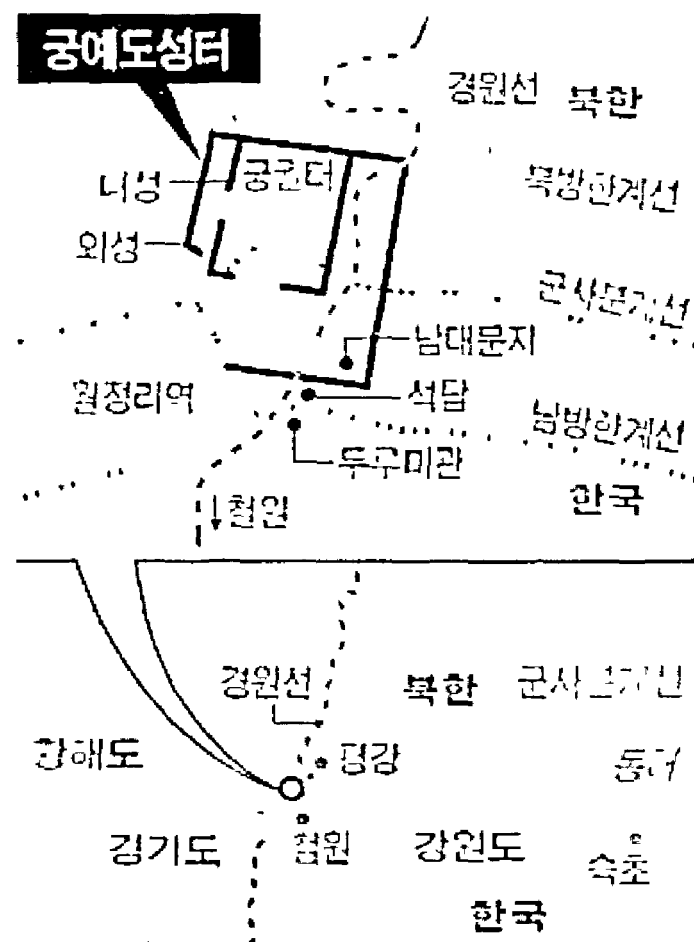
궁예는 점차 세력이 커지면서 개성 일대의 고구려계 유민들뿐만 아니라 백제와 신라의 유민들을 자신의 세력 아래에 편입시킨다 이를 계기로 궁예는 특정한 국가의 계승의식이 담겨 있는 고구려라는 이름을 버리고 ‘마진’이라는 불교식 이름으로 국호를 변경한다 마진이란 뜻은 마하진단(摩訶震旦)의 약칭인데, 마하는 범어(梵語)로 ‘크다’는 뜻이고 진단은 ‘cintana’의 음역으로 진인(秦人)이 거주하는 땅이라는 뜻이다 이는 본래 인도인이 중국을 지칭하던 말이었으나 그 뜻이 확대되어 동방전체를 의미하는 말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마진은 대동방국(大東方國)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¹⁰ 궁예는 이 국호를 사용함으로써 자신이 세운 나라가 신라와 (후)백제뿐만 아니라 발해까지 통합한 대국이 될

¹⁰- 민족문화대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45112>>인용

것임을 천명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궁예의 대동방국 건설의 꿈은 고구려의 후손으로 구성되어 있는 개성 중심의 호족들의 반발을 사게 되었고 결국 궁예는 철원으로 천도를 결정하게 된다 궁예는 일부 세력의 왕이 아닌 한반도의 통일과 북방 진출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한반도의 중심부인 철원으로 천도하였고 대규모 역사를 일으켜 태봉국의 도성을 건설하게 된다 지금 DMZ 안에 잠들어 있는 궁예도성이 그렇게 건립된 성이다

[그림 I-27] 궁예도성 위치



출처 박지사의 홈페이지, <http://blog.daum.net/_blog/BlogTypeView.do?blogId=044b3&artid=16136886#ajax_history_home>

철원평화전망대에 오르면 밖으로 동송저수지가 보이고 그 너머로
광활한 평야가 눈에 들어오는데 그 안에 궁예가 세운 도성이 숨어
있다

[그림 I -28] 철원에서 바라본 궁예도성 터



출처 까마구둥지의 홈페이지, <<http://luckcrowegloos.com/m/2031677>>

『고려사지리지』에는 “궁예궁전의 옛터가 동주(東州, 철원의 옛 지
명)의 북쪽 27리 풍천벌에 있으며 지금 그 위성의 둘레는 14,421척
(4,370m)이요, 내성의 둘레는 1,905척(577m)인데 절반이나 무너졌으
며 궁전의 터가 아직도 완전하게 남아 있다”고 기록돼 있다 조선시대
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은 안팎의 성 밑은 모두 돌로 쌓았고 위는
흙으로 쌓았다고 기록했다

그러나 일제의 『조선보물 고적조사 자료(강원도 편)』는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기록을 정정하고 있다 외성을 36,000척(10,908m), 내성을 2,400척(727m)으로 밝히고 바깥 성은 토석축성이며 높이 4~12척, 폭 12~16척, 안쪽 성은 높이 7척, 폭 12척의 토성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 규모는 풍납토성(둘레 35km)의 3배, 신라의 경주 월성(18km)의 5배, 고구려의 국내성(27km)의 4배쯤 되는 크기다

1996년 3월부터 11월까지 육군사관학교가 철원 일대의 관방유적을 조사하는 가운데서 궁예도성의 진면목이 드러났다 내성과 외성의 이중으로 구성된 도성은 둘 다 남북으로 긴 사각형 형태를 띠고 있으며 도성의 북쪽이 95도 정도로 기울어져 있다 성의 둘레는 외성이 125km, 내성이 77km로 모두 흙으로 축조되었으나, 저지대와 일부 지역에서는 현무암을 사용했다

성의 형태는 기록상 외성의 경우 성 하단폭 109m, 높이 36m로 돼 있으나 실제로는 폭 6~7m, 높이 2m 정도였고, 내성은 하단폭 36m, 높이 21m로 돼 있으나 실제 남아 있는 성의 크기는 0.5~1m 정도 더 작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내성 북쪽에는 태봉국의 궁궐이었던 포정전 주위를 둘러싼 둘레 18km 정도의 궁성과 그 앞에 일제시대 국보 118호였던 석등의 위치가 지도상에는 나와 있으나 북한지역이라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또 도성을 가로질러서 해방 전 부설되었던 철도제방이 그대로 남아 있다

[그림 I -29] 궁예도성 석등



출처 까마구둥지의 홈페이지, <<http://luckcrowegloos.com/m/2031677>>

나 철원의 미륵신앙

궁예가 DMZ 일원에서 자신의 세력을 크게 불릴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하는 것들 중 하나로 미륵신앙을 들 수 있다 당시 한반도는 신라의 몰락으로 각지에서 군사력을 가진 세력이 득세하여 전란이 이어지는 통에 백성들의 고초가 컸었다

궁예는 처음 강릉지역에 진출하면서 당시 어렵고 힘든 백성을 위해서 군량미를 나누어 주었고, 절에서 배운 의술을 통해 백성들을 많이 보살폈다고 한다 그래서 백성들 사이에서 궁예는 살아있는 부처의 화신으로 묘사되기 시작했으며 궁예도 자신을 미륵으로 지칭하기 시작한다

이는 비단 당시 궁예에게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다 사회의 혼란과 더불어 내세불인 미륵이 세상에 왔을 때 비로소 평화가 찾아온다는 미륵신앙이 유행하였으며 많은 호족들이 자신을 미륵으로 자처하며 신라사회에 대한 백성들의 반감을 이용해 자신의 세력을 키우려 노력하였다

또한 궁예가 당시 미륵을 주존으로 하는 법상종에 속하였다는 설명도 있는데 이러한 불교적 사상과 그에 기반을 둔 정책들이 궁예의 미륵으로서의 신격화에 한몫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DMZ 일원에는 궁예와 관련된 불상으로 반월성 안에 있는 미륵불이 유명하다 반월성은 당초 궁예가 쌓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조사결과 삼국시대부터 존재했던 성으로 밝혀졌다 그렇기는 하지만 태봉국의 전략적 요충지였고 그것을 보여주듯 궁예미륵이라고 불리는 미륵불이 성 내에 남아 있다

[그림 1-30] 포천 반월성 궁예미륵



출처 우리문화 우리역사 홈페이지, <<http://cbh.com.ne.kr/>>

(3) 궁예 관련 지명

궁예는 왕건의 쿠데타 이후 곧 죽음을 맞이한다 고려사는 궁예의 최후에 대해서 암곡으로 도망치다 허기져 보리이삭을 훔쳐 먹다 농민들에게 발각되어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철원 DMZ 일원 곳곳에서는 정사와는 다른 궁예의 최후를 전해주는 전설이 담긴 유적들이 많이 남아있다

궁예가 항전했던 최후의 격전지라고 불리는 보개산상, 왕건에게 쫓기

면서 그를 막기 위해 하룻밤 만에 쌓았다는 성동리성 등이 있다 특히 명성산은 궁예가 궁성을 빠져나와 마지막으로 저항하려 했던 곳으로 역부족임을 깨달은 궁예가 따라온 군사와 백성들을 해산시키자 모두 통곡했다고 하여 명성산(鳴聲山), 즉 울음산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기타 궁예가 울었다는 느치골, 도망치다 한숨을 돌렸다는 한잔모텡이, 궁예가 갑옷을 벗고 숨었다는 갑천 등 궁예의 최후와 관련된 수많은 지명들이 남아있다

궁예가 도읍을 정한 철원은 북쪽의 고구려 유민, 남쪽의 백제와 신라 유민 모두를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장소였으며 궁예는 이를 이용해 한반도의 절반을 지배할 수 있었다 비록 궁예는 짧은 시간 안에 역사에서 사라졌지만, 궁예가 DMZ 일원을 기반으로 이룩한 국가의 초석은 ‘고려’가 성립되고 이후 조선에 이르기까지 안정적인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는 기반을 쌓았다고 볼 수 있다

5 조선시대 이후 DMZ

고려가 몰락하고 조선이 성립된 이후 한반도의 중심은 개경(개성)에서 한양(서울)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DMZ 일원은 수도로서의 기능은 없었지만 제2의 수도로 불리는 평양이나 물자와 사람의 교통이 많은 개성으로 가는 요지의 역할, 즉 조선의 북방으로 가는 길목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

또한 이곳은 고대 이래로 지속되었던 전략적 요충지로서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었다 중국대륙에서 침략이 지속되었던 조선의 입장에서 대륙에서 남하하는 오랑캐들을 막는 최후의 보루로서의 역할을 DMZ 일원이 감당한 것이다 DMZ 일원의 이러한 특징은 병자호란 중

조선이 거둔 유일한 승리 중 하나인 김화지구전투(성재산전투)에서 잘 나타난다

가. 성재산

1636년(인조 15년) 12월 8일 청이 조선을 침공하였다 용골대와 마태부는 10만의 대군을 이끌고 조선을 침략하였는데 이들은 산성을 거점으로 배치된 조선군 방어망을 피하여 한양으로 직접 침투하였다

활을 주무기로 삼아 산성에서 저항하는 조선의 방어망을 일일이 공격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들을 모두 내버려 두고 한양으로 바로 공격해 들어간 것이다

때문에 인조는 멀리 몽진을 가지 못하고 한양에서 가까운 남한산성으로 피하게 되었다 이에 현지에서 적의 주력을 저지하지 못한 평안도의 조선군은 청의 주력을 추적하여 한양 방향으로 이동하였다 이들의 청나라 군대를 공격하기 위해 자리 잡은 곳이 바로 DMZ 일원이다

같은 해 1월 26일에 강원도 김화에 집결한 평안도군이 남한산성으로 진출하려 하자 앞서 철원 연천 포천 일원에 배치되어 강원도 방면에서 수도권으로 이어지는 길목을 차단하고 있던 청 우익군의 일부 병력은 조선군을 저지하기 위해 김화로 진격하였다

청군과 전투를 앞두고 평안도군 내부에서는 진영배치 문제를 두고 논란이 벌어졌다 평안감사 홍명구는 평지에 진을 구축하고 제1선에 총수, 제2선에 궁수, 제3선에 창검병을 배치하여 청군과 대적하자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평안병사 유립은 기병이 중심인 청군과 싸우려면 고지에 진을 치는 것이 유리하다고 고집하였다 장시간 격론을 벌였으나 병력배치에 합의를 보지 못하자 두 지휘관은 자기 휘하의 병력을 이끌고 각기 평지와 고지에 진을 치고 말았다 1월 28일 아침에 김화로 이동한

청군은 일부 병력을 조선군의 두 진영 사이에 배치하여 상호협조를 차단하고 평야의 홍명구 진영을 먼저 공격하였다. 청군은 화포사격을 가하면서 선두에 기병 1천여 기를 앞세워 조선군 진영 주위를 맴돌면서 화살로 공격하여 전열을 흐뜨리면서 주로 장창으로 무장한 3천여 보병을 돌격시켰다. 그러나 홍명구 휘하의 조선군은 견고한 목책에 의지하여 3, 4차에 걸친 청군의 파상 공격을 막아냈다. 조선군의 집중사격으로 사상자가 늘어나자 청군은 건초와 장작을 실은 수레를 조선군의 목책에 밀어붙이고 불을 붙여 목책을 제거하였다. 장애물을 제거한 청군은 일제히 조선군 진영으로 돌격하였으며 조선군은 전열을 정비할 틈도 없이 청군과 백병전을 전개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수적으로 우세한 청군이 이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고 조선군은 지휘관 평안감사 홍명구 이하 대부분의 병사들이 전사하고 말았다.

[그림 I-31] 성재산 전골총



출처 네이버 캐스트, <http://navercast.naver.com/contents.nhn?contents_id=208>

한편, 유림의 진영은 제1선에 창검병, 제2선에 궁수, 제3선에 총수를 배치하여 청군의 침입에 대비하였다 아울러 진영 주위에 큰 돌을 쌓아 두고 유사 시 굴러서 공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형의 이점을 최대한 살리려 한 것이다 평지의 조선군을 섬멸한 청군은 당일 오후 산을 포위 하고 전면공격을 개시하였다 조선군은 청군을 진지 가까이까지 접근시킨 후 미리 준비한 큰 돌들을 굴렸다 이 때문에 청군 전열이 흐트러지자 제1선의 창검병들이 일제히 돌격하여 청군의 배후를 공격하여 이들을 격퇴시켰다 청군이 다시 전열을 수습하여 재차 공격을 가하자 조선군은 청군이 가까이 접근할 때까지 기다리다가 지휘관의 명에 따라 제2선의 궁수대와 제3선의 총수대가 교대로 사격을 가하였다 청군은 기습적인 일제 사격에 많은 피해를 입고 후퇴하였다가 다시 일제 공격을 시도하였으나 조선군은 이 역시 쉽게 물리칠 수 있었다 오후 내내 지속된 청군의 공격이 소강상태를 보이게 되자 유림은 진영을 재정비하고 일부 병력을 진영 외곽에 은밀히 매복시켰다 해질 무렵 청군이 다시 공격을 개시하자 조선군은 적을 사정거리 내에 끌어들인 후 본진과 외곽 매복조가 동시에 사격을 가하여 청군 전열을 와해시켰으며 후퇴하는 청군을 추격하며 사살하였다 청군은 물러갔으나 조선군은 전투 중에 탄약과 화살을 모두 소모하여 거점을 계속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에 유림은 병력을 화천 방면으로 은밀히 이동시켜 적의 공격으로부터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게 하였다

[그림 I-32] 성재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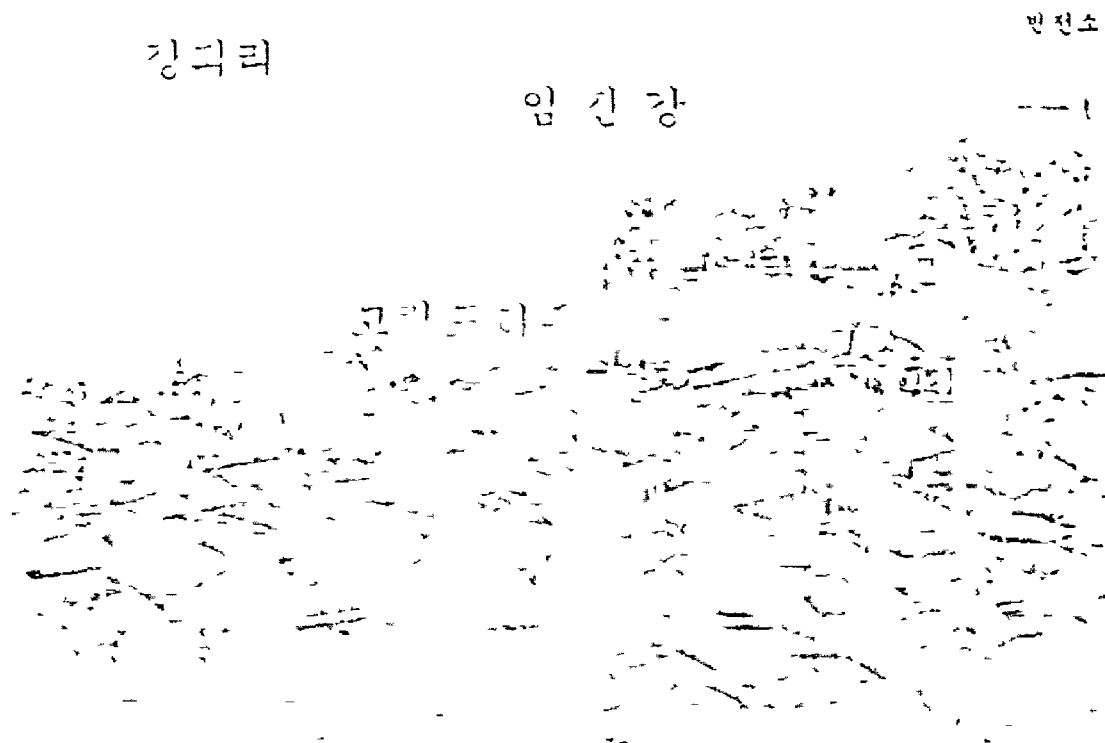
출처 질마재 리장닷컴, <http://blog.joinsmsn.com/media/folderListSlide.asp?uid=redbac&folder=1&list_id=5328093&page=1>

김화지구전투가 벌어졌던 성재산 인근에는 조선병사들의 집단 무덤인 전골총(戰骨塚)¹¹이나 유림장군대첩비 및 홍명구를 기리는 충렬사 그리고 인접해 있는 성재산성 등이 남아 있다 그러나 이 대부분이 DMZ 안에 있어서 조사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 사료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조선시대의 전쟁사 및 문화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¹¹ 병자호란 당시 김화 현령 이휘조가 성재산 전투에서 죽은 장병들을 6, 7개소에 가매장하던 것을 인조 23년(1645) 김화 현령 안응창이 성재산 기슭 한곳에 모아 크게 분묘 성토하고 그들의 넋을 위로했다 그 후 사람들은 이 무덤을 전골총(戰骨塚)이라 부르게 되었다 DMZ 안에 위치하고 있다

나 고랑포

[그림 I-33] 일제시대 고랑포



출처 우리문화 우리역사 홈페이지, <<http://cbh.com.n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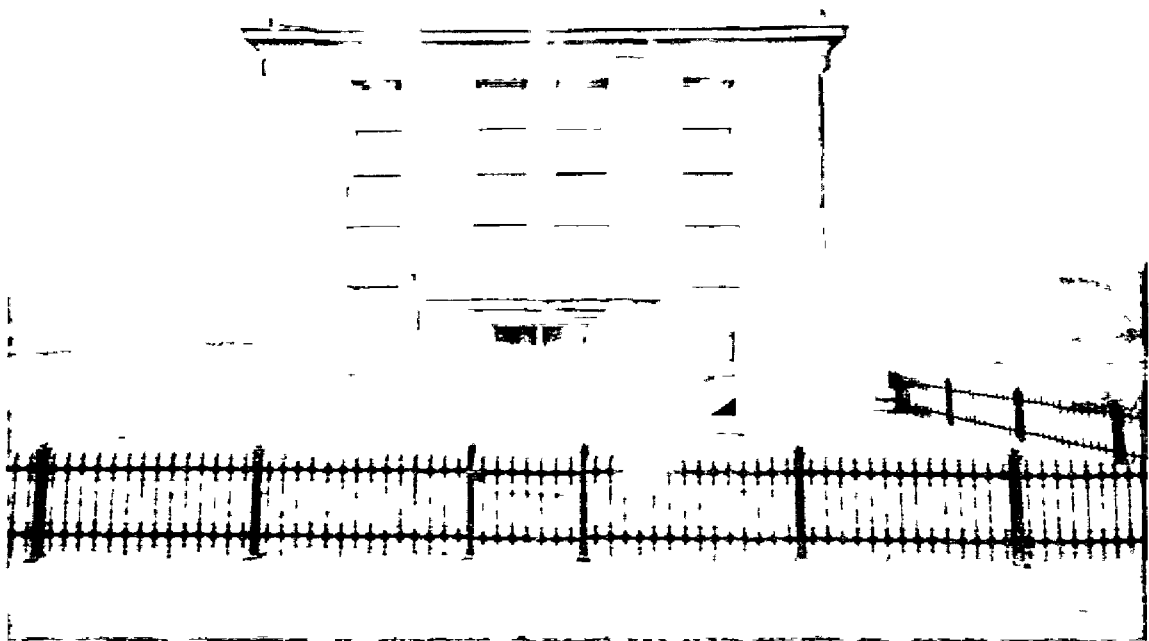
임진강 유역의 고랑포는 한국전쟁 이전까지 DMZ 일원에서 가장 번창했던 포구의 하나였다. 특히 서해안에서 조류를 타고 임진강을 거슬러 올라온 조기, 새우젓, 소금상인들이 장단의 대표적 특산물이었던 장단백태, 땔감, 곡물 등을 교역하였고, 교통이 편리한 지리적 조건으로 인하여 경기북부 지역 농 특산물의 집하장 역할을 하여 주요 상권형성의 중심지이기도 하였다. 일제시대에 이르러서도 임진강 주변의 상권이 번창하자 저잣거리와 함께 당시로는 희귀했던 3층짜리 화신백화점 지점이 들어서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 고랑포가 고구려가 남진 루트를 개척하고 신라의 북진을

저지하기 위해 천연의 요지를 사용해 만들었던 호로그루성 앞에 있는 바로 그 여울나루이다

다 철원읍

[그림 I-34] 구 철원농산물검사소



출처 대한민국 구석구석, <http://www.visitkorea.or.kr/kor/ut/what/travel_stories/content/view_1085579.jsp>

철원은 1914년 경원선이 개통되면서 김화, 평강, 이천, 회양, 연천을 아우르는 교통, 산업의 중심지로 발전했다 1931년 내금강 전기철도가 개통되어 관광 붐까지 일어 사람과 문물로 분야성을 이루었다

1930년대 철원에는 관전리에 철원극장, 철원백화점, 조선식산은행 철원지점, 제일감리교회, 사요리에 도립철원의원, 우시장, 종연방적 철원공장, 외촌리에는 철원역, 철원제2금융조합, 얼음창고, 농산물검사소,

중리에는 동주금융조합이 들어서 있었다

지금은 지뢰구역으로 변한 사요리에 위치하였던 철원보통학교는 1906년 개교 당시 2,600여 명이 재학했던 큰 학교였다 여기에 구철원 읍사무소, 구 철원경찰서까지 자리잡고 있었다

1940년대 들어서며 철원인구는 10만여 명에 달했고, 영서 제일의 경제력을 자랑할 정도로 성장하게 된다

하지만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교통과 물류의 중심지인 철원은 3년 내 전쟁의 포화에 시달리게 되고 불야성을 이루었던 번성한 도시 하나가 통째로 사라지고 지금은 그 흔적들만 남아 있게 되었다 철원은 DMZ가 간직한 비극적 역사를 가장 잘 드러내 주고 있는 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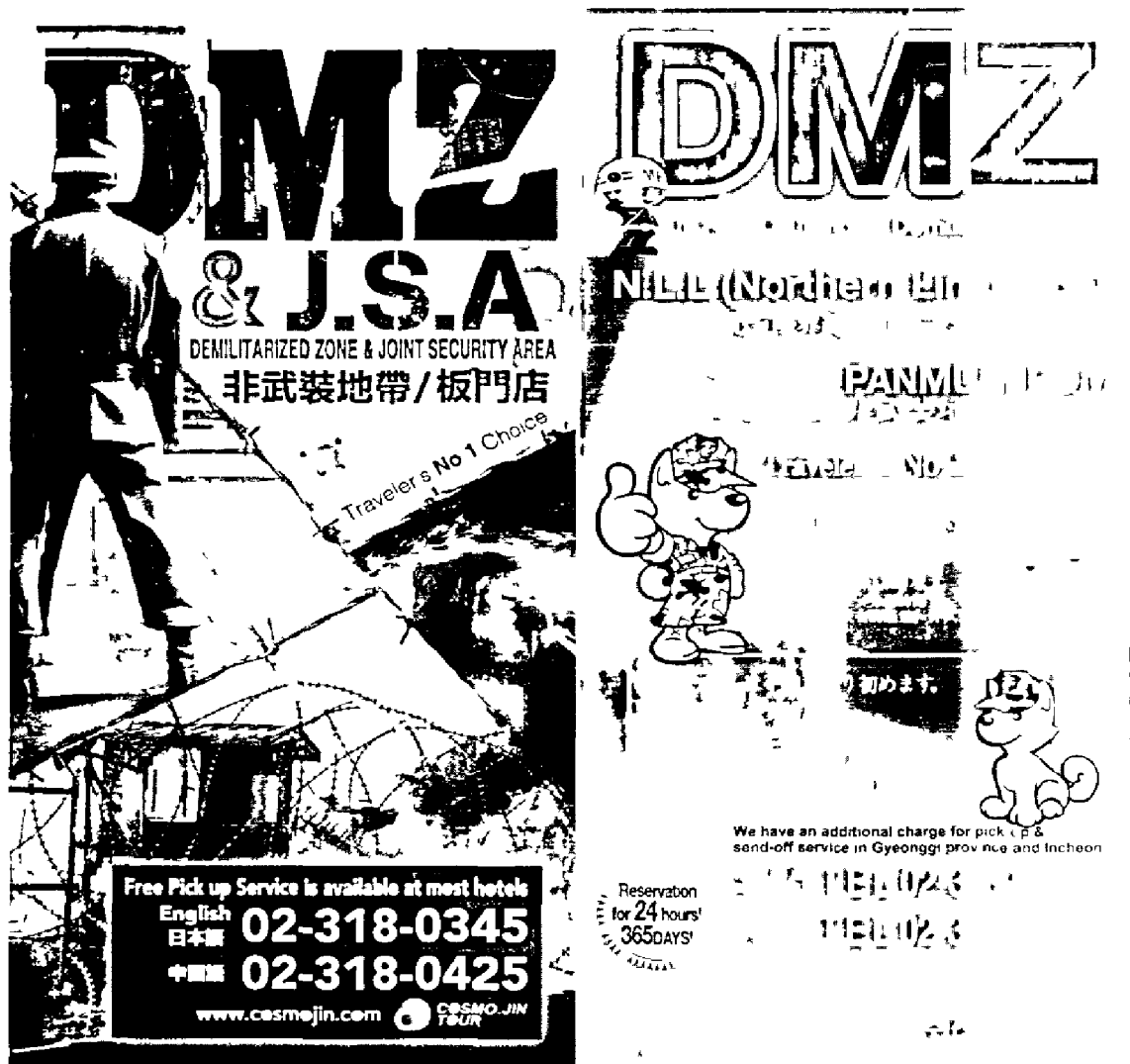
Ⅱ. DMZ의 관광

1 DMZ 관광의 의미

엄밀한 의미에서의 DMZ는 그 누구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금단의 영역이다. 여행자가 실제 평화 생태 관광을 만끽할 수 있는 곳은 DMZ가 아닌 접경지역으로 알려진 인천광역시의 옹진군과 강화군, 경기도의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강원도의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의 10개 시 군이며 이 중에서도 실제 DMZ와 접하고 있는 행정구역은 파주시, 연천군, 철원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뿐이다. 이들 지역에서는 실제 DMZ와 북한 땅을 볼 수 있는 전망대, 끊어진 철도, 전쟁 유물, 인간의 손이 닿지 않은 자연 생태계 등의 DMZ 관광자원을 만날 수 있다.

파주의 오두산 통일전망대와 같이 민간인통제구역 밖에 위치하여 이제는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관광자원도 많이 늘어났지만 대부분이 보안유지가 필요한 군사작전지역이므로 방문 전 해당 관공서에 반드시 문의할 필요가 있다. 방문승인에 소요되는 시간이나 방문에 필요한 조건이 대상지역마다 각각 다르므로 반드시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방문 당일에는 신분증을 꼭 지참하여야 한다. 옷차림에도 신경을 써야 하는데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에서는 복장규정이 있다. DMZ 관광지로 가장 유명한 판문점은 짧은 반바지, 민소매, 발가락이 보이는 슬리퍼 등을 철저히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보안상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을 금지하는 장소가 많다. 사전에 안내원이나 관계자를 통해 촬영가능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개인 차량으로 관광 시 일반지도나 내비게이션에 등록되지 않은 군사지역이 나타날 수도 있으므로 길을 잃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해당 부대나 관공서 혹은 관광을 담당하는 여행사 등과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지참할 필요가 있다.

[그림 II-1] 외국인 대상 DMZ 관광상품 브로셔



출처: 코리아DMZ협의회 자료

가. 안보적 측면

DMZ 관광의 시작은 안보관광에서 찾을 수 있다. 안보관광은 1987년 대통령 선거 공약인 통일안보관광권 개발에서 처음으로 언급되었다가 1990년 안보관광개발기본계획이 수립되면서 본격적으로 사용된 용어이다. 안보관광의 목적은 “DMZ 인접 민간인통제구역 내에 한국전쟁 이후 방치된 전적지, 격전지, 전쟁잔해 등의 관광자원을 개발하여서 전

후세대 및 외국관광객들에게 전쟁의 참혹함을 깨우치고 자라나는 세대에게 역사교육의 현장으로 활용하며, 날로 증대되는 국내외 관광객들의 수요에 대비해 기반을 확충하고 낙후된 접경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었다¹²

많은 내외국인 관광객들이 DMZ를 찾는 이유로 동서냉전의 이념대립이 지속되고 있는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로서 휴전선을 중심으로 남과 북의 군인들이 대치하고 있는 모습을 DMZ에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개발된 관광지가 경기지역에서는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관광지인 판문점을 비롯해, 서울 근교의 서부전선 제3땅굴, 도라전망대와 도라산역, 오두산 통일전망대 그리고 연천의 태풍전망대와 열쇠전망대 등이다.

강원도에는 철원지역의 중부전선 제2땅굴과 평화전망대, 승리전망대, 양구지역의 동부산악지대 편치불의 을지전망대와 제4땅굴 및 동해안 최북단 고성 통일전망대 및 병영체험 관광상품 같이 분단의 현상이나 북한의 남침흔적을 견학하는 코스도 여기에 포함된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안보관광의 개념은 지금까지와는 그 접근을 달리해야 할 필요가 대두되었다. 왜냐하면 ‘안보’라는 의미 안에는 남북한의 상호불신, 적대, 전쟁 등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¹³. 2000년대 이후 상호대립이 테마를 이루었던 남북관계에 평화와 협력의 장이 펼쳐지기 시작했다.

¹² 교통부, 「안보관광개발기본계획」 (서울: 교통부, 1992) p. 22

¹³ 일례로 2005년에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DMZ 관광 및 병영체험 관광상품개발 관련 언론보도를 접한 북한은 강한 반대를 표명하며 이러한 ‘땅굴관광’이 남북 사이의 불신을 조장한다고 경고한 바가 있다.

나 생태·평화적 측면

2000년 6 15공동선언 이후 남북은 이산가족방문단 교환, 남북장관급회담, 남북경제협력추진, 남북정상회담 등을 지속적으로 성사시키면서 평화를 위한 많은 진전을 이루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일방적인 대립에서 상호간에 평화와 번영을 이루기 위한 노력이 다방면에서 많이 이루어져 왔다 DMZ 관광도 이러한 물결을 타고 새로운 개념을 요구하게 되었다

기존에 이루어지던 DMZ 일원의 안보관광은 집단 구성원들의 안보의식을 강화시키는 수단으로 수학여행 혹은 단체전학으로 대표되는 통제되고 집단적이며 일방향적인 여행상품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DMZ가 한반도에 남겨진 유일한 ‘자연의 보고’인 점과 양측의 군사력이 미치지 못하는 ‘평화적 의미’가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DMZ 관광은 이 두 가지 테마, 즉 ‘생태’와 ‘평화’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또한 그동안 냉전의 논리 속에서 DMZ와 민간인통제선 북방에서 잠들어 있던 엄청나게 많은 한반도의 문화유산 및 역사유물들도 새롭게 조명을 받게 되었다

물론 안보관광의 개념이 지배하던 시대의 관광자원들도 그 빛을 잃은 것이 아니라 ‘생태’와 ‘평화’의 차원에서 새롭게 조명받기 시작했다 평화와 전쟁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같은 전쟁유물을 통해서도 ‘전쟁의 참상’과 ‘평화의 중요성’을 동시에 느낄 수 있다 또한 DMZ가 군사지역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그 특수성 자체로도 매력을 지니고 있다

이를 종합해 볼 때 DMZ 관광이란 DMZ 형성과 관련된 ‘평화 안보’ 개념과 함께, DMZ라는 특수한 환경이 빚어내고 보존해온 ‘생태’, ‘문화’, ‘역사’의 영역을 포괄하는 유 무형의 관광자원을 경험하여 즐거움을 충족시키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정의를 바탕으로 여기에서는 DMZ 관광을 물리적 공간으

로서 DMZ 혹은 민간인통제선 내부의 관광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닌, DMZ로 인하여 발생한 특수한 환경을 소재로 한 다양한 영역의 관광자원을 개괄하고자 한다. 분류 및 이해의 편리를 위하여 DMZ를 접하고 있는 행정구역별로 소개하고자 한다.

2 지역별 DMZ 관광자원

DMZ 일원에는 60여 년간 잘 보존된 생태환경과 함께 한국전쟁이나 휴전상태로 인해 생긴 수많은 문화유적, 유물들이 존재한다. 또한 역사의 중심지였던 만큼 역사적 가치를 가진 다양한 관광문화자원들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 장에서는 DMZ를 접하고 있는 행정구역들의 다양한 관광문화 자원들 중에서 특별히 DMZ와 관련이 있는 관광시설 및 자원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화천군은 직접 DMZ와 접하지는 않지만 DMZ 관련 주요 관광자원이 많은 이유로 이 장에 포함하였다.

가 고성군

[그림 II-2] 고성에서 바라본 해금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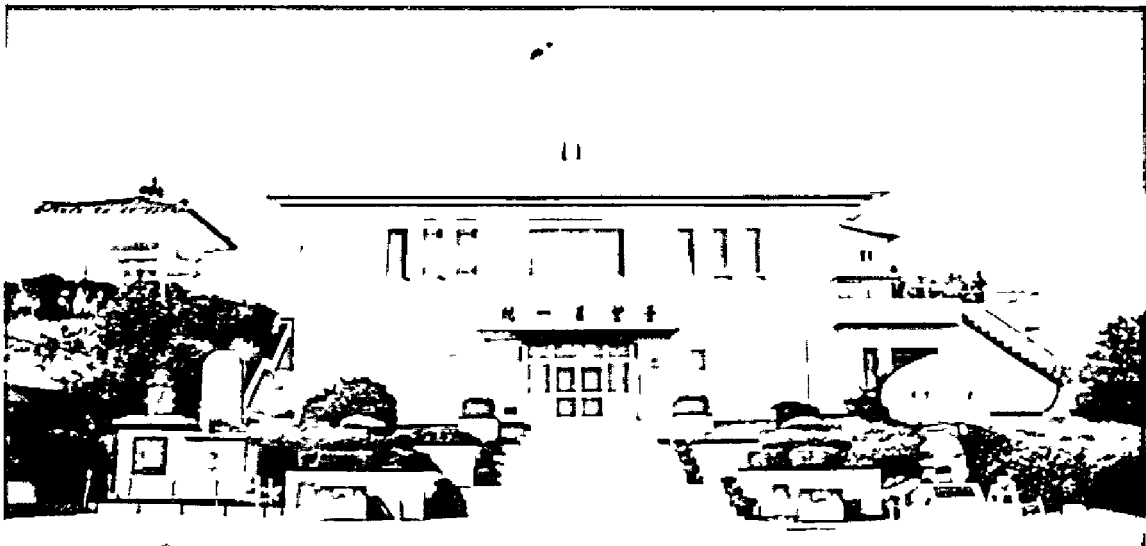


출처 통일전망대, <<http://www.tongiltour.co.kr/>>

248km에 이르는 DMZ 동쪽 끝에 위치한 고성은 분단으로 인해 남과 북이 갈라진 대표적 행정구역이다 한반도에서 가장 아름다운 금강산과 설악산의 중간거점지역으로 산, 바다, 호수, 계곡 등 수려한 자연풍광을 자랑하며 통일전망대등의 다양한 DMZ 경관자원을 가지고 있는 곳이다 금강산으로 이어지는 국도와 철로가 이미 연결되어 있으며 남북교류가 활성화되면 이곳을 통해 금강산관광이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1) 고성 통일전망대

[그림 Ⅱ-3] 고성 통일전망대



출처 통일전망대, <<http://www.tongiltour.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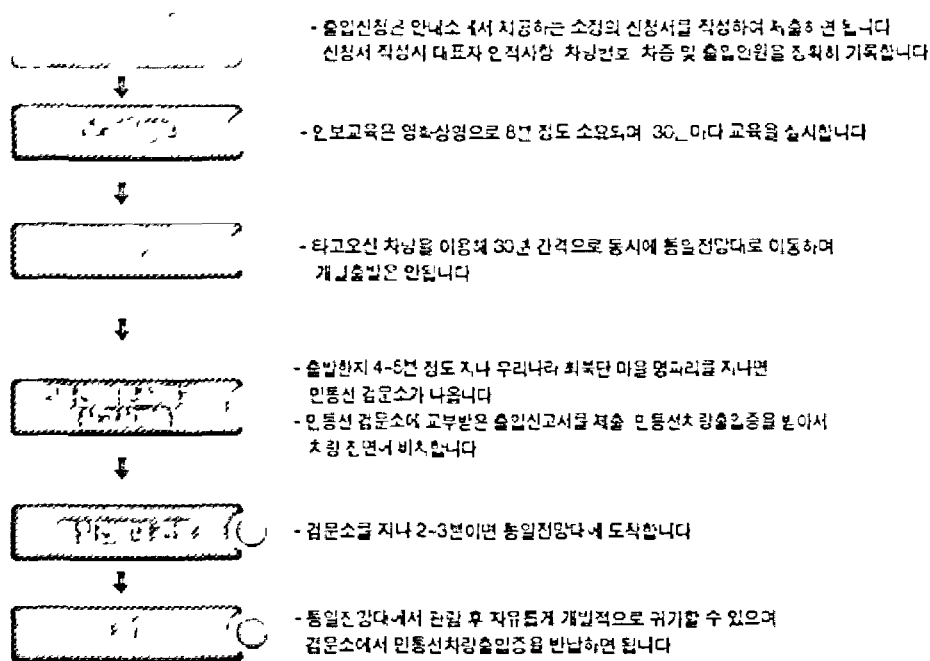
금강산과 해금강이 보이는 남한 최북단의 전망대이다 분단의 설움과 망향의 아픔을 달래고 통일의 의지를 다지기 위해, 북녘 땅을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들 중에서는 가장 빠른 1983년에 세워졌다 연간 1백만 여 명의 국내외 관람객들이 방문하는데 해마다 많은 실향민들이 찾아와 눈앞에 둔 고향을 찾아가지 못하는 아픔을 달래는 곳이기도 하다

금강산의 마지막 봉우리인 구선봉과 바다위의 금강이라고 해금강, 나무꾼과 선녀의 전설이 깃든 감호, 하얀 포말에 휘감긴 송도 등 푸른 동해의 절경과 백사장을 한 폭의 수채화를 바라보듯이 감상할 수 있는 곳이다 금강산육로관광의 출발지이기도 했다

통일전망대는 민통선 안에 있으므로 들어가려면 먼저 통일안보공원에 들러 출입신청을 하고 사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안보교육은 7분짜리 동영상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후 타고 온 차량을 이용하여 통일전망대로 이동하는데 도보로 이동할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한다

[그림 II-4] 고성 통일전망대 입장절차 및 규칙

입장절차 및 규칙



출처 통일전망대, <<http://www.tongiltour.co.kr/>>

통일전망대에는 통일을 염원하는 통일전망대교회, 성모마리아상, 미륵불상, 전진철탑 등 종교적인 시설과 장갑차, 탱크, 비행기 등 안보교

육 전시물이 나란히 자리잡고 있는 이색적인 광경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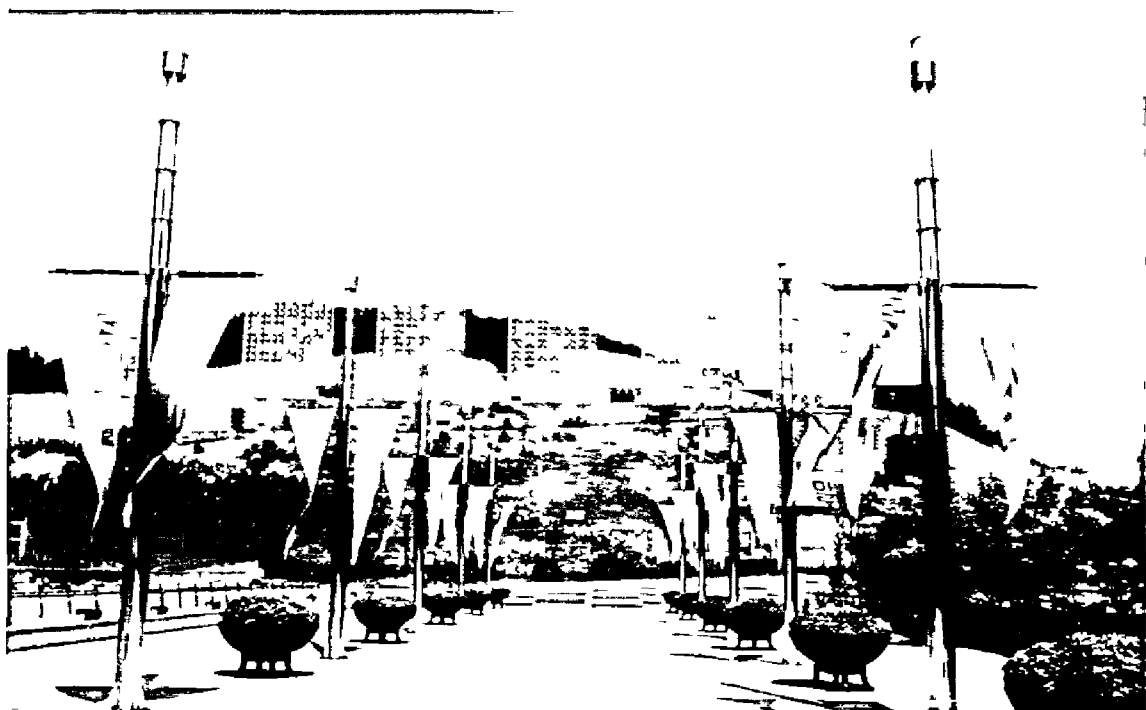
주 소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마차진리 188

전화번호 033-682-0088

홈페이지 <http://www.tongiltour.co.kr/>

(2) DMZ박물관

[그림 II-5] 고성 DMZ박물관



출처 코리아DMZ협의회 자체자료

DMZ박물관은 DMZ를 테마로 한 세계 최초의 박물관으로 2009년 8월 국비와 도비 등 500억 원을 투입해 새로 세운 건물이다 10여 년간의 노력 끝에 세워지게 되었는데 박물관 안에서는 한국전쟁 당시의 모습과 냉전의 흔적, 60여 년간 원형 그대로 보존된 DMZ의 생태환경이 마치 한 권의 도감처럼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다 2005년 남북장성

금 회담결과에 따라 군사분계선 안에서 상호 선전 비방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는데, 이에 따라 경기도와 강원도에서 최전방에서 철거한 후 이곳에 전시한 대북 심리전 방송장비 등이 눈길을 끈다 이 박물관도 민통선 안에 위치하고 있어서 통일전망대를 통해서만 들어올 수 있으며 입장료는 별도이다

주 소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마차진리 188

전화번호 033-681-0625

홈페이지 [http //www dmzmuseum com](http://www.dmzmuseum.com)

(3) 금강산육로관광

[그림 II-6] 금강산관광안내지도



출처 현대아산, <[http //www mtkumgang com/](http://www.mtkumgang.com/)>

금강산육로관광의 출발지가 고성의 통일전망대이다

1998년 11월 18일 시작된 금강산관광은 남북한 분단 50년사에 새로운 획을 그은 사건이다. 현대그룹의 오랜 노력과 햇볕정책이 맞물려 그 결실을 맺었는데, 1989년 1월 현대그룹의 정주영 명예회장이 방북하여 금강산 남북공동개발 의정서를 체결한 후 6월 23일 금강산관광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발표하였고, 8월 6일 통일부는 현대상선, 현대건설, 금강개발의 협력사업자를 승인하였다.

금강산관광지역 내 숙박시설이 없었던 처음에는 유람선을 타고 금강산 앞바다에 위치한 장전항까지 가서 낮에는 소형선박으로 육지로 이동하여 관광하고, 밤에는 유람선으로 돌아와 숙박하면서 4박 5일간 진행되었다.

1999년 2월 28일에는 금강산 온정리휴게소 및 금강산 문화회관 준공식을 갖는 등 순조롭게 진행되던 금강산관광은 관광 시작 7개월 만인 6월 20일 관광객 민영미가 북한 환경감시원에게 귀순 공작을 했다고 억류되면서 잠정적으로 중단되었다가 현대와 북한이 베이징에서 관광세칙과 신변안전보장 합의를 체결한 후 다시 진행되었다.

2000년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주석이 만난 남북정상회담 이후로 남북관계에 획기적인 조치들이 많이 취해졌는데, 첫 번째 조치가 바로 남북 철도 도로 연결사업이다.

2000년 7월 31일 발표된 제1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5항에서 “남과 북은 경의선 철도의 끊어진 구간을 연결하며, 이를 위한 문제는 빠른 시일 내에 협의하기로 한다”는 조항이 있었다. 같은 해 9월 1일 제2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에서는 경의선 철도와 도로의 연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9월 안에 실무접촉을하기로 하였다.¹⁴

이러한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군사회담이 9월 25일과 9월 26일 양일간

제주도에서 열린 제1차 남북국방장관회담이다 이 회담에서는 남북 철도 도로연결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군사실무회담 가동에 합의하였다 11월 28일 제1차 군사실무회담에서 철도와 도로연결문제를 중점적으로 협의한 결과 2002년 9월 27일에 「동해지구와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설정과 남과 북을 연결하는 철도 도로 작업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서」를 체결하였고, 남북을 잇는 동해선 7번국도가 북한의 금강산과 연결되었다

이후 육로관광은 매우 빠르게 진행되었으며 2003년 2월 14~16일에 2차에 걸쳐 500명의 인원이 금강산을 방문한 시범관광을 시작으로, 2003년 9월부터 육로관광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¹⁵

[그림 II-7] 금강산육로시범관광단 금강산도착 환영행사



출처 길벗의 홈페이지, <<http://gilbut2.egloos.com/7639543>>

¹⁴- 이 회담에서는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이와 관련하여 쌍방 군사당국자들의 회담을 가진다는 데 합의했다 이와 함께 임진강 수해방지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한다는 데도 합의하였다 임진강 수해방지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DMZ 내에서 군사당국자 간의 협조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¹⁵- 해로관광은 2004년 1월부터 중단되었다

[그림 II-8] DMZ에서 8번 통문을 통해 남측CIQ로 이동하는 관광버스



출처 길벗의 홈페이지, <<http://gilbut2egloos.com/7639543>>

2004년 7월 금강산 당일관광과 1박 2일 관광을 시작하였고, 2005년 6월 금강산 관광객 100만 명을 돌파하였다 2007년 5월 내금강관광을 시작하였으며 2008년 3월 승용차관광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2008년 7월 11일 관광객 박왕자가 북한군의 피격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금강산관광이 잠정 중단되었다

[그림 II-9] 금강산육로관광 안내페이지

통일전망대

주요관광지

금강산육로관광

상품종류

당일 1박 2일 2박 3일

요금표

상 품	요 금 표
당 일 관 광	12만원 ~ 17만원
1박 2일 관광	18만원 ~ 37만원
2박 3일 관광	26만원 ~ 57만원

* 출입시기 숙소에 따라 변동

준비서류

주민등록증만 소지하시면 현지 신청 가능

* 최소한 20일 전에 사전예약 필수

예약문의

통일전망대 금강산 여행사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마차진리 188번지

연락처 (033)681-8273 6244

출처 통일전망대, <<http://www.tongiltour.co.kr/>>

나. 인제군

[그림 II-10] 내설악에서 바라본 인제군 산지



출처 인제군, <<http://www.inje.go.kr>>

인제는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넓은 군이다 설악산을 중심으로 산과 물, 봉우리와 골짜기가 조화롭게 형성되어 있어 산지 안에서 자란 다양한 희귀한 동식물들이 많다 특히 풀이 5,000년 동안 썩지 않고 퇴적되어 이탄층을 이룬 고층습원 용늪은 세계가 인정한 자연사박물관이다

또한 금강초롱, 칠성장어, 산천어, 금강모치, 버들치, 가는돌고기, 수달, 사향노루, 산양, 하늘다람쥐 등 희귀한 동식물종들을 가장 많이 발견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이러한 특징을 바탕으로 생태와 환경을 주제로 한 DMZ 관광자원이 많이 분포하고 있다

(1) 한국DMZ평화생명동산

[그림 II-11] 한국DMZ평화생명동산



출처 말할 수 없는 비밀의 홈페이지, <<http://uvegotmail.tistory.com/62>>

한국DMZ평화생명동산은 DMZ와 접경지역의 생태환경을 잘 보전하고 복원하자는 뜻에서 최전방 마을 서화리에 지은 친환경 교육동산이다. 1958년에 민간인이 처음 살기 시작하였고 1979년에 민간통제구역에서 제외된 서화리는 한국전쟁 당시 서화지구전투를 치른 곳으로 많은 군인들이 죽었던 지역이다. 또한 금강산 봉우리 중 하나인 향로봉과 가칠봉, 대암산이 가까이 있어 남북 생태계가 합류하는 지점으로도 알려져 있다.

특히 이 시설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건축가 승효상이 설계하여 더욱 유명해졌다. 크게 교육마을, 지뢰생태공원, 생명연구동산으로 나뉘는데 생태환경 보존이라는 원래의 취지에 맞게 소재나 전기도 친환경적인 것들만을 사용했다고 한다. 단아한 서화리 마을 풍경과 어우러진 야트막한 지붕은 전체가 잔디밭으로 이루어져 있다.

100명이 함께 숙식하며 통일 DMZ 일원의 생태 탐방 노동 건강 명상 등 평화와 생명을 주제로 한 다양한 커리큘럼을 체험할 수 있다

주 소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서화리 831-1

전화번호 033-463-5155~7

홈페이지 www.dmzecopeace.com

(2) 대암산용늪자연생태학교

[그림 II-12] 대암산용늪자연생태학교



출처 “인제 대암산용늪자연생태학교 27일 개장,” 『참뉴스』, 2009년 10월 28일,
<<http://www.cham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29405>>

2010년 하반기부터 용늪의 제한적 개방이 논의되고 있지만, 군사시설과 학술연구로 인해 용늪이 늪의 기능을 잃어버리고 파괴가 가속화되어 일반인의 출입이 현재까지 제한되고 있다

용늪에 대한 궁금증을 채워줄 수 있는 장소가 용늪을 축소해놓은 대
암산용늪자연생태학교이다 학생 수가 줄어 폐교된 서흥초등학교를 개
수하여 만들었다 이곳에서는 용늪을 구성하고 있는 이탄층의 구성요
소, 용늪에 사는 다양한 동식물, 큰용늪과 작은 용늪은 고스란히 본떠
만든 미니어처 등을 구경할 수 있다 풀밭이 된 운동장에는 서흥리 주민
들이 키우는 염소가죽이 살고 있다 학생들이 단체로 묵을 수 있는 숙박
시설도 마련되어 있다

주 소 인제군서화면 서흥리 275-1

전화번호 033-462-7752, 인제군청 환경보호과 033-460-2061

홈페이지 <http://cafe.daum.net/yongneup>

(3) 인제DMZ평화생명문화제

[그림 II-13] 2010년 인제서화DMZ평화생명문화제 개최식



출처 아름다운 강산의 홈페이지, <<http://blog.daum.net/rha188/161507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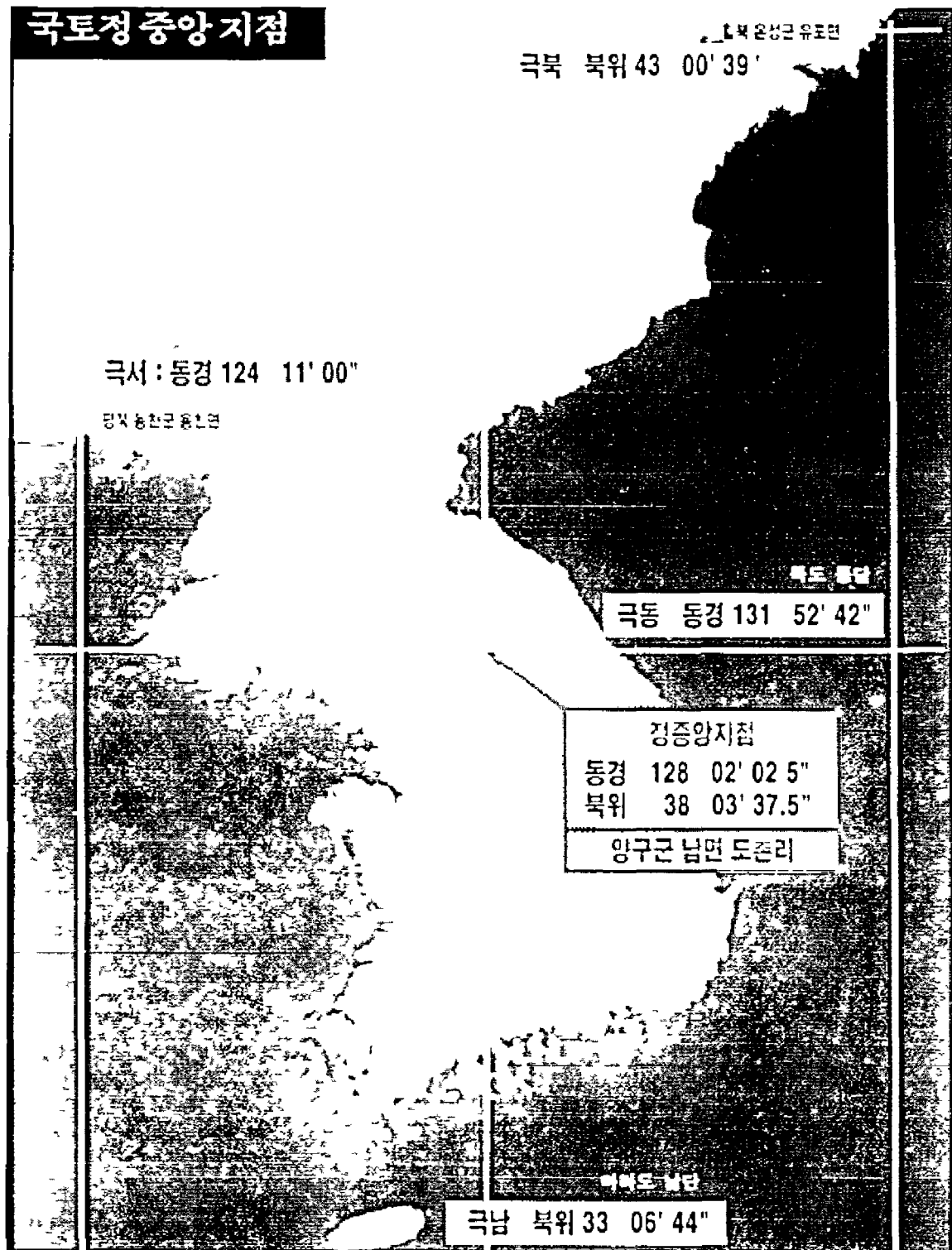
기존의 ‘군인추억페스티벌’이 2010년부터 DMZ의 생태 평화 이미지를 접목해 ‘평화생명축제’로 이름이 바뀌었다가, 2011년부터 ‘인제DMZ 평화생명문화제’라는 이름으로 명칭을 다시 바꾸어 개최되고 있다 매년 10월 인제군 서화리 천도군 일대 등에서 개최된다

마라톤대회를 비롯해, 백일장, 사진전시회, DMZ 탐방, 장병 장기자랑 등 지역 군부대와 주민이 함께 어울리는 행사가 펼쳐진다 이 문화제는 DMZ에 접해 사는 주민들의 평화 염원과 함께 침체한 접경지역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도 가지고 있다

DMZ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DMZ 일원의 민 관 군이 협력방법의 전형적인 예를 보여주는 축제라고 할 수 있겠다 마라톤대회의 인기가 매우 높다

다 양구군

[그림 II-14] 양구의 위치



출처 양구군청, <<http://www.yanggu.gangwon.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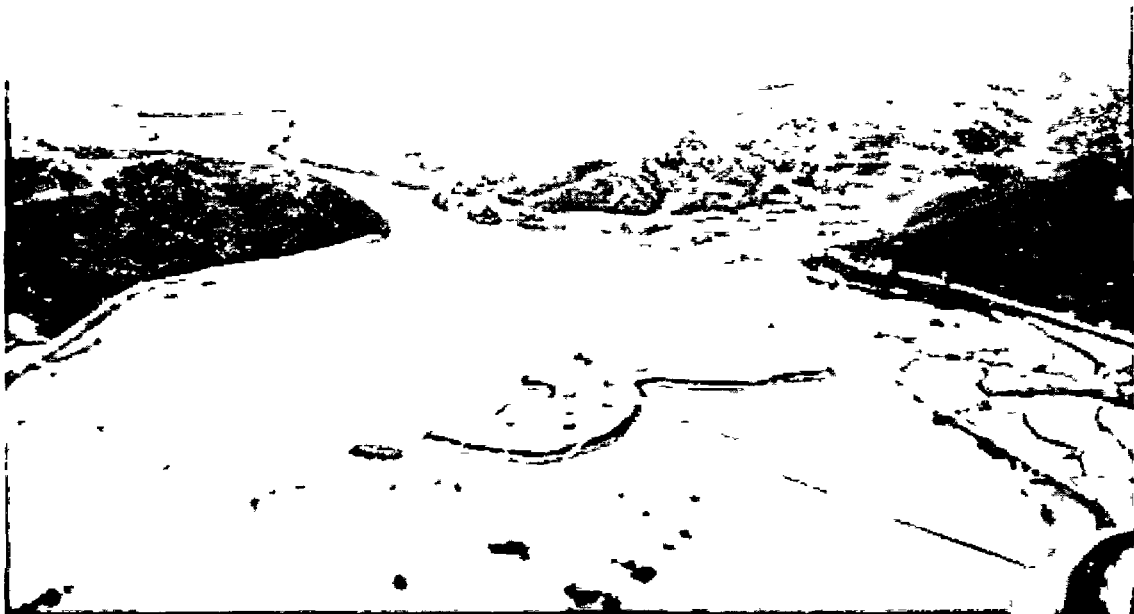
양구는 한반도의 정중앙이다 한반도의 영토의 끝을 한반도에 속한 부속도서로 쳐서 동쪽의 독도, 서쪽의 마안도, 남쪽의 마라도, 북쪽의 유포진을 직선으로 연결해 사각형을 그리고 그 중앙위선의 교차점(무계중심점)을 찾으면 양구군 남면 도촌리 산 48번지 일대가 대한민국의 땅의 한가운데가 된다 좌표는 동경 128도, 북위 38도이다

양구의 북쪽은 1,000m가 넘는 산들로 둘러싸여 한국전쟁 당시 치열했던 전투가 많이 벌어졌던 곳이다 따라서 양구에는 어느 곳보다 치열했던 전쟁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으며 1,000 높이의 고산지형을 이용한 DMZ와 북한 전망을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제 사람들은 한반도의 정중앙이라는 지리학적 위치를 통해 양구에서 평화와 생명의 의미를 담아내고자 하고 있다 양구 주민들은 대한민국 국토 정중앙에 있는 도촌리를 국토 정중앙 배꼽마을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여기에 의미를 부여하여 관광상품화를 추진하고 있다 도촌리 인근에는 한반도의 정중앙 밤하늘을 관찰할 수 있는 국토정중앙 천문대(홈페이지 <http://www.ckobs.kr>)가 있다 또 한 해의 정중앙인 8월에는 배꼽이 상징하는 생명 자연 상생을 주제로 매년 배꼽축제를 연다

21 - 10

국토정중앙
양구 배곡읍 축제



(1) 양구통일관

[그림 II-16] 양구통일관 및 전쟁기념관



출처 양구문화관광공사, <<http://www.ygtour.kr>>

치열했던 전투가 많이 벌어졌던 양구에서 안보견학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다 이곳은 1996년에 문을 열어 양구군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다 편치불전적비공원과 양구전쟁기념관을 좌우에 거느리고 있으며 제4땅

굴, 을지전망대 등이 멀지 않아서 이들을 한데 묶은 안보견학 패키지의 출발점이 되고 있다 제4땅굴과, 을지전망대를 견학하기 위해서는 이곳을 반드시 들러서 신청을 해야하기 때문에 양구의 DMZ 관광객들은 필수적으로 들러야 하는 코스이다 통일관 안에는 북한의 실상을 알 수 있는 두 개의 전시실과 농특산물 판매장이 마련되어 있다 개별방문이 불가하며, 양구전쟁기념관, 제4땅굴, 을지전망대의 패키지코스는 당일 16시까지만 신청을 받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양구전쟁기념관에서는 양구지역에서 벌어진 아홉 곳의 치열한 전투(도솔산, 피의 능선, 편치볼, 백석산, 가칠봉, 대우산, 크리스마스고지, 949고지, 단장의 능선 전투)를 기리기 위하여 조성되었고 당시의 무기와 전쟁유품, 전투 참가자들의 육성증언 등이 보관되어있다

주 소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후리 622

전 화 양구통일관 033-481-9021

(2) 을지전망대·편치볼

[그림 II-17] 을지전망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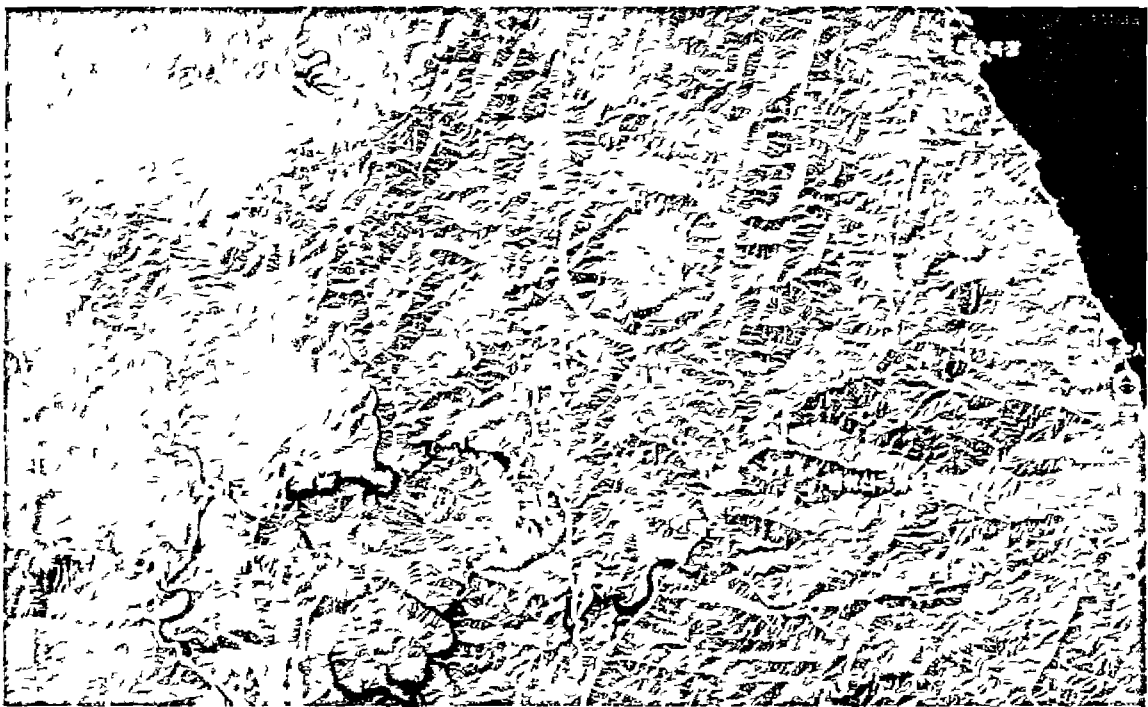


출처 국가정보원, <http://www.nis.go.kr/svc/community.do?method=content&cmid=11834&visit_flg=7>

가칠봉 능선의 해발 1,409m 고지에 있다 바로 발 아래서 편치볼이 선명하게 펼쳐지고 날씨가 좋으면 금강산 비로봉을 포함한 다섯 개의 봉우리를 모두 볼 수 있다 1998년까지는 군부대의 허가 없이는 입장할 수 없었으나 현재는 당일 양구통일관에서 출입신청만 하면 누구나 전망대에 오를 수 있다

편치볼(punch bowl)은 양구 해안면에 있는 분지를 가리키는 것으로 한국전쟁 중 붙은 이름이다 ‘피의 능선 전투’에서 고전하던 아군이 이 분지를 공격해 격전 끝에 적을 후퇴시켰는데 당시 미 중군기자가 편치를 담은 그릇을 닮았다고 이야기한 데서 유래되었다 주위가 모두 해발 1,000m가 넘는 고지들로 피의능선전투전적비, 가칠봉전투전적비 등 당시 조국을 위해 숨진 젊은 학도들을 기념하는 전적비가 있다 면적이 여의도의 6배가 넘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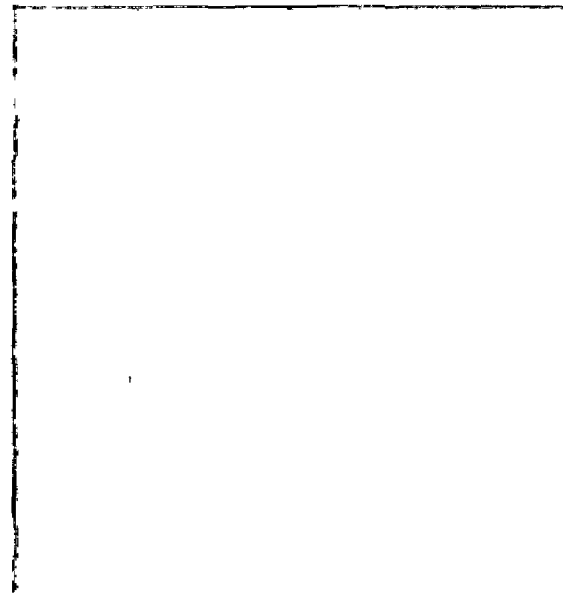
[그림 II-18] 편치볼 위치



출처 네이버지도, <<http://map.naver.com>>

(3) 제4땅굴

[그림 II-19] 군견 헌트



땅굴수색 軍大 제4땅굴 수색정찰용
대원이 독립문당지용 군견과 함께 3일오후
역경도에 들어가고있다. 齊部전선圖 >

출처 『동아일보』, 1990년 3월 4일

제3땅굴이 발견된 지 12년 만인 1990년 3월에 발견되어 당시 사회적 충격이 컸다 강원도 산악지역에서는 남침용 땅굴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양구군 동북쪽 26km 지점의 비무장지대 안에서 남침용 땅굴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우리 군은 역경도를 파서 북한이 만들어 놓은 땅굴과 연결시켰다 땅굴 앞에는 수색 당시 북한군이 설치해놓은 지뢰에 목숨을 잃은 군견 ‘헌트’를 기념하기 위한 충견비가 있다 헌트는 지뢰를 탐색하고 위치를 알려주기 위해서 뛰어가다가

북한군이 설치한 수중목함지뢰를 밟고 산화하였다 이로 인해 수색하던 분대원들의 생명을 구하였고, 군견 최초로 ‘소위’라는 장교 계급으로 추서되었다 헌트의 동상은 땅굴 입구의 정면이 아니라 북쪽을 바라보도록 제작되었는데 죽어서도 북쪽을 경계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한다

관광객들은 제4땅굴에서는 휴전선 앞 100m 지점까지 관람이 가능한데, 투명 유리덮개가 씌워진 특수하게 제작된 20인승 전동차를 타고 내부를 관람할 수 있다

[그림 II-20] 제4땅굴과 관람차



출처 국가정보원, <http://www.nis.go.kr/svc/community.do?method=content&cmd=11822&visit_flg=7>

(4) 두타연

두타연은 민통선 북쪽의 양구의 원시자연을 품은 연못이다 한반도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과 신라시대 화랑들의 수련장소로도 유명하다 10m의 높이에서 떨어지는 폭포로 인해 물이 모여서 연못이 형성되었다 민

통선 안에 있어 10여 년간 민간인의 출입이 통제되었다가 2004년에 개방되었다. 오랫동안 사람들의 손길이 닿지 않아 원시자연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으며 천연기념물인 산양과 하늘다람쥐, 쇠딱다구리, 열목어 등 희귀 동식물들이 주변에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림 II-21] 가을의 두타면



출처: 코리아DMZ협의회 자료

출입신청은 양구군 홈페이지(<http://www.yanggu.go.kr>) 중앙 하단의 “두타면 관광 출입신청” 배너를 클릭하여 인터넷접수를 하여야 한다. 군부대의 승인이 필요하므로 평일은 1일 전 오후 12시까지, 주말 또는 공휴일은 시작일 1일 전 오전 12시까지 신청하여야만 관광할 수 있다. 출입인원은 제한이 없으나 매주 월요일은 휴무일로 출입이 불가능하다. 1일 2회 10시와 14시에 양구군청 내 양구명품관 관광안내소(양구군 양구읍 하리 34-5)에서 자기 차량으로 문화관광해설사 안내를 받

아 출발한다 입장료가 있으며, 출발 20분 전까지 서약서를 작성 및 서명하여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특히 두타연 전 지역은 지뢰지역이기 때문에 정해진 구역 외에는 절대 출입하지 않아야 한다

주 소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상리 313
홈페이지 <http://www.yanggu.go.kr>
전화번호 양구군청 경제관광과 033-480-2251

(5) 양구 곰취

양구는 민통선으로 인해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아 청정한 산과 거기서 나오는 산나물 특히 곰취로 유명하다 곰취의 지역이니 만큼 산나물 정식, 찜밥도 아주 유명하다 이런 특성을 살려 매년 곰취축제도 개최하고 있을 정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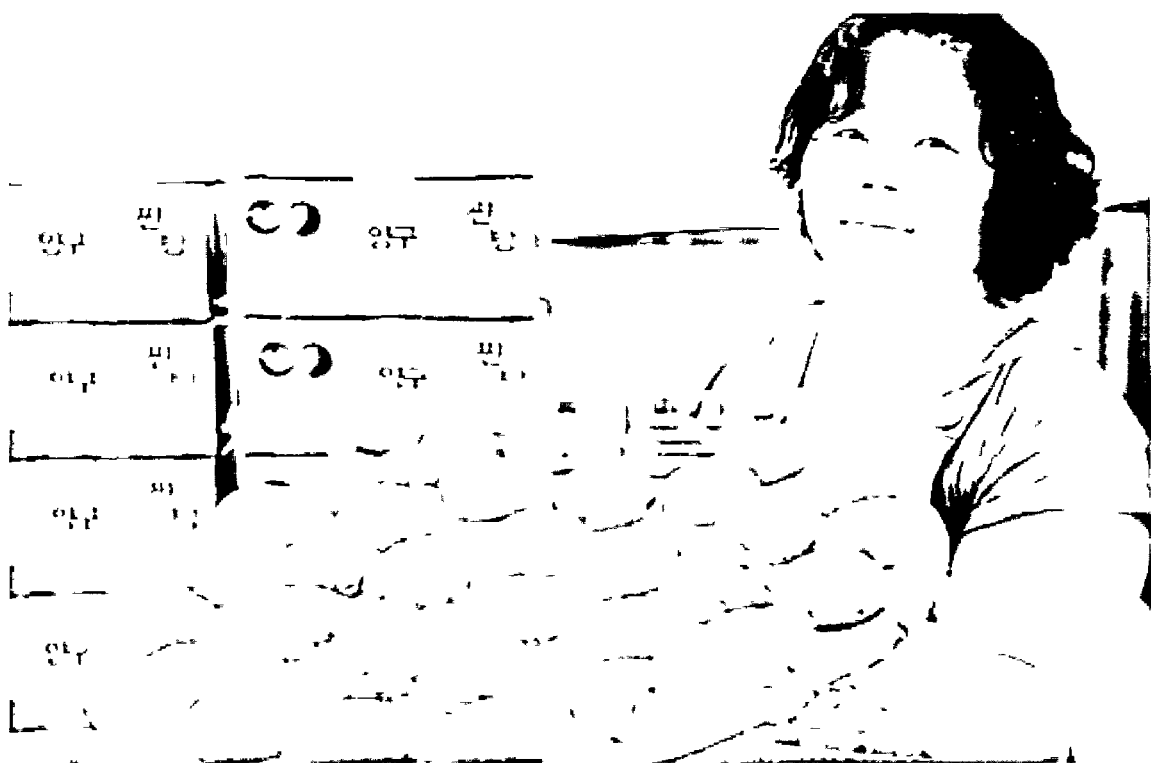
[그림 II-22] 2011년 양구 곰취축제 개막식



출처 “양구 곰취축제 개막,” 뉴시스, 2011년 5월 14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3854343>>

양구예담영농조합법인(033-481-8989)은 양구에 곰취가 지천인 것에 착안하여 곰취찜빵을 만들었다. 곰취를 믹서기로 갈아 밀가루와 반죽해서 찌는데 곰취의 향긋한 향이 풍겨 지역의 별미로 인기가 매우 높다. 청정자연의 보고인 DMZ 인근 지역이 아니라면 맛볼 수 없는 찜빵이다.

[그림 II-23] 곰취찜빵



곰취를 갈아 만든 곰취찜빵

출처 “[여행메모-양구] 6월 18~20일 ‘도솔산 전적 문화제’ 볼거리 풍성,” 『쿠키뉴스』, 2010년 6월 9일,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1&arcid=0003795857&cp=du>>

라 화천군

[그림 II-24] 평화의 댐



출처 화천군청, <<http://www.ihc.go.kr>>

화천은 물과 산이 많기로 유명한 지역이며 한국전쟁 중 최대의 격전지였던 파로호를 비롯하여 많은 전적지가 존재한다 화천의 이러한 지역적 특성 때문에 물과 관련된 DMZ 관광자원들이 많이 존재한다 또한 물과 산이 어우러진 절경을 바탕으로 트레킹코스 등의 개발이 추진되고 있으며 다양한 행사가 개최되고 있다

[그림 II-25] 평화의 댐에서 개최된 2011 DMZ 미래길 걷기대회



출처 vietvetkorea의 홈페이지, <<http://blog.naver.com/vietvetkorea?Redirect=Log&logNo=50098498461>>

(1) 평화의 댐, 세계평화의 종 공원

[그림 II-26] 평화의 댐과 세계평화의 종 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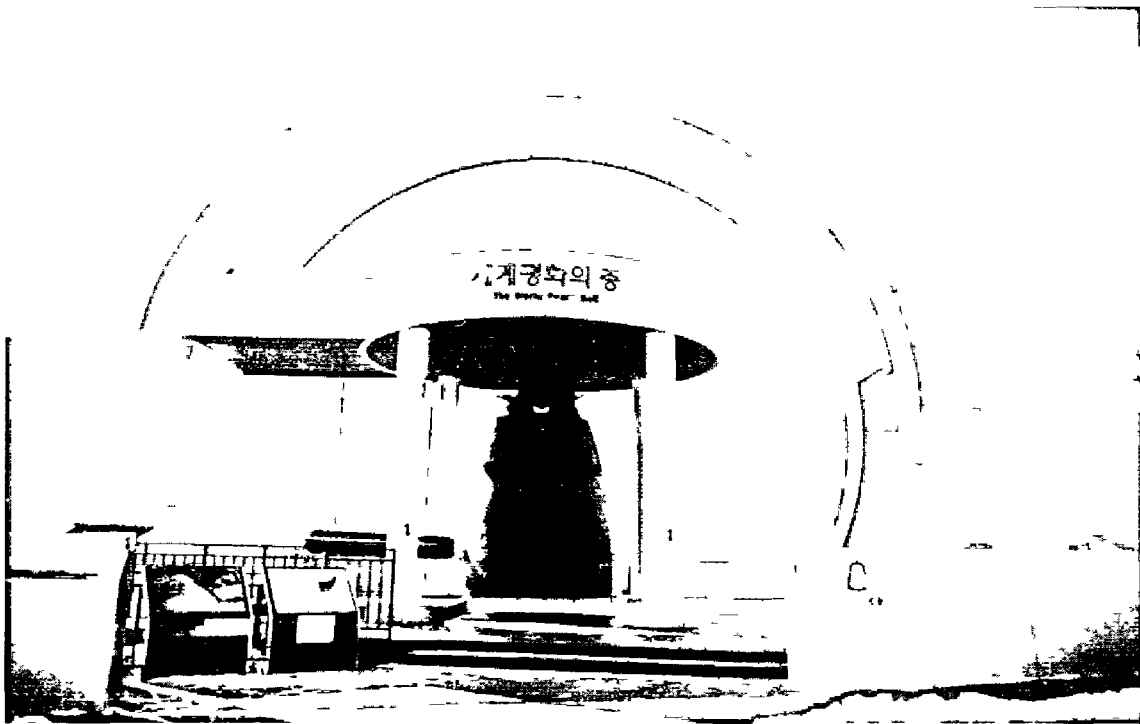
출처 vietvetkorea의 홈페이지, <<http://blog.naver.com/vietvetkorea?Redirect=Log&logNo=50098498461>>

평화의 댐이 위치한 곳은 화천군과 양구군의 경계 지역으로 현재 행정지명으로는 동촌리, 옛 이름으로 ‘비수구미’라고 한다 파로호를 지나서 산굽이를 돌아 해산터널을 지나면 높이 125m의 거대한 평화의 댐이 그 모습을 드러낸다 울창한 산림에 둘러싸여 경치가 매우 수려한데, 거대한 뚝의 규모에 비해서 평소 저수량이 많은 편은 아니다 이는 평화의 댐이 북한강 상류에 북한이 쌓아올린 금강산댐(임남댐)의 뚝이 터지면 쏟아지는 물을 막기 위해 방어용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착공 당시의 계획은 80m 높이였으나 북한의 금강산댐보다 높게 건설하기 위해 설계를 변경해 처음 계획보다 45m 높은 125m 높이, 저수용량 263억 톤으로 완공되었다

분단의 상징으로 출발하였지만 지금은 물의 고장 화천군을 대표하는 안보 생태 관광지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더욱이 평화의 댐 상류에는 민간인의 출입이 통제되는데, 댐의 건설로 인해 습지가 만들어져 생태계의 보고로 거듭나고 있다 청정 습지인 이곳에서 수달, 삥, 담비 등 보호가치가 높은 야생동물이 많이 서식하고 있다 야생수달의 보호와 복원을 위한 연구와 방사 등의 활동도 평화의 댐 주변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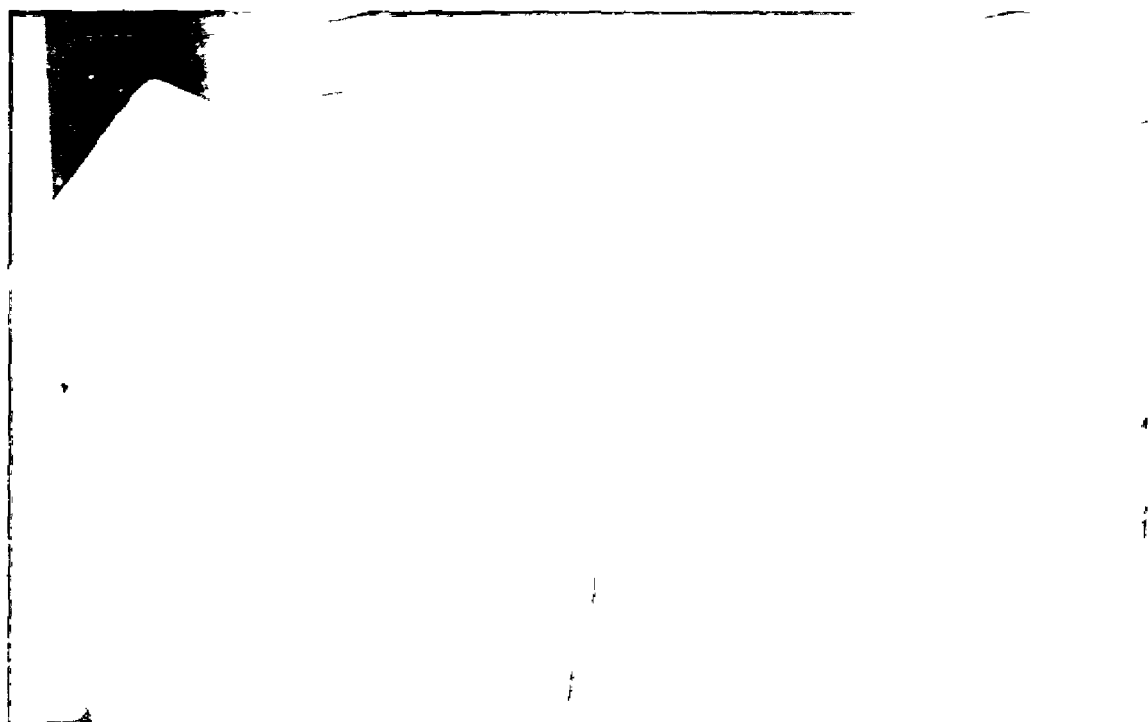
[그림 II-27] 세계평화의 종



출처 코리아DMZ협의회 자료

평화의 댐 아래에 바로 세계평화의 종 공원이 있다 세계평화의 종 공원 안에는 범종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큰 종인 세계평화의 종이다 이 종은 특별히 의미 있는 것은 에티오피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등 세계의 분쟁 현장에서 보내온 탄피, 포탄 등을 이용해 만든 것이라는 점이다 너비 3m, 높이 5m, 무게 375톤이다 전통 무게로 치면 1만 관이지만 실제로는 9,999관이다 나머지 1관은 종 윗부분에 달린 비둘기의 날개인데 통일 후에 붙여서 종을 완성하기 위해서 따로 분리해 전시해놓고 있다

[그림 II-28] 평화의 종 비둘기 날개 부분



세계평화의 종

The World Peace Bell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229. 230. 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0. 241. 242. 243. 244. 245. 246. 247. 248. 249. 250. 251. 252. 253. 254. 255. 256. 257. 258. 259. 260. 261. 262. 263. 264. 265. 266. 267. 268. 269. 270. 271. 272. 273. 274. 275. 276. 277. 278. 279. 280. 281. 282. 283. 284. 285. 286. 287. 288. 289. 290. 291. 292. 293. 294. 295. 296. 297. 298. 299. 300. 301. 302. 303. 304. 305. 306. 307. 308. 309. 310. 311. 312. 313. 314. 315. 316. 317. 318. 319. 320. 321. 322. 323. 324. 325. 326. 327. 328. 329. 330. 331. 332. 333. 334. 335. 336. 337. 338. 339. 340. 341. 342. 343. 344. 345. 346. 347. 348. 349. 350. 351. 352. 353. 354. 355. 356. 357. 358. 359. 360. 361. 362. 363. 364. 365. 366. 367. 368. 369. 370. 371. 372. 373. 374. 375. 376. 377. 378. 379. 380. 381. 382. 383. 384. 385. 386. 387. 388. 389. 390. 391. 392. 393. 394. 395. 396. 397. 398. 399. 400. 401. 402. 403. 404. 405. 406. 407. 408. 409. 410. 411. 412. 413. 414. 415. 416. 417. 418. 419. 420. 421. 422. 423. 424. 425. 426. 427. 428. 429. 430. 431. 432. 433. 434. 435. 436. 437. 438. 439. 440. 441. 442. 443. 444. 445. 446. 447. 448. 449. 450. 451. 452. 453. 454. 455. 456. 457. 458. 459. 460. 461. 462. 463. 464. 465. 466. 467. 468. 469. 470. 471. 472. 473. 474. 475. 476. 477. 478. 479. 480. 481. 482. 483. 484. 485. 486. 487. 488. 489. 490. 491. 492. 493. 494. 495. 496. 497. 498. 499. 500. 501. 502. 503. 504. 505. 506. 507. 508. 509. 510. 511. 512. 513. 514. 515. 516. 517. 518. 519. 520. 521. 522. 523. 524. 525. 526. 527. 528. 529. 530. 531. 532. 533. 534. 535. 536. 537. 538. 539. 540. 541. 542. 543. 544. 545. 546. 547. 548. 549. 550. 551. 552. 553. 554. 555. 556. 557. 558. 559. 560. 561. 562. 563. 564. 565. 566. 567. 568. 569. 570. 571. 572. 573. 574. 575. 576. 577. 578. 579. 580. 581. 582. 583. 584. 585. 586. 587. 588. 589. 590. 591. 592. 593. 594. 595. 596. 597. 598. 599. 600. 601. 602. 603. 604. 605. 606. 607. 608. 609. 610. 611. 612. 613. 614. 615. 616. 617. 618. 619. 620. 621. 622. 623. 624. 625. 626. 627. 628. 629. 630. 631. 632. 633. 634. 635. 636. 637. 638. 639. 640. 641. 642. 643. 644. 645. 646. 647. 648. 649. 650. 651. 652. 653. 654. 655. 656. 657. 658. 659. 660. 661. 662. 663. 664. 665. 666. 667. 668. 669. 670. 671. 672. 673. 674. 675. 676. 677. 678. 679. 680. 681. 682. 683. 684. 685. 686. 687. 688. 689. 690. 691. 692. 693. 694. 695. 696. 697. 698. 699. 700. 701. 702. 703. 704. 705. 706. 707. 708. 709. 710. 711. 712. 713. 714. 715. 716. 717. 718. 719. 720. 721. 722. 723. 724. 725. 726. 727. 728. 729. 730. 731. 732. 733. 734. 735. 736. 737. 738. 739. 740. 741. 742. 743. 744. 745. 746. 747. 748. 749. 750. 751. 752. 753. 754. 755. 756. 757. 758. 759. 760. 761. 762. 763. 764. 765. 766. 767. 768. 769. 770. 771. 772. 773. 774. 775. 776. 777. 778. 779. 780. 781. 782. 783. 784. 785. 786. 787. 788. 789. 790. 791. 792. 793. 794. 795. 796. 797. 798. 799. 800. 801. 802. 803. 804. 805. 806. 807. 808. 809. 810. 811. 812. 813. 814. 815. 816. 817. 818. 819. 820. 821. 822. 823. 824. 825. 826. 827. 828. 829. 830. 831. 832. 833. 834. 835. 836. 837. 838. 839. 840.

$\frac{1}{2} \frac{1}{\sqrt{1 - \frac{v^2}{c^2}}} \frac{d}{dt} \left(\frac{1}{\sqrt{1 - \frac{v^2}{c^2}}} \right) = \frac{1}{2} \frac{1}{\sqrt{1 - \frac{v^2}{c^2}}} \frac{1}{1 - \frac{v^2}{c^2}} \frac{d}{dt} \left(1 - \frac{v^2}{c^2} \right)$
 $= \frac{1}{2} \frac{1}{\sqrt{1 - \frac{v^2}{c^2}}} \frac{1}{1 - \frac{v^2}{c^2}} \left(-\frac{2v}{c^2} \frac{dv}{dt} \right)$
 $= -\frac{1}{2} \frac{1}{\sqrt{1 - \frac{v^2}{c^2}}} \frac{1}{1 - \frac{v^2}{c^2}} \frac{2v}{c^2} \frac{dv}{dt}$
 $= -\frac{1}{2} \frac{1}{\sqrt{1 - \frac{v^2}{c^2}}} \frac{2v}{c^2} \frac{dv}{dt}$
 $= -\frac{1}{2} \frac{2v}{c^2} \frac{dv}{dt} \frac{1}{\sqrt{1 - \frac{v^2}{c^2}}}$
 $= -\frac{v}{c^2} \frac{dv}{dt} \frac{1}{\sqrt{1 - \frac{v^2}{c^2}}}$

출처 코리아DMZ협의회 자료

관광객들은 공원에 있는 관광해설사에게 500원을 내고 직접 종을 쳐 볼 수 있다 이렇게 모인 타종요금이 연간 천여만 원에 이르는데 세계의 고아들을 위해 쓰인다 2010년에 모인 타종요금은 한국전쟁 참전국중 하나인 에티오피아의 고아들을 위하여 사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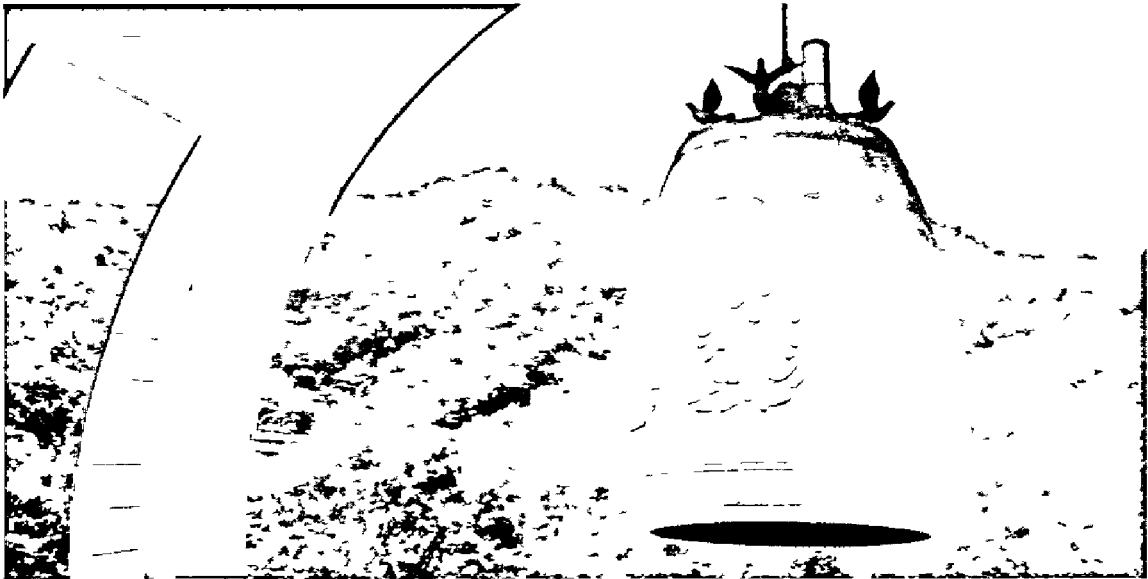
[그림 II-29] 세계평화의 종을 타종하고 있는 국내외 관광객들



출처 코리아DMZ협의회 자료

세계평화의 종과 함께 소리가 나지 않는 종인 염원의 종도 있다 염원의 종이 평화의 종으로 잘못 알려져 있는 경우가 많다 염원의 종은 나무로 만들어져 있고 따로 높이 매달려 있는데, 통일이 된 이후 두 종의 위치를 바꾸어 세계평화의 종을 치며 통일을 알리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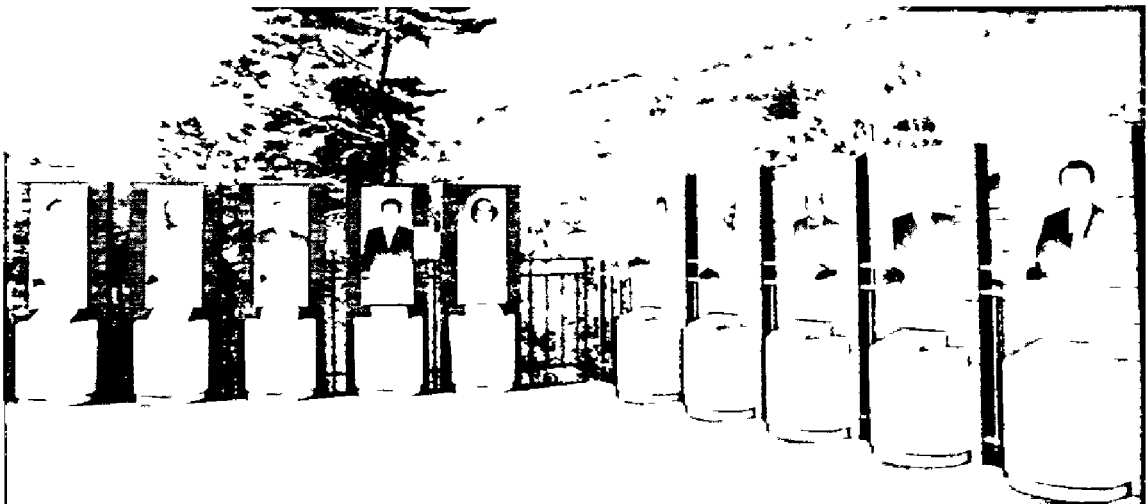
[그림 II-30] 염원의 종



출처 코리아DMZ협의회 자료

세계평화의 종을 중심으로 소박하게 꾸며진 공원에서는 세계평화를 기원하며 보내온 각국의 종이 모여 있고, 노벨평화상 수상자와 세계평화를 위해 노력한 인물들의 ‘악수하는 손’ 조각품도 있어 관광객들의 흥미를 더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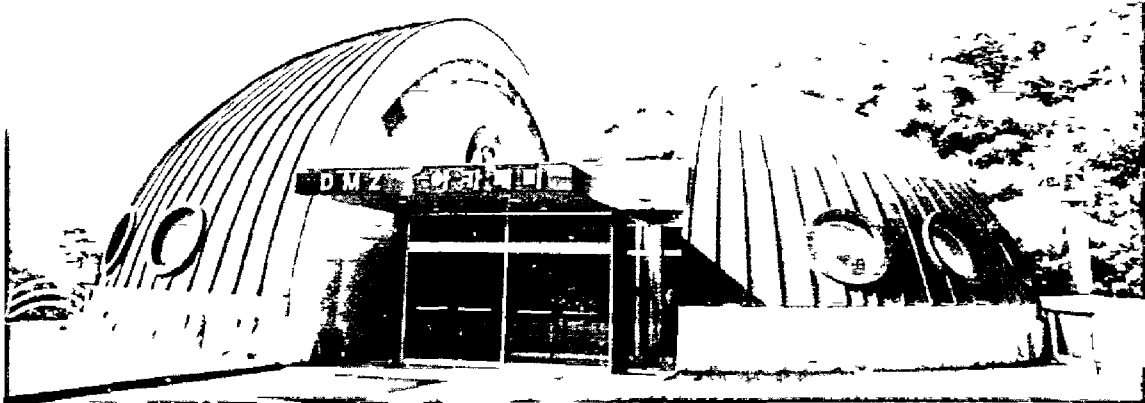
[그림 II-31] 악수하는 손



출처 vietvetkorea의 홈페이지, <<http://blog.naver.com/vietvetkorea?Redirect=Log&logNo=50098498461>>

공원 아래에는 DMZ와 통일에 관한 교육 및 다양한 행사가 이루어지는 DMZ아카데미가 자리잡고 있다

[그림 II-32] DMZ아카데미



출처 vietvetkorea의 홈페이지, <<http://blog.naver.com/vietvetkorea?Redirect=Log&logNo=50098498461>>

주 소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동촌리 산 321-4번지

전 화 평화의 댐 관리사무소 033-480-1532

(2) 비목공원, 비목문화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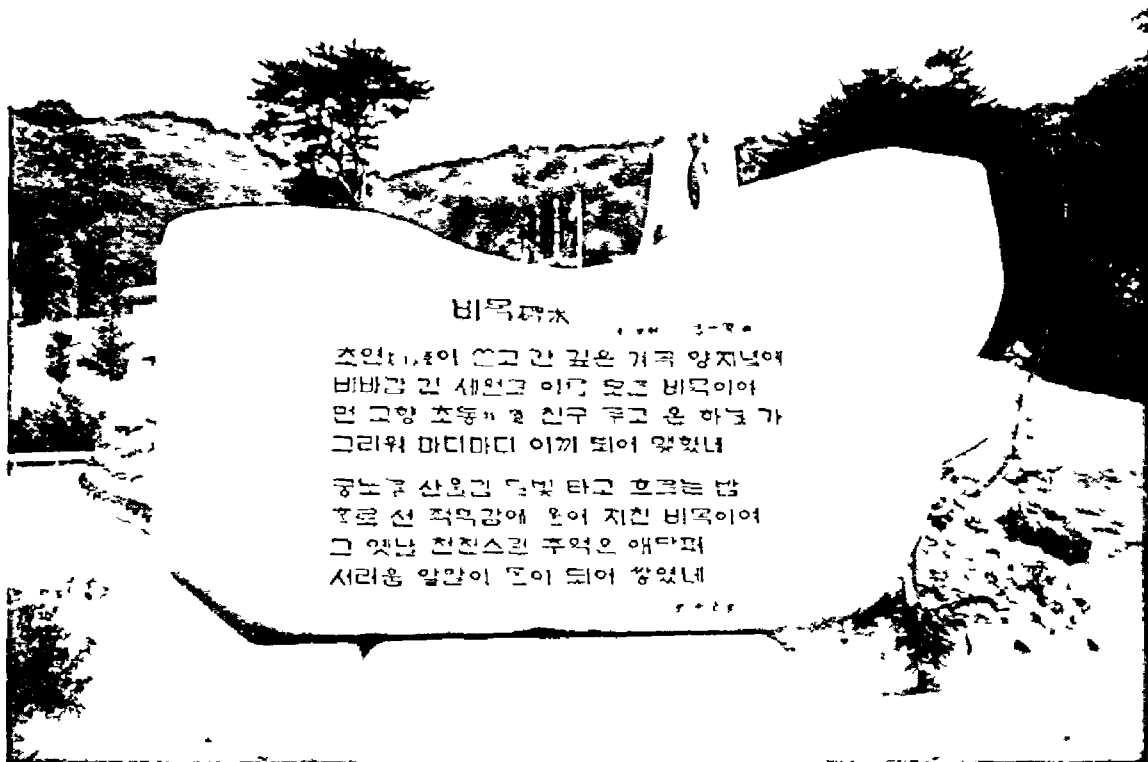
[그림 II-33] 비목공원



출처 숲 속 작은집, <<http://blog.naver.com/simgj57?Redirect=Log&logNo=30095680886>>

평화의 댐 아래에는 비목공원이 있는데 국민적으로 널리 애창되는 가곡 ‘비목’이 이곳에서 작사되었기 때문이다 1960년대 중반 평화의 댐에서 북쪽으로 14km 떨어진 백암산 계곡 DMZ에 배속된 한명희라는 청년장교는 잡초가 우거진 곳에서 무명용사의 녹슨 철모와 돌무덤 하나를 발견하였다 한명희는 돌무덤의 주인이 전쟁 당시 자기 또래의 젊은이였을 것이라는 생각에 ‘비목’의 노랫말을 지었고 그 후 장일남이 곡을 붙여 1970년대 중반부터 가곡으로 널리 애창되었다

[그림 II-34] 비목 시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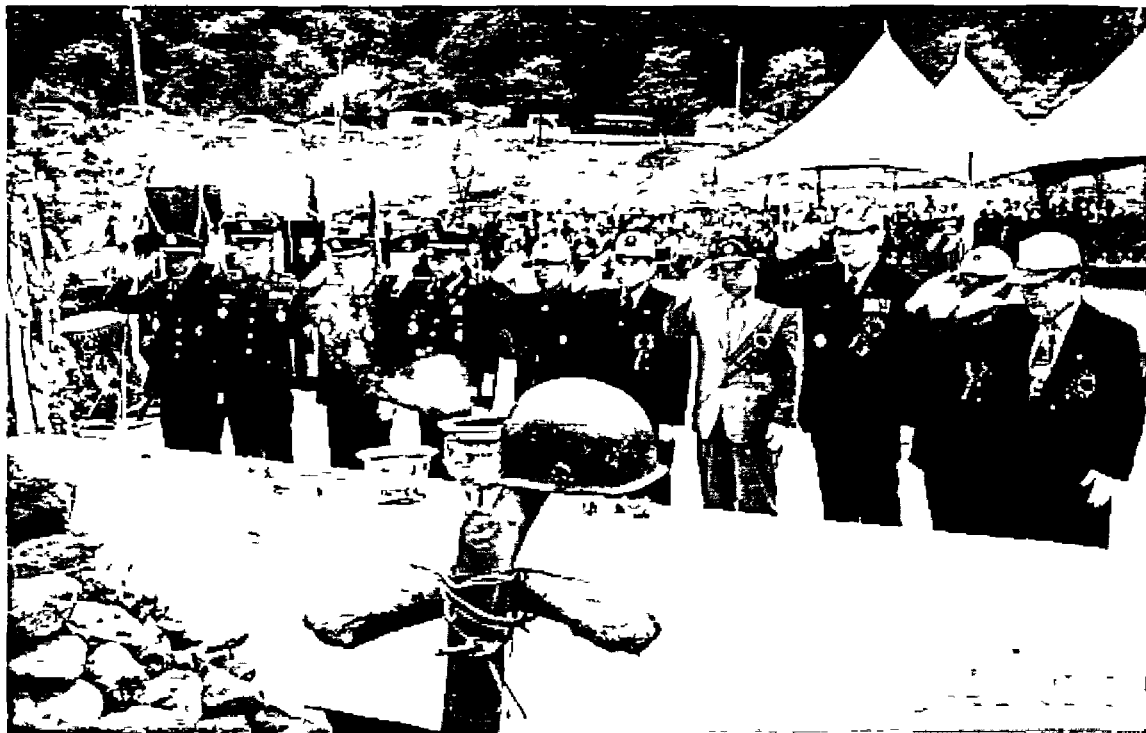
출처 숲 속 작은집, <<http://blog.naver.com/sungj57?Redirect=Log&logNo=30095680886>>

비목을 매개로 해서 DMZ 일원에서 스러져 간 젊은 군인들을 기념하기 위해 비목공원이 세워졌고 비목 시비(詩碑), 비목조형물, 평화기원

탐등이 건립되었다

1995년부터 매년 6월 3일부터 6일까지 ‘비목’의 탄생과 무명용사의
넋을 기리고, DMZ와 한반도의 평화를 기원하는 ‘비목문화제’가 화천
군의 주최로 열리고 있다 민 관 군의 합동으로 기념식과 위령제, 병영
체험, 향토특산물 장터 등 다양한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전국
적인 권위를 지닌 비목콩쿨도 함께 진행되어 문화제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그림 II-35] 2008년 비목문화제 개회식



출처 “희생의 꽃, 희망의 바람 비목문화제 개막,” 『뉴시스』, 2008년 6월 6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
&oid=003&aid=0002128442](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2128442)>

[표 II-1] 비목문화제 개최안내장

제16회 비목문화제 개최안내

- 기 간 '11 6 4(토)~6 6(일) 3일간
- 장 소 평화의 댐 광장, 비목공원, 문화예술회관

□ 행사별 시간계획

| | | | | |
|----------------------|-----------------|-------------|----------------------------|--------------------|
| 5 14
5 21
5 28 | 비목콩쿨 예선 | 09 00~17 00 | 올림푸스홀
동래문예회관
침신대콘서트홀 | 서울, 부산, 충청지역 |
| 6 11
(토) | 비목콩쿨 본선 | 10 00~17 00 | KT아트홀 | 성악부문 2차 예선 |
| 7 2
(토) | 비목콩쿨 결선 | 09 00~17 00 | 화천문예회관 | 성악 창작부문 결선 |
| 6 4
(토) | 우리軍 사랑
호국음악회 | 19 00~21 00 | 화천문예회관 | 7사단군악대, 초청가수 |
| 6 5
(일) | 참전용사
전적지순례 | 10 00~16 00 | 관내 전적지 | 관내 전적지 순례
참배 |
| 6 6
(월) | 평화 꽃씨
날리기 | 11 00~11 30 | 평화의 댐광장 | 꽃씨 풍선 날리기 |
| | 세계평화대행진 | 11 30~12 30 | 평화의 댐 ↔
안동철교 | 두발로, 두바퀴 |
| | 위령제 | 14 00~15 00 | 평화의 댐광장 | 헌화, 분향, 타종 |
| | 세계평화콘서트 | 15 00~16 30 | 평화의 댐광장 | 가곡, 대북, 퍼포먼스 등 |
| | 주먹밥 시식 | 15 00~17 00 | " | 주먹밥 시식 |
| | 인식표 만들기
체험 | 10 00~17 00 | " | 군번 인식표 제작 |
| | 6 25전쟁 사진전 | 10 00~17 00 | " | 6 25전쟁 기록
사진 전시 |
| | 향토특산물
전시판매 | 10 00~17 00 | " | 관내 농특산물
전시판매 |

(3) 화천댐, 파로호

[그림 II-36] 파로호



출처 화천군 관광청, <<http://tour.ihc.go.kr>>

화천댐은 1944년 지은 우리나라 최초의 댐으로 수로식 수력발전소로 사용하고 있다 파로호는 화천댐의 건설로 생긴 인공호수이다 원래의 이름은 대붕호였다 한국전쟁 당시 화천댐은 남한 전력의 주요공급원이었기 때문에 이를 차단하기 위해서 중공군이 인해전술로 공격해왔다 그때 육군 6사단이 중공군 3개 사단을 격파해 중공군 수만 명이 이 호수에 수장되었다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은 이를 치하하는 뜻으로 이 호수의 이름을 오랑캐를 격파한 호수라는 뜻의 파로호(破虜湖)로 지었다 화천수력발전소에는 당시 이승만이 친필로 쓴 전승비가 있다

담수량이 무려 10억 톤에 이를 정도로 거대한 파로호는 해산, 월명동 등의 높은 산에 둘러싸여 드라이브를 즐기기에 좋은 코스로 알려져 있다 화천면 간동면 구만리 산 215번지에는 파로호 전투를 소상히 기록한 파로호 안보전시관이 있어 한국전쟁 당시 화천댐을 사수한 육군 6사

단의 활약상을 살펴 볼 수 있다

또한 파로호와 화천댐 인근에는 낚시터와 산천어와 송어 등의 민물고기의 맛을 즐길 수 있는 음식점들이 많이 운영되고 있어 관광객들의 발길을 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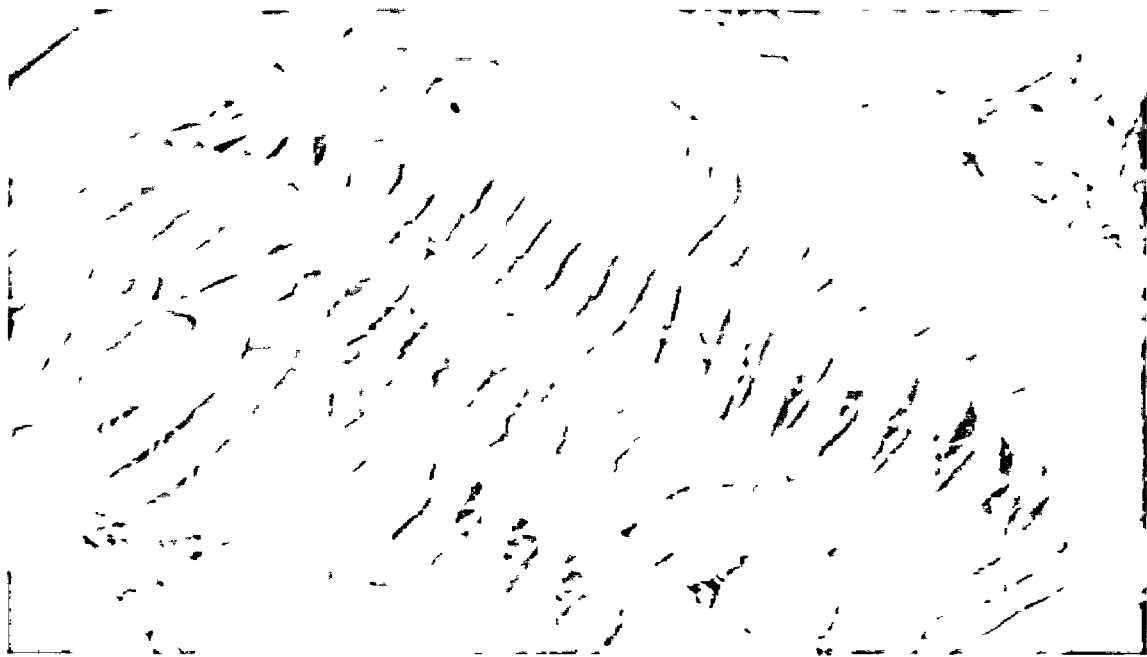
주 소 강원도 화천군 간동면 구만리 1134-1

전 화 화천수력발전소 033-440-3217

화천군청 관광정책과 033-440-2542

(4) 화천 산천어회

[그림 II-37] 산천어회



출처 강경원의 여행만들기, <<http://blog.daum.net/tourcodi/8127308>>

산천어는 1급수에만 사는 민물고기이다 예로부터 중국에선 신선이 먹던 음식이라고 불릴 정도로 뛰어난 풍미와 영양을 자랑한다 특히 민물고기 특유의 흙 냄새가 전혀 없으며 육질이 탄탄해 씹을수록 고소하다

DMZ와 민통선 일원과 같이, 흘러들어오는 물이 깨끗하고 풍부하지 않은 곳이라면 맛볼 수 없는 별미이다 파로호 근처에 횃집들이 많이 있다

마 철원군

[그림 II-38] 철원평야 두루미의 군무



출처 대한민국 구석구석, <http://www.visitkorea.or.kr/kor/ut/what/travel_stories/content/view_1085882.jsp>

철원은 철새들의 천국이다 해마다 겨울과 여름에 여러 종류의 철새들이 철원으로 날아온다 특히 겨울에는 시베리아에서 두루미, 재두루미, 대머리독수리, 쇠기러기 등 많은 종류의 철새들이 날아온다 철원평야와 토교저수지 등이 이들의 주 거주지이다 특히 세계적으로 보호받고 있는 두루미의 경우 개체수가 1,000여 마리에 이를 때도 있다

이처럼 철원이 철새들의 낙원이 된 것은 물과 먹을거리가 풍부하고 여러 종류의 새들이 영역다툼 없이 공존할 수 있는 넓은 평야 때문이다

또한, 철원평야에서 이루어지는 쌀농사로 인한 낙곡들이 새들에게 풍부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기도 한다

특히 천연기념물 245호인 샘통에서는 땅이 얼 정도로 추운 겨울에도 항상 15도 정도의 따뜻한 물이 샘솟는다 또한 거대한 토교저수지는 쇠기러기 등 오리나 거위류의 새들에게 훌륭한 잠자리가 되어 준다 철새 도래지들의 대부분이 민통선 안에 있어서 사람들의 발길이 잘 닿지 않는 점도 철새들이 모여드는 이유가 되었다

또한 철원은 안보관광지로서 유명한 전적지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한국전쟁 당시 철의 삼각지라 불릴만큼 치열한 전장이었으며 그로 인해 많은 전적지와 유적지들이 남아 있다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유적들이 많아진 점도 철원의 DMZ 관광객이 늘어나는 데 일조하고 있다

(1) 토교저수지

[그림 II-39] 토교저수지 경계병과 독수리



춘치 “6사단 GOP, 얼어붙은 전책 사이 두 눈은 살아 있다,” 『중앙일보』, 2008년 1월 4일,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3021501>

양지리마을 인근에 위치한 토교저수지는 다양한 물고기들의 서식처이며 멸종위기에 처한 철새들의 도래지로 유명하다 원래는 철원평야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1968년부터 10년에 걸쳐 축조했다 철원안보관광의 중심지인 제2땅굴 진입도로변에 위치해 있어 철새탐조관광을 통해서만 들어올 수 있다 계절마다 다른 철새떼로 인해서 장관을 이루는데 특히 겨울 이른 새벽 일제히 비상하는 쇠기러기의 군무가 장관을 이룬다

(2) 철새탐조관광

11월에서 2월까지 토교저수지와 철원평화전망대 등 철새들이 자주 찾는 장소를 이동하며 철새들의 겨우살이를 관람하는 프로그램이다 개인 차량의 출입을 제한하기 때문에 철새탐방버스를 이용해야만 탐조관광이 가능하다 개인은 여행사(안보관광 셔틀버스 여행사 033-455-8275)를 통해서 신청하는데 신청인원이 20인 이하면 투어가 취소된다 단체는 출발 7일 전까지 철원군청 관광문화과로 신청해야 한다 여행 당일 철의삼각전적지관광사업소 신청 및 승인 후 출발할 수 있다 화요일은 휴무한다

전화번호 철원군청 관광문화과 033-450-53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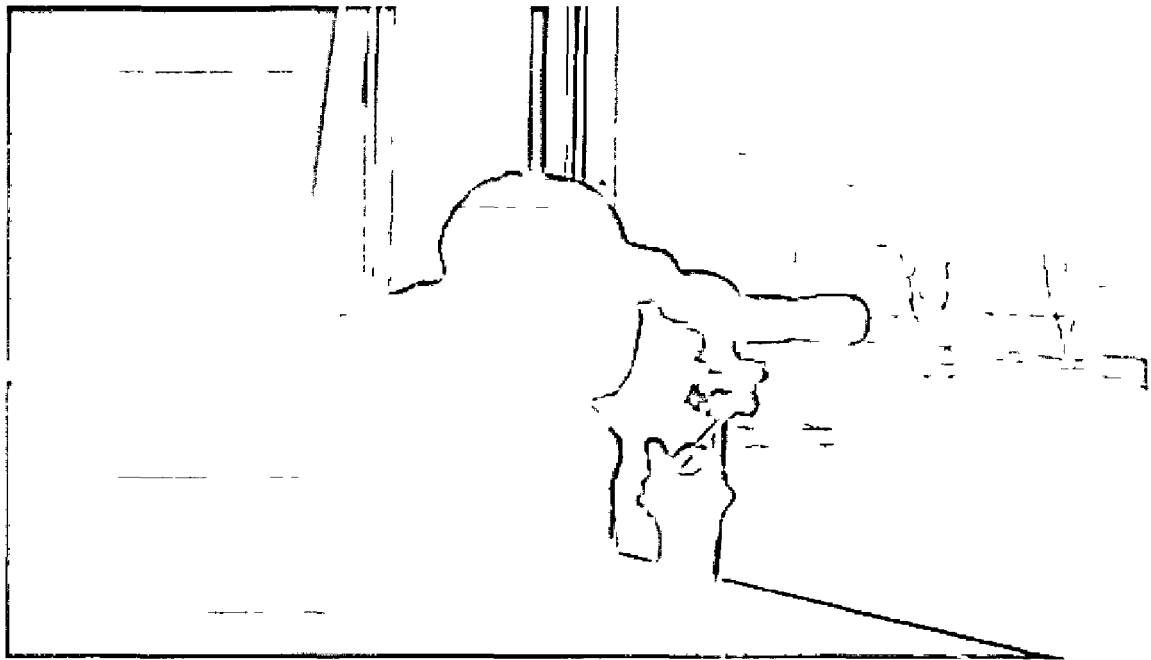
(3) 철원두루미관

월정리역 맞은편에 있다 원래는 1988년 안보관광을 위해서 건립한 철의삼각산전망대였는데 전망대 앞의 나무들이 자라서 북한땅이 잘 안 보이게 되자 탐조관광객이 급증하는 실정에 발맞추어 2009년 두루미관

으로 리모델링하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두루미관은 철원군에서 운영하는 철의삼각전적지 안보견학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관람할 수 있다 샘통의 모형이나 희귀 야생동물들의 박제 등을 전시하고 있다

(4) 철새보는집

[그림 II-40] 철새보는집



출처 chanyo72의 홈페이지,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chanyoo72&logNo=100321911&parentCategoryNo=16&viewDate=¤tPage=1&listtype=0>>

철새 탐조관광지 중 유명한 곳 하나가 ‘철새보는집’이다 철새보는집은 토교저수지 바로 아래쪽에 위치하는데 토교저수지로 날아드는 새들을 보호하려고 노력하던 지역민이 주위의 권유로 만든 것이라고 한다 민박과 식사도 가능한데 민통선 안에서 농사지은 청정콩으로 만든 순두부가 유명하다

건물 밖에서 토교저수지와 철원평야에 날아드는 새들을 탐조할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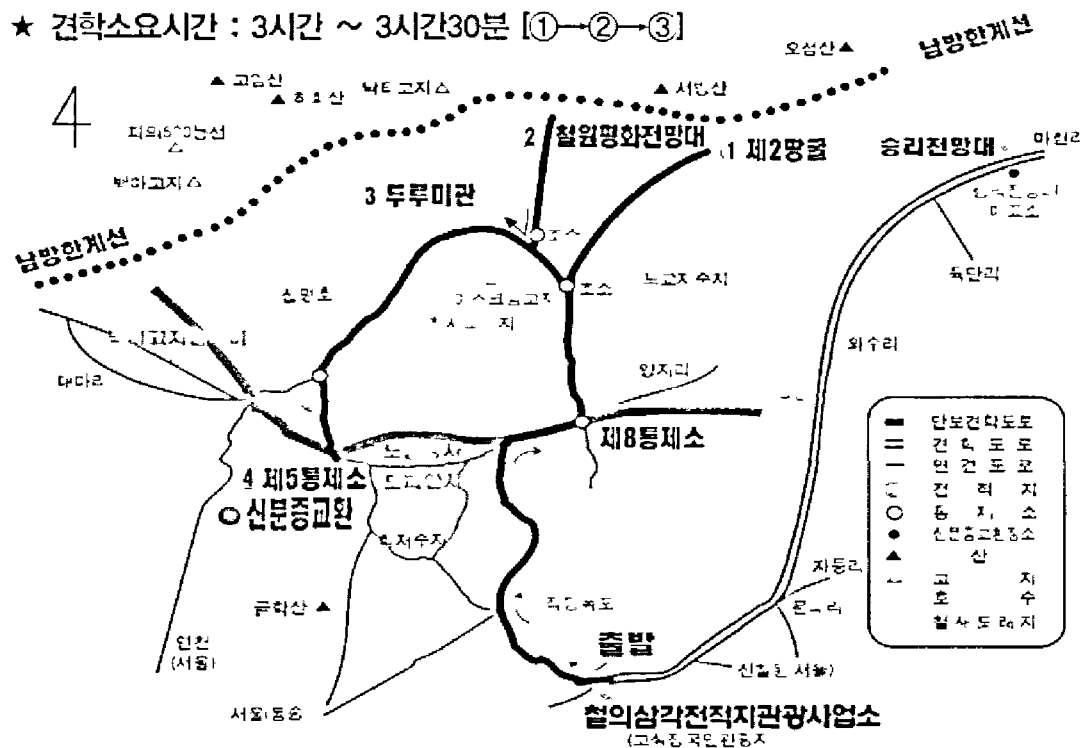
있도록 망원경 등도 구비해 놓았다 특히 한쪽 벽면을 통째로 유리로 만들어놓아 겨울철 아침에 쇠오리떼의 장엄한 비상을 누워서 관람하는 행운도 가능하다고 한다

주 소 강원 철원군 동송읍 양지리 277-11 번지
전화번호 033-452-3145
홈페이지 <http://033-452-3145.pkt114.com>

(5) 철의 삼각지 안보견학 제2땅굴, 철원평화전망대, 월정리

[그림 II-41] 철의 삼각지 안보견학 코스

★ 견학소요시간 : 3시간 ~ 3시간30분 [①→②→③]



출처 철원삼각전적지관광사업소, <<http://hantan.cwg.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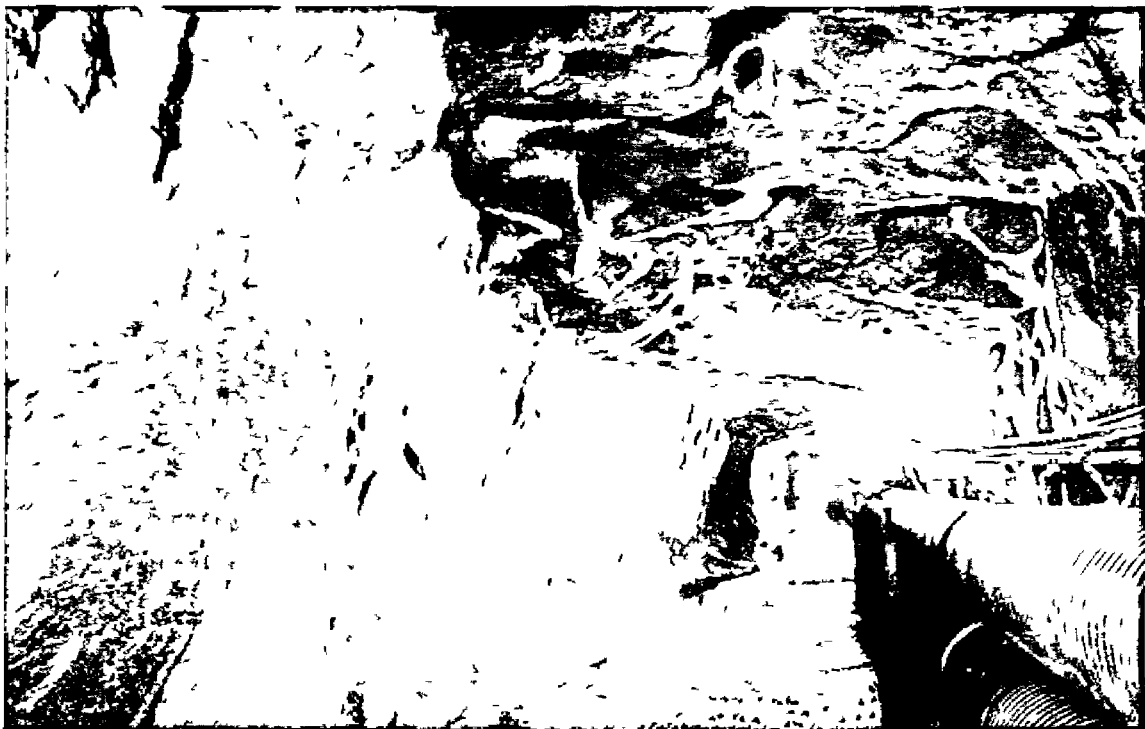
견학 당일 출발 10분 전에 철의삼각전적지관광사업소 1층 접수처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과 당일 예매한 영수증을 지참하면 관람

이 가능하다 평일에는 개인차량으로도 관람이 가능하나 주말에는 셔틀 버스만 운행한다 주중에 개인차량으로 관람할 시에도 관계자들의 안내를 받을 수 있다 3시간 정도가 소요된다

주 소 강월도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0-1 철의삼각전적지관광사업소
전화번호 033-450-5558,9
홈페이지 <http://hantan.cwg.go.kr/hantan/sub.html?menuKey=14>

(가) 제2땅굴

[그림 II-42] 제2땅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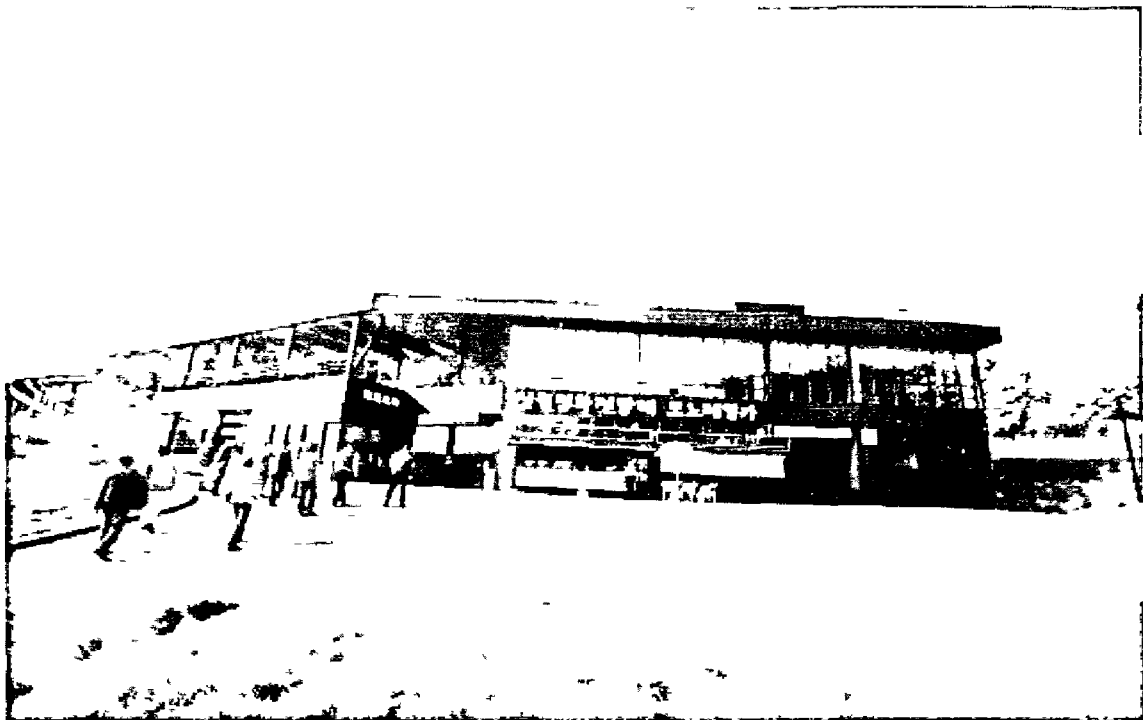
출처 유용원의 군사세계, <<http://bernil.chosun.com/>>

제1땅굴이 발견된 이듬해 1975년 경계근무를 서던 국군 경비병은 지상으로 전해지는 미세한 진동을 느꼈다 이에 진동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 시추작업을 벌인 결과 두 번째 땅굴을 찾아냈다 땅굴 내에서

북한군 소탕작전을 벌이던 중 지뢰가 폭발해 우리 군인 7명이 목숨을 잃기도 했다 단단한 화강암층을 뚫어 만들었는데, 제1땅굴보다 다섯 배나 커서 1시간 동안 무장한 병력 3만 명이 이동할 수 있다는 추정이 있다

(나) 철원평화전망대

[그림 II-43] 철원평화전망대



출처 철원관광문화, <<http://tour.cwg.go.kr/tour/>>

철원평화전망대에서는 망원경을 통해 DMZ 안에 잠들어 있는 궁예 도성과 DMZ 너머 북한의 평강고원 등을 관찰할 수 있다 모노레일이 설치되어 있어 전망대까지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데 이용료는 별도이다 전망대 아래는 제2땅굴과 막사, 검문소를 재현해 놓은 설치물과 DMZ 사진 등을 상설전시해 놓았다

(다) 월정리역

[그림 II-44] 월정리역 인민군화물열차 잔해



출처 철원관광문화, <<http://tour.cwg.go.kr/tour/>>

경원선은 서울과 원산을 잇는 철도로 분단 후 운행이 중단되었다. 월정리역은 서울에서 달리던 경원선 철마가 들렀다 가던 간이역으로 정전 후 남방한계선에서 가장 가까운 기차역으로 남아 있어 분단의 현실을 보여주는 안보관광지로 자리잡고 있다. 유엔군의 폭격으로 부서진 인민군 화물열차의 뒷부분이 골격만 남은 채 남아 있는데, 북한군이 철수하면서 앞부분만을 가져갔기 때문이라고 한다. 10여 년 전까지는 바퀴 등 외형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였으나 부식이 많이 심화되어 보호를 위해 지붕을 씌워 놓았다.

(6) 백마고지 전적비

[그림 II-45] 백마고지전투전적비와 위령탑



출처 한국기독교회사, <<http://photohs.co.kr/xe/1542>>

북한 고압산을 뒤로 하고 철원평야 위에 불쑥 솟은 해발 395m의 야산이 바로 백마고지다. 철원평야가 한눈에 들어오는 이 능선은 남북한 모두 포기할 수 없는 전략적 요충지였다. 이곳을 확보해야지만 병참선이 되는 주요 도로를 장악할 수 있다. 휴전 협상 진행 중에도 우리 군과 중공군은 한 치의 땅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쟁탈전을 벌였다. 10일간 24번이나 주인이 바뀌고 30만 발의 포탄이 떨어진 치열한 전투 지역으로, 1m나 내려앉은 정상은 하얗게 초토화되었다. 그 모습을 내려다본 미국의 종군기자가 마치 백마가 쓰러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백마고지라 불리게 되었다.

백마고지의 전투전적비는 개별관광이 가능한 지역에 있으나 백마고지는 DMZ 안에 있어 출입이 불가능하다. 해가 떠 있는 동안에만 관람이 가능하고, 화요일은 휴무이다.

주 소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산명리 18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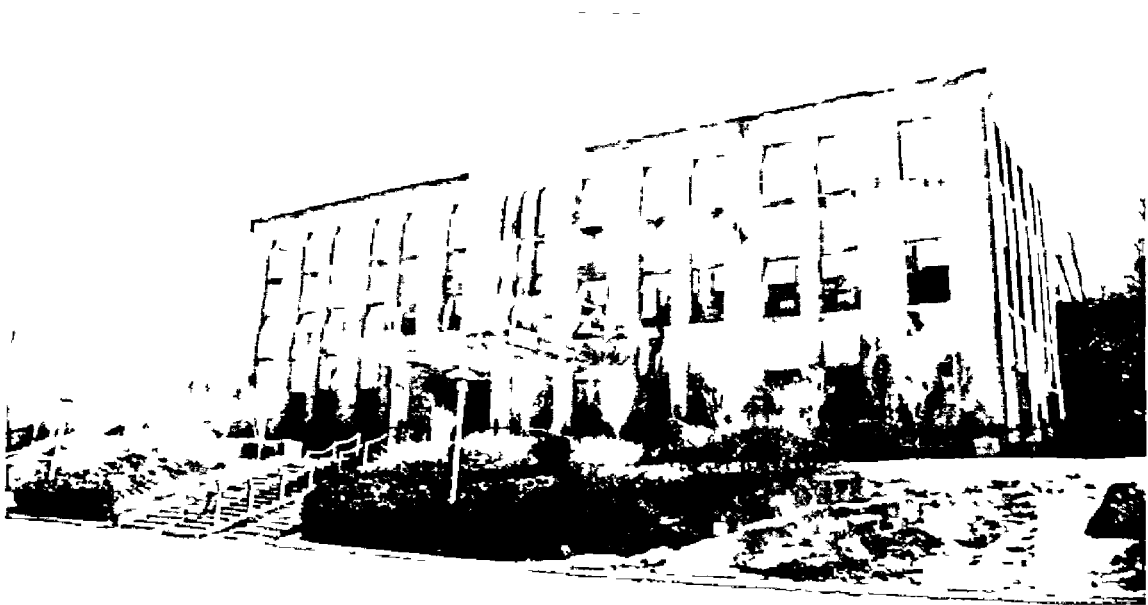
(7) 근대문화유산

문화재청이 지정한 대한민국 근대문화유산으로 개인차량을 이용해 누구나 자유롭게 가볼 수 있다 특히 발달된 철로와 도로망으로 인해 철원으로의 접근이 용이해지자 관람에 별다른 제약이 없는 노동당사의 경우 자전거하이킹의 종착지로 근래 더욱 인기를 끌고 있다

노동당사, 승일교 외에도 수도국지, 감리교회, 얼음창고, 농산물검사소 등이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한국전쟁 이전 철원이 얼마나 풍요롭고 번성한 곳인지를 알려주고 있다

(가) 노동당사

[그림 II-46] 철원 노동당사



출처 코리아DMZ협의회 자료

1946년 초 이곳이 북한 땅이었을 때 철원군 조선노동당에서 시공하여 그해 말에 완공한 러시아식 건물이다 1,850㎡의 면적에 지상 3층의 무철근 콘크리트 건물로, 현재 1층은 각방 구조가 남아 있으나, 2층은 3층이 내려앉는 바람에 허물어져 골조만 남아 있다 한국전쟁의 참화로

검게 그을린 3층 건물의 앞뒤엔 포탄과 총탄 자국이 촘촘하다

이 건물을 지을 때 성금으로 1개 리(里)당 쌀 200가마씩 거두었고, 지역 주민들로부터 강제 모금과 노동력 동원을 하였다고 한다 또한 내부 작업은 비밀유지를 위해 공산당원 이외에는 동원하지 않았다고도 한다

8 15광복 후부터 6 25전쟁이 일어나기까지 공산치하에서 반공활동을 하던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잡혀 와서 고문과 무자비한 학살을 당하였다 당사 뒤편에 설치된 방공호에서 사람의 유골과 실탄, 철사줄 등이 발견된 것으로 미루어 그때의 참상을 알 수 있다

1994년 ‘서태지와 아이들’이 이곳에서 3집 통일에 대한 소망을 노래한 ‘발해를 꿈꾸며’의 뮤직비디오를 촬영하여 유명해졌다 KBS 열린음악회가 녹화되기도 하였다

주 소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관전리 3-6번지

(나) 승일교

[그림 Ⅱ-47] 승일교



출처 네이버 캐스트, <http://navercast.naver.com/contents.nhn?contents_id=208>

총 길이 120m, 높이 35m, 너비 8m로, ‘한국의 콰이강의 다리’라고도 한다. 1948년 북한 땅이었을 때 북한에서 공사를 시작하였다가 6·25전쟁으로 중단되었다. 그 후 휴전이 성립되어 남한 땅이 되자, 1958년 12월 남한 정부에 의해서 완성하였다. 결과적으로 기초 공사와 교각 공사는 북한이, 상판 공사 및 마무리 공사는 남한이 한 남북합작의 다리인 셈이다.

3개의 교각 위에 아치형을 이루고 있는 다리로, 처음 북한 쪽에서 지을 때에는 구소련의 유럽 공법이 도입되었으나, 뒤에 남한 쪽에서 지을 때에는 그와는 다른 공법으로 완성되었다. 시공자와 완성자가 다른 까닭에 양쪽의 아치 모양 또한 약간 다른데, 북한 쪽에서 먼저 지은 다리는 둥글고, 남한 측에서 지은 것은 둥근 네모 형태를 띠고 있다.

명칭에 대해서는 김일성(金日成) 시절에 만들기 시작해서 이승만(李承晩) 시절에 완성했다고 해서 이승만의 ‘승(承)’자와 김일성의 ‘일(日)’자를 따서 지었다는 설과 6·25전쟁 때 한탄강을 건너 북진하던 중 전사한 것으로 알려진 박승일(朴昇日) 대령의 이름을 따다는 설이 있으나, 현재는 후자의 설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주 소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1-8번지

(8) 철원 물고추냉이

[그림 II-48] 샘통의 미온수를 이용한 물고추냉이 재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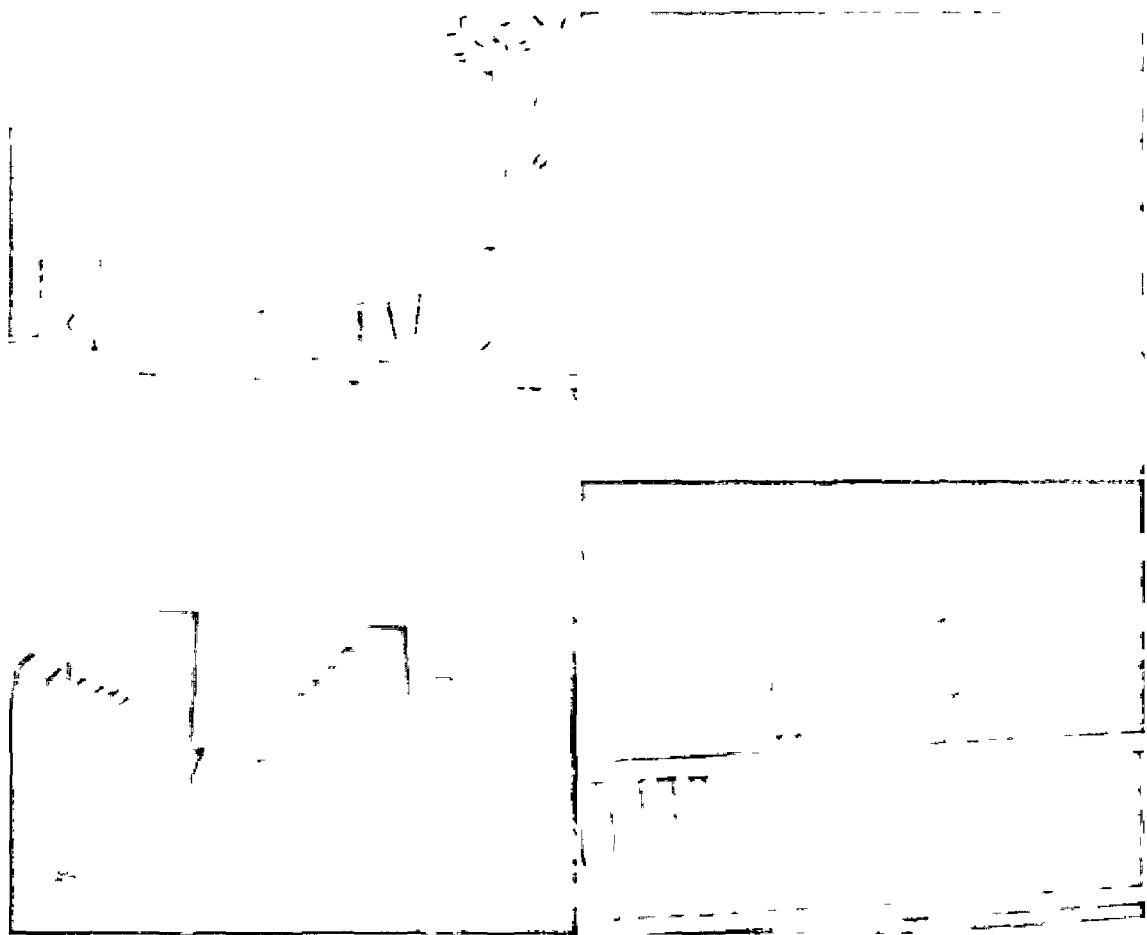
출처 철원 작은 제자의 홈페이지, <<http://blog.naver.com/wide21>>

물고추냉이는 일반 겨자보다 향과 풍미가 뛰어나서 고급일식집이나 호텔 등의 음식점에서 사용된다 또한 생육조건이 매우 까다롭기로 유명한 작물이다 재배에 필요한 농업용수는 10a에 초당 18ℓ 이상 솟아야 하며 연중 수온온도도 최하 8℃에서 18℃를 유지해야 한다 환경에 민감해서 농약을 사용하면 바로 죽는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이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곳이 있는데 바로 철원의 샘통이다 일 년 내내 13도 내외의 따뜻한 1급수가 흘러나오는 샘통 인근은 물고추냉이를 키워내기 위한 천혜의 조건이다 물고추냉이는 철원 일원 농가에서 새로운 소득원으로 각광받고 있다

바. 연천군

연천은 고대로부터 북진하던 세력이 남쪽으로 내려오기 위해서 택하였던 길목이다 고구려가 남하했을 때 연천을 택하였고, 북한의 전차부대가 남하한 곳도 연천이며, 1968년 북한의 124부대가 청와대를 습격하기 위해 선택한 길 또한 연천이었다 또 사람과 화물을 싣고 북으로 달리던 경원선 철도가 지나가는 지점이기도 하다 연천은 남과 북을 이어주는 길이며 동시에 남한과 북한이 반드시 서로 막아야만 하는 가장 중요한 ‘길목’인 것이다

[그림 II-49] 연천지역 탱크방호 시설물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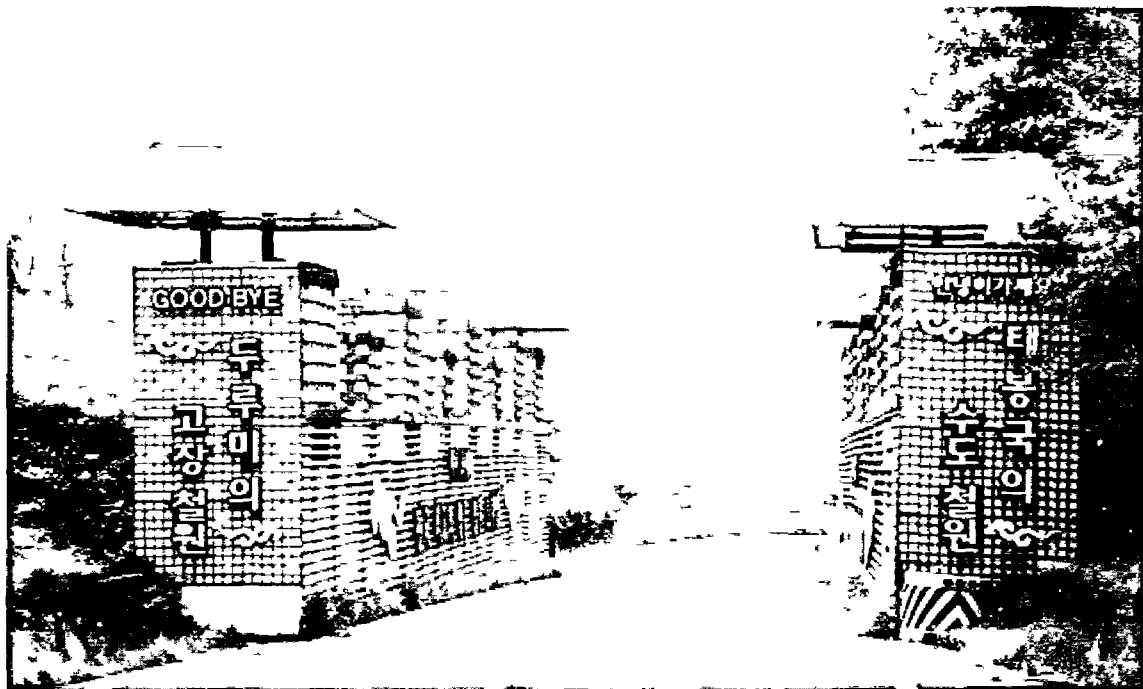


출처 코리아DMZ협의회 자료

연천의 이러한 지정학적, 군사안보적 특징에 의해 이 지역은 북한의 남침을 감시하기 위한 시설이 발달하였고 이러한 시설들을 기반으로 DMZ 관광자원들이 많이 개발되었다 연천지역 곳곳에서는 탱크방호 시설물들을 볼 수 있다 도로나 얇은 강을 따라 탱크 등 북한의 기갑부대가 남하할 수 있는 길목마다 이러한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군사 시설물도 [그림 II-50]와 같이 훌륭한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 남북으로 이어진 길을 막고 감시하는 시설에 궁예의 도성을 형상화한 외관을 꾸며 놓았다 안보시설을 문화관광자원화한 DMZ 관광문화의 특징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시설 중 하나이다

[그림 II-50] 철원-연천 길목 탱크방호 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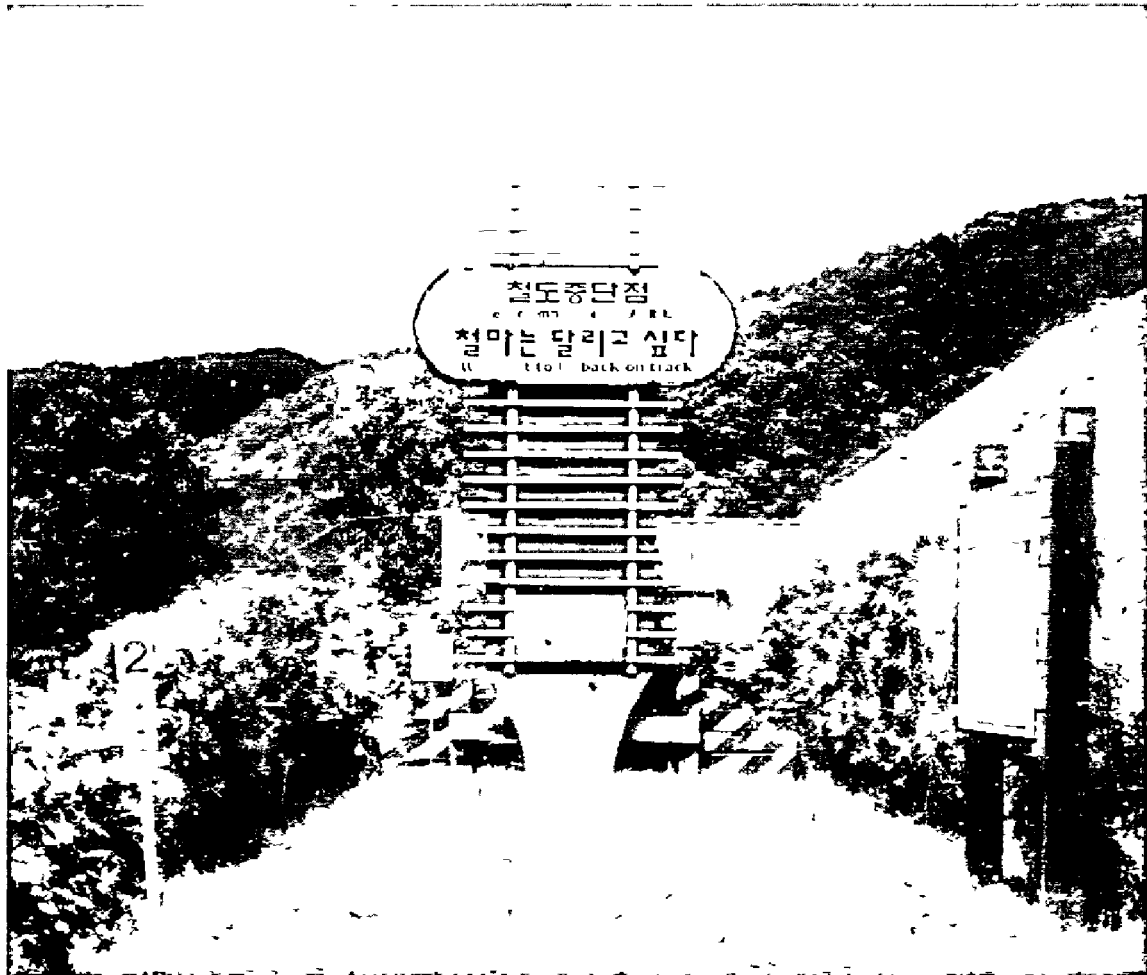
출처 코리아DMZ협의회 자료

언젠가 남북한이 하나가 되었을 때 연천은 개성에서 서울로 사람과 교통이 왕래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될 것이며, 더 나아가 시베리아

횡단철도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1) 신탄리역

[그림 II-51] 신탄리역 경원선 철도중단점



출처 경기도DMZ관광청, <<http://DMZ.gg.go.kr>>

‘철마는 달리고 싶다’라는 뜻말로 유명한 신탄리역은 서울과 원산을 오가던 경원선의 남한 쪽 마지막 역이다 북한에서는 경원선을 현재 강원선이라고 부르고 있다

동두천에서 신탄리역까지 하루 서른네 번 통근열차가 운행되는데 근

처 고대산을 찾는 관광객들과 실향민들이 맞물려 하루 평균 800여 명이 찾는 역이다 이 철도 중단점에서 10km만 더 나아가면 바로 DMZ와 연결된다

신탄리에서 철원으로 철도연결이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완공되면 철원까지 철도로 관광객 수송이 가능해 DMZ 관광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 소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대광리 169-25

전화번호 신탄리역 031-834-8887, 연천군청 문화관광과 031-839-2823

(2) 열쇠전망대

[그림 II-52] 열쇠전망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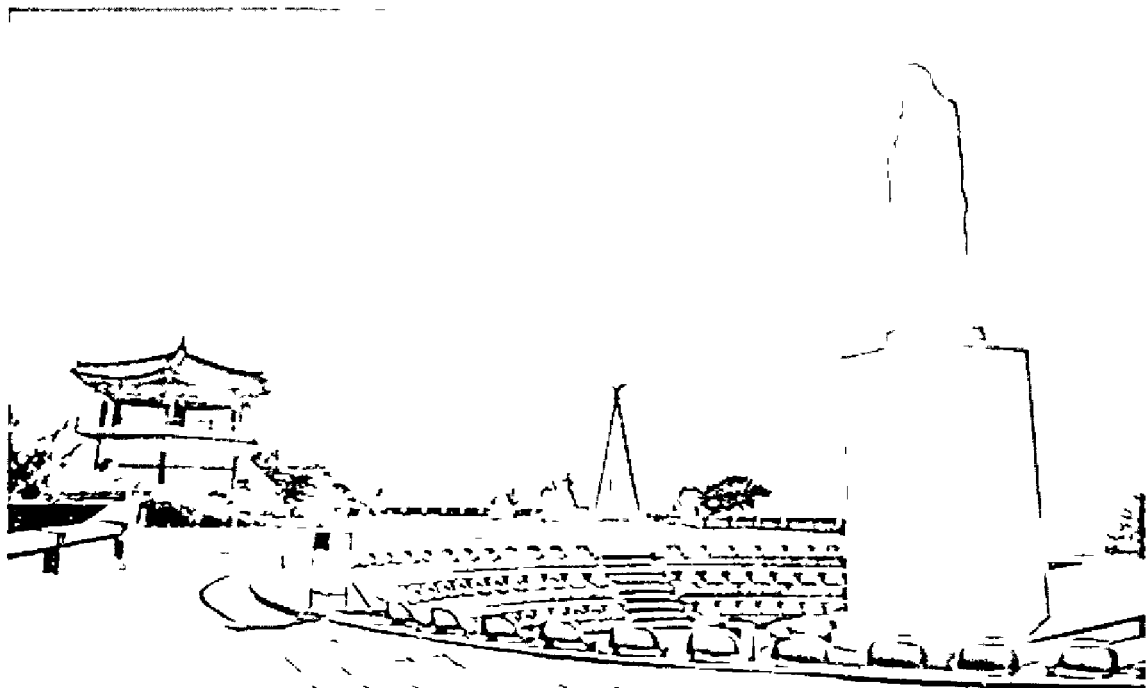
출처 강원도DMZ관광청, <http://www.korea-dmz.com/dmz_home/page/index.asp>

열쇠전망대는 북한 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다 1998년 육군 상층 열쇠부대가 건립하여 열쇠전망대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 2009년 11월에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체험 전시관으로 바뀌었다 과거에는 망원경으로 북쪽을 바라보는 것 외에는 별다른 시설이 없었으나 새로 단장한 이후에는 DMZ의 생태를 보여주는 전시공간과, 병영 비교체험, 최신망원경 등이 구비되어 있다 민통초소에서 신분증을 제시해야지만 들어갈 수 있다

주 소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답곡리 180

(3) 태풍전망대

[그림 II-53] 태풍전망대



출처 강원도DMZ관광청, <http://www.korea-dmz.com/dmz_home/page/index.asp>

휴전선과 가장 가까운 전망대이다 비끼산 최고봉인 수리봉에 자리 잡고 있으며 1991년 12월 3일 육군 태풍부대가 개관하였다 높이는 264m이며, 전망대에서 휴전선까지 800m, 북한군이 있는 초소까지 1,600m 떨어져 있다 한국전 막바지에 참전한 중공군을 지지하기 위해 치열한 전투를 벌였던 피의 능선 등이 태풍전망대 바로 앞의 산지이다

민통초소에 신분증을 제출하고 차량을 이용해 방문할 수 있다 민통초소로부터 전망대로 올라가는 길이 임진강 지류를 끼고 있는데 겨울철에는 두루미 등의 겨울 철새들을 관찰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에서 약 65km, 평양에서 약 140km 떨어져 있다 남방한계선과 북방한계선은 원래 한국전쟁 직후에는 임진강 군사분계선을 기점으로 남쪽 2km 지점에 있었지만, 1968년 북한군이 휴전선 가까스로 철책을 옮겨 오자 국군도 1978년 철책을 부분적으로 옮기면서 이 전망대가 군사분계선과 가장 가까운 전망대가 되었다

전망대에서는 북한 농장이 내려다보이며 맑은 날에는 개성 부근까지 볼 수 있다 가까이 남측의 GP도 볼 수 있다 전망대 내에는 장병들의 종교집회장소인 교회 성당 성모상 법당 종각 등이 있고 실향민들을 위한 망향비와 전적비가 세워져 있다

전망대에서 2km 떨어진 필승교는 임진강이 최초로 남한 지역으로 유입되는 곳인데, 이곳에 자리한 전시관에는 1985년 이후 강으로 떠내려오는 북한의 생활필수품, 일용품, 간첩의 침투장비 등이 전시되어 있다 여느 전망대와는 달리 북쪽을 향하는 전망대의 창이 방탄유리로 되어 있다 옥외에는 한국전쟁에 참전한 소년전차병들의 기념비가 있어서 눈길을 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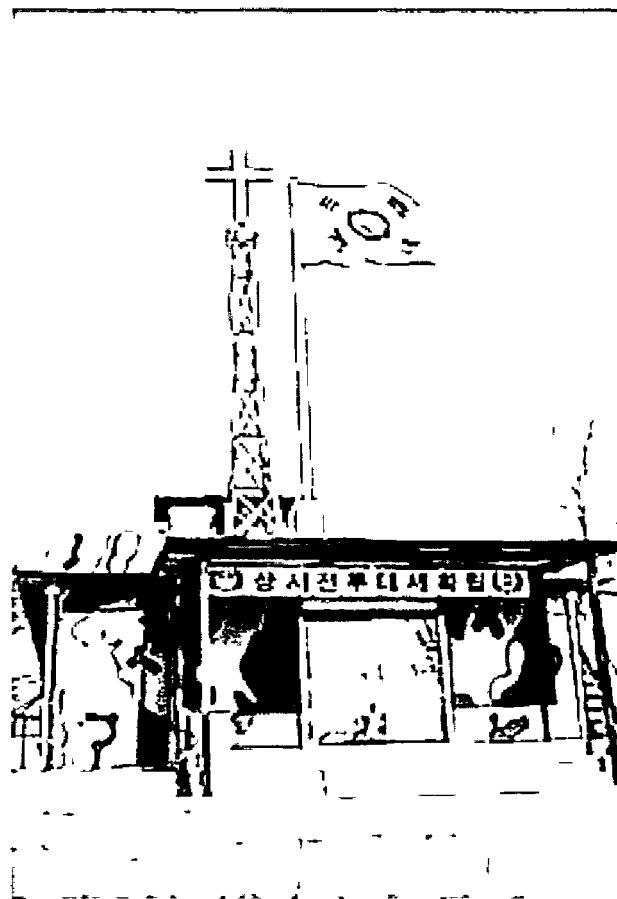
전망대 아래에는 부대시설로 PX가 있어서 저렴한 가격과 간접

적인 병영문화 체험이라는 측면에서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주 소 경기도 연천군 중면 삼곶리 275-1

(4) 상승OP, 제1땅굴, 승전OP

[그림 II-54] 상승O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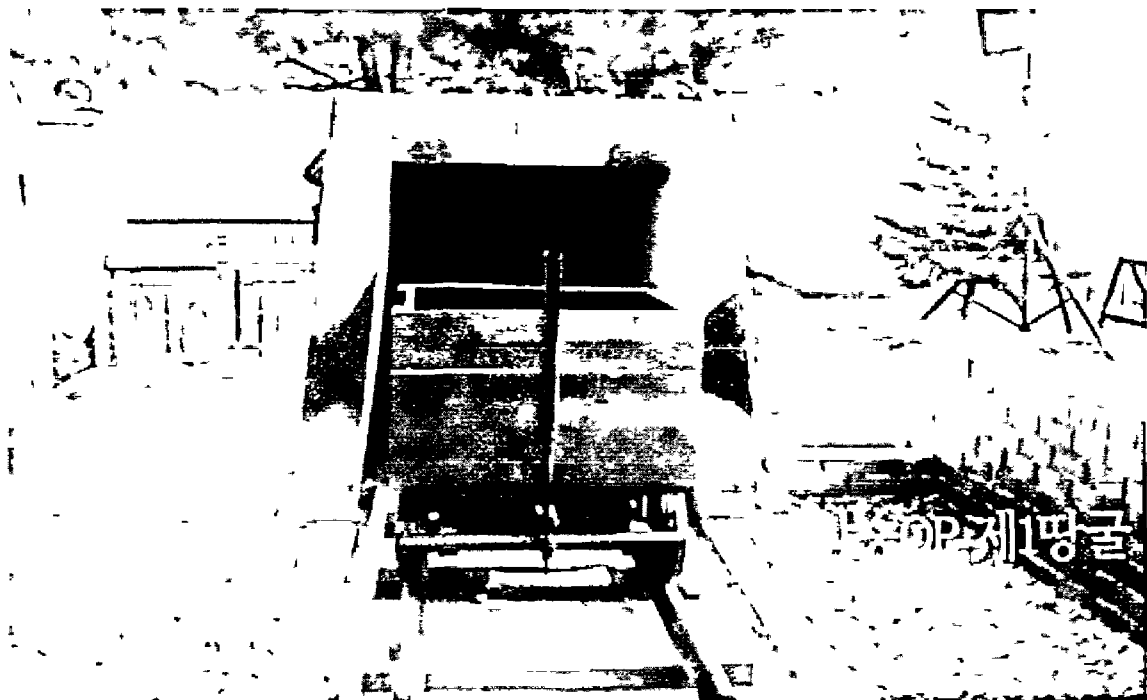


출처 강원도DMZ관광청, <http://www.korea-dmz.com/dmz_home/page/index.asp>

OP(Observation Post)는 적의 활동을 관측하기 위해 운용되는 최전방 관측소로 상승OP의 경계임무는 비룡부대에서 수행하고 있다

초소의 망원경으로 전방의 북한 초소들과 철책선, 북한군인들의 얼굴과 움직임도 볼 수 있다 지금은 DMZ로 변해서 접근이 불가능한 넓은 연천평야도 볼 수 있는데 잡초가 우거진 황무지로 변해 있고 독수리, 참매, 노루, 산양 등 일반 지역에서는 보기 힘든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는 것이 관찰되곤 한다 연천평야를 가로지르는 사미천, 1 21무장공비침투로도 관찰할 수 있다

[그림 II-55] 상승OP에 전시된 제1땅굴모형



출처 연천군청, <<http://lyc21.net/>>

실제 제1땅굴은 DMZ 안에 위치하여 개방할 수 없으므로, 가장 가까운 관측소인 상승OP에 실제 크기의 모형을 만들어 전시 중이다 제1땅굴은 1974년 11월 15일 발견된 남침용 땅굴이다 선임하사 구중섭이 지휘하는 육군 수색조가 임무수행 중에, 땅에 수증기가 올라오는 것을

발견하고 수상하게 여겨 그곳을 파던 중 북한 초소로부터 갑작스런 사격을 받았다 이에 우리 군도 응사하면서 조사를 계속한 결과 땅굴이 그 모습을 드러냈다

이 땅굴은 서울로부터 52km, 개성으로부터 24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지표에서 25m~45m 깊이이며 철근이 세 가닥 들어간 조립식 콘크리트를 사다리꼴로 엮어 튼튼하게 만들었다

당시 ‘7 4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어 남북이 서로 비방을 중지하고 평화적인 통일을 모색하고자 손잡던 시기여서 우리 국민의 충격은 몹시 컸다

방문예정일 최소 5일 전에 안보관광지 출입신청서를 작성하여 백학면사무소로 송부하여야 하며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안보관광신청서는 다음과 같다

주 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우일리 367-5

홈페이지 출입신청서 다운로드

http://lyc21.net/_yc/tour/a06_b02_c02_04.asp

[표 II-2] 민통선북방지역 출입승인신청서

민통선북방지역 출입승인신청서

- 1 출입목적
- 2 출입장소 상송OP/제1땅굴, 121무장공비침투로, 승전OP(해당사항에 표시)
- 3 출입기간 년 월 일 ~ 월 일까지(일간)
- 4 출입차량 및 인적사항
 - 출입차량
 - 차량종류
 - 차량번호
 - 차량운전자
 - 주 소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5 대표자 인적사항
 - 주 소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연 락 처
 - 출입인원 의 명(붙임 연명부 참조)

▶ 구비서류 출입 대표자 각서 1부

※ 참 고 귀하께서 출입하고자 하는 일자 하루 전에 출입 민통초소를 방문하시어 출입승인이 되었는지를 확인하시고 만약 승인이 되어 있지 않았을 경우 백학면사무소(031-839-2735)나 장남면사무소(031-839-2630)로 연락 및 방문하여 주시면 출입승인여부를 확인하여 드립니다

상기와 같이 출입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표 II-3] 민통선북방지역 출입신청 각서

|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width: 100%;"> 각 서 </div> | |
|--|---|
| 성 | 명 |
| 주민등록번호 | |
| 주 | 소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 본인은 북방 출입시는 교부된 출입증을 항상 휴대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다 2 민통선 북방 출입시간을 준수하며 근무자 및 순찰조로부터 검문검색 및 통제에 절대 복종하겠다 3 목적지 외의 지역에서 허가되지 않은 행동을 않겠다
(수렵, 벌목, 군사작전 방해, 불법개간, 임의확대 영농 등) 4 불법무기(엽총, 공기총, 기타), 폭발물, 사진기, VTR 휴대를 금하며 필요 시 사전 승인을 득하겠다 5 차량 운행시 목적지외 통로 이용을 금지하고 규정된 속도를 준수하며 군작전차량이 우선 통과되도록 하겠다 6 차량 운행시 적재함, 트렁크 개방, 확인점검에 응하겠다 7 민북지역 이동시에는 기존 도로를 이용하며 지뢰 및 폭발물 사고로 입은 피해는 본인이 책임을 진다 8 통제사항 위반으로 입은 민간의 피해는 군이 이를 보상하지 않으며 본 규정을 위반하여 군사작전에 지장을 초래할 시는 군사시설 보호법 제17조에 의해 고발조치한다 | |
|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201 년 월 일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margin-top: 10px;"> 서 약 자 (서명 또는 날인) </div> | |

(5) 연천 울무

[그림 II-56] 연천 울무



우리나라 울무의 80%가 재배되는 곳이 연천이다 연천은 민통선 안의 기름진 땅과 맑은 공기, 깨끗한 물, 뚜렷한 기온차를 가진 고랭지지형이기 때문에 울무의 품질이 우수하다 영양밥, 막걸리 등 다양한 형태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울무는 수확 시 낙곡률이 다른 작물에 비해 매우 높는데 이는 화천 근처 임진강 수계로 매년 찾아오는 겨울 철새들에게 매우 좋은 먹이원이 되어 희귀 철새들이 이곳을 찾아오게 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

한편 연천울무의 인기가 높아지자 생산을 늘리려고 산지개간을 임의로 늘리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DMZ 인근 생태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6) 연천 망향비빔국수

[그림 Ⅱ-57] 연천 망향비빔국수



출처 망향비빔국수, <<http://manghyang.com/>>

1 21무장공비침투사건으로 침투지 통로가 있던 마을에 유격부대가 들어온 뒤 부대 후분에다 술을 내걸고 국수를 삶아 판 데서 유래했다 망향비빔국수만의 탱탱한 면이 국수 본연의 맛을 살려주고, 시원한 오이채에 알싸한 백김치가 입맛을 살려준다 군인들을 먹이던 전통이 있어서 그런지 부담스러울 정도로 양이 많고 달달하고 톡 쏘 정도로 매운 양념이 손님들을 이끈다

주소 경기도 연천구 청산면 궁평리 231-2번지
전화 031-532-3575

사 파주시

[그림 II-58] 파주 관광지도



출처 파주시청, <<http://www.paju.go.kr/>>

파주는 평화, 통일, 분단과 관련된 관광지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곳이다. 남북한을 갈라놓은 판문점이 위치하고 있으며, 개성시와 가깝지만 한편으론 서울에서도 대중교통을 이용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다. 파주는 북한이 멀리 있는 나라가 아니라, 바로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을 생생하게 깨닫게 해주는 곳이다.

(1) 임진각 관광지

[그림 II-59] 임진각 전망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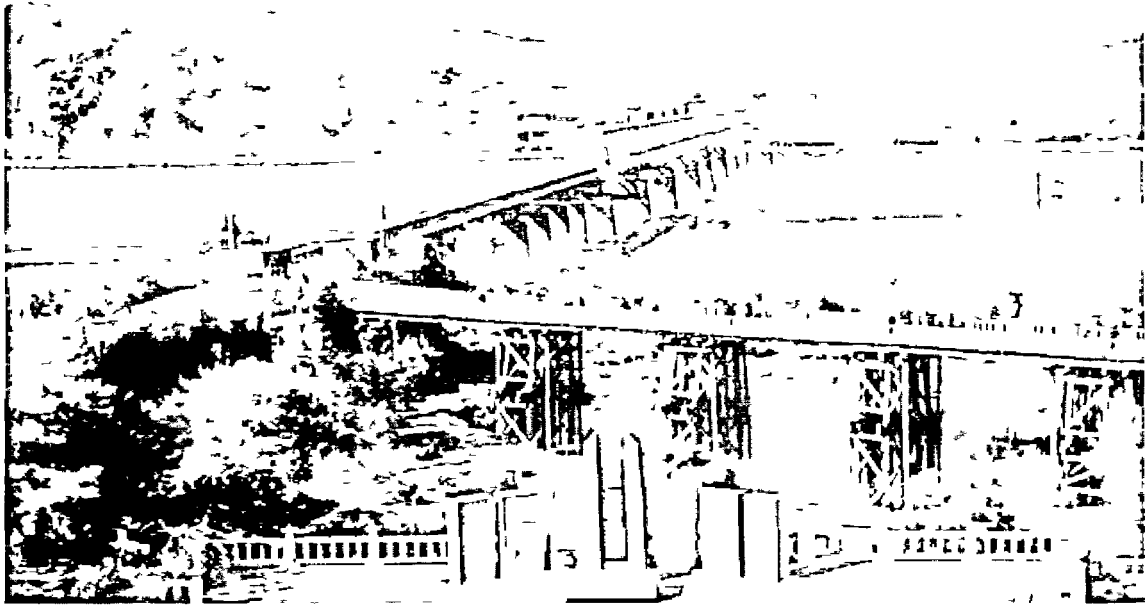
출처 임진각 평화누리공원, <<http://peace.ggtour.or.kr/>>

임진각과 북한기념관, 각종 기념비 및 공원 등으로 이루어진 통일 안보관광지이다 1972년 임진각이 세워진 후 조성되기 시작하여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다

임진각 본관 건너편에는 1986년 9월 26일 조성된 망배단(望拜壇)이 있다 매년 명절 때면 실향민들이 이곳에 와서 고향을 향해 참배하는 곳으로 향로와 망배탑이 있다

망배단 뒤쪽에는 1953년 건설된 자유의 다리(경기기념물 제162호)가 놓여 있다 길이 83m, 너비 45~7m, 높이 8m로 목조와 철조를 혼합하여 만들었다 1953년 휴전협정 이후에 한국군 포로 12,773명이 자유를 찾아 귀환한 다리라고 해서 ‘자유의 다리’라는 이름이 붙었다

[그림 II-60] 임진각 자유의 다리



출처 해피마이즈, <<http://www.happymize.com/>>

통일로와 자유로를 통한 서울에서의 접근도 편리해 가족단위의 나들이객이 많이 찾으며 매년 2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다

[그림 II-61] 임진각 평화누리공원



출처 임진각 평화누리공원, <<http://peace.ggtour.or.kr/>>

주 소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마정리 1320-1
전화번호 평화누리공원 031-953-4853 / 임진각 관광안내소 031-953-4744
홈페이지 <http://peace.ggtour.or.kr>

(2) 도라전망대, 제3땅굴

[그림 II-62] 제3땅굴 관람차



출처 임진각 평화누리공원, <<http://peace.ggtour.or.kr/>>

75년 제2땅굴, 76년 판문점 도끼만행사건에 이어 78년 10월 제3땅굴이 발견되었다 이 땅굴은 귀순자가 증언해 발견한 것으로 판문점 남쪽 4km 지점에 있다 땅굴 300m를 모노레일을 타고 돌아볼 수 있다 땅굴이 낮기 때문에 관람 시 헬멧을 꼭 착용하여야 한다

도라전망대는 서부전선 최북단의 전망대이다 망원경을 이용하면 개성시 변두리, 김일성 동상들을 볼 수 있다 대성동 자유의 마을과 북한 기정동 마을도 같이 보인다 한국전쟁 당시 국군이 이곳을 사수해 이 지점 위로 군사분계선이 그어진 역사적인 장소이기도 하다

임진각 관광지 DMZ 매표소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티켓을 구입하면 관람이 가능하다 사진촬영은 금지이다 하지만 신분증이 없으면 동승자의 신분보장으로 관람이 가능한 점이 다른 안보 관광지와는 조금

다르다 월요일과 법정공휴일에는 휴무이다

이 안보관광 코스와 연계해서 북한으로 가는 첫 번째 역인 도라산역
도라산평화공원의 관람도 가능하다

주소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점원리 1085-1
전화번호 제3땅굴 관광안내소 031-0940-8345

(3) 오두산 통일전망대

[그림 II-63] 파주 오두산 통일전망대



출처 코리아DMZ협의회 자료

1992년 9월 8일 개관하였다 한강과 임진강이 만나는 오두산은 예로부터
서울과 개성을 지키는 군사적 요충지로 고대 산성유적이 아직도 남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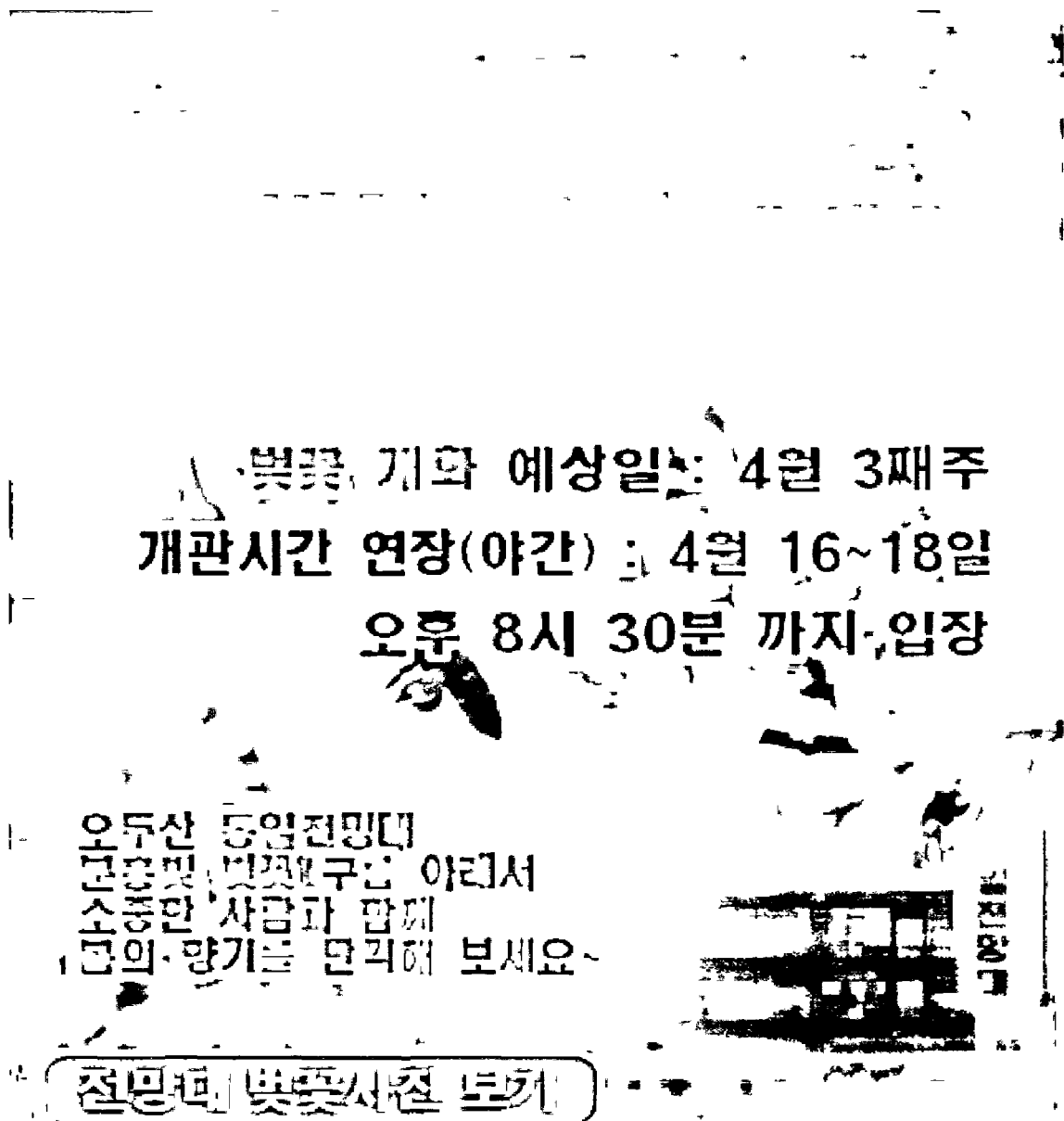
전망대 바로 앞에는 임진강이 흐르고 그 강 바로 건너편에는 북한의
선전마을이 자리잡고 있다 해발 140m의 높이에 자리잡은 원형 전망실
에서는 북한 개성시의 송악산이 보이고 북한 주민들이 농사짓는 모습도
볼 수 있다 안보영상 상영실 등이 마련되어있다

그밖에 추석과 설날 등 명절을 맞아 이산가족들이 북한에 두고 온

조상들을 추모하는 망배단, 지름 2m, 무게 600kg의 거대한 통일기원북, 조만식 선생 동상 등이 있다

한편 오두산 통일전망대는 남한에서 벚꽃이 가장 늦게 지는 곳으로 유명한데 늦은 봄 전망대를 오르는 길을 따라 수령이 오래된 벚나무들이 만개했을 때 장관이 펼쳐진다

[그림 II-64] 오두산 통일전망대 벚꽃시즌 공지



벚꽃 개화 예상일 : 4월 3째주
개관시간 연장(야간) : 4월 16~18일
오후 8시 30분 까지 입장

오두산 통일전망대
벚꽃길, 벚꽃구경 아래서
소중한 사람과 함께
봄의 향기를 만끽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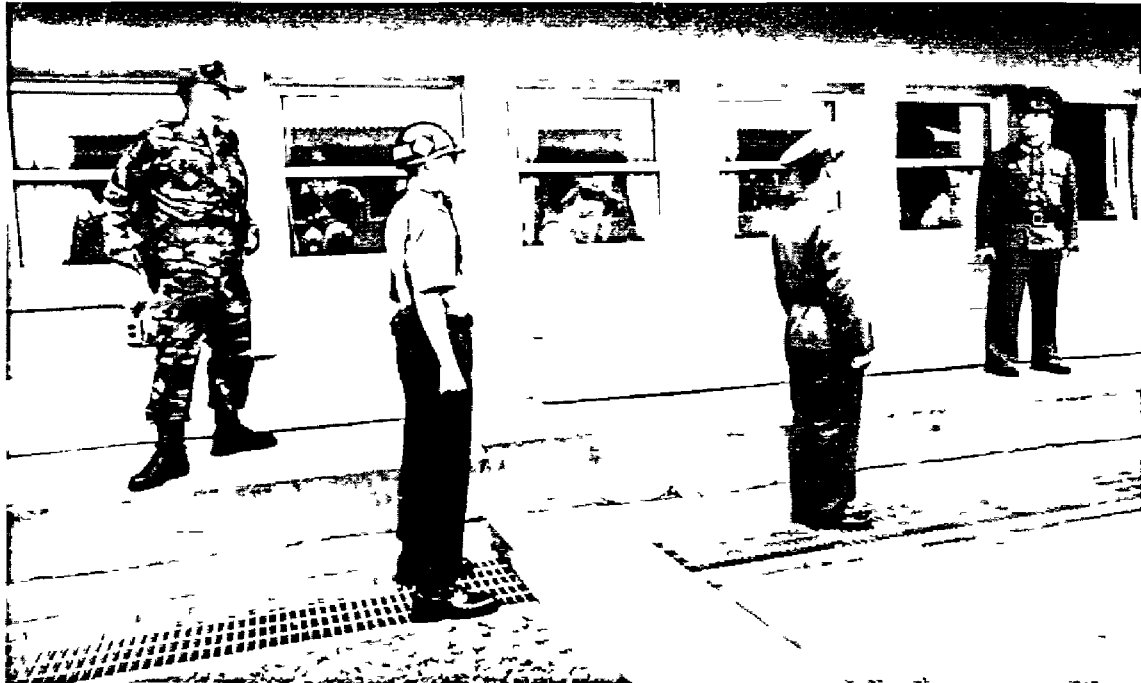
전망대 벚꽃시즌 안내

출처 오두산 통일전망대, <<http://www.jmd.co.kr/>>

주소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 659
전화번호 1666-3171
홈페이지 <http://www.jmd.co.kr/>

(4) 공동경비구역(JSA)

[그림 II-65] 공동경비구역 내 군사분계선



출처 국방부, <<http://army.mil.kr>>

한국전쟁 전에는 ‘널문리’라는 작은 마을이었으나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열리면서 중국어 표기를 위해 판문점으로 고쳐 부르게 되었다

유엔군과 북한군이 공동으로 경비를 맡는 공동경비구역은 서울에서 50km, 개성에서 10km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남북으로 각각 16km 구간에 설정된 장방형의 구역이다 안에는 군사정전위원회의 본회의장, 중립국감독위원회 캠프, 자유의 집, 판문각 등 24개의 건물이 있다 공동경비구역이 설치된 직후에는 쌍방의 군사정전위원회 관계자들이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었으나 76년 도끼만행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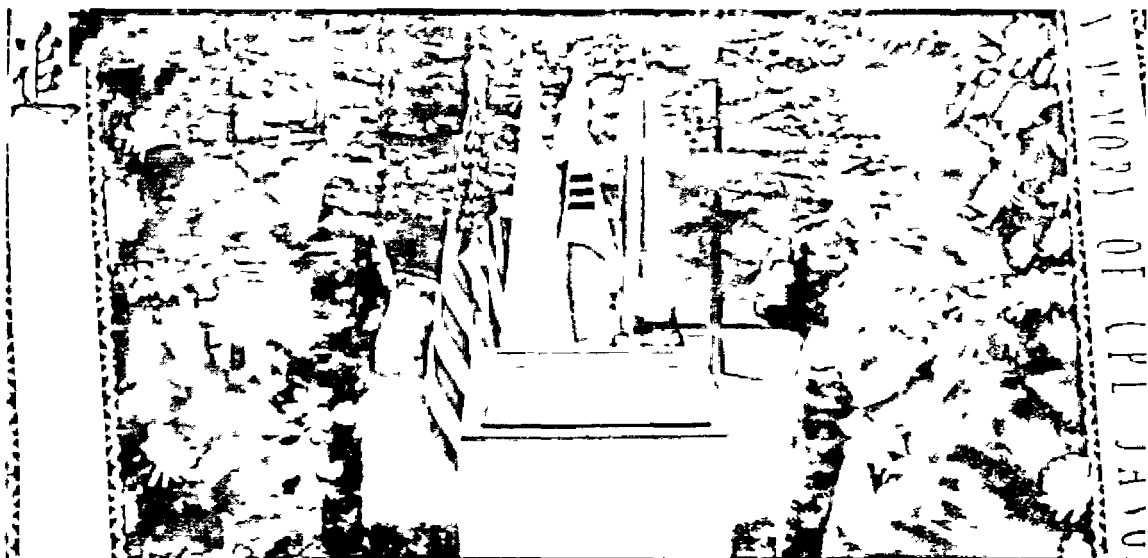
이후 상호충돌방지를 위해 서로 왕래를 철저히 금지하고 있다 판문점 경비대대가 짙은 선글라스를 끼고 근무하는 이유 중 하나도 불필요한 오해와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판문점은 남북한 분단 역사의 상흔이기도 하지만 남한과 북한을 이어주는 유일한 육로창구이기도 하다 정전협정 체결 직후 포로교환이 여기서 이루어졌으며, 이후 남북적십자회담, 남북총리회담 등을 개최해 팽팽한 긴장 속에서도 평화를 위한 역할을 해오고 있다

내국인은 희망 방문은 단체관람(30~43명)에 한해 국가정보원에 최소 1개월 전에 신청하면 되는데, 신원조회 후 결격사유가 없으면 관람이 허용된다

(5) 장명기 상병 추모식

[그림 II-66] 공동경비구역 내 장명기 상병 추모식



출처 KBS, '대한민국의 최전방, 공동경비구역 JSA를 가다,' (서울 KBS, 2008)

공동경비구역 선큰가든(Sunkon Garden)에서는 매년 11월 23일 장명기 상병 추모식이 엄수된다 1984년 11월 23일 11시 30분경 당시

소련인 기자 한 명이 군사정전위원회 회담장면을 찍던 중 갑자기 건물과 건물 사이의 군사분계선을 넘어 망명을 요청해왔다 이에 한국군 경비병들은 그를 대피시키게 되었으며 이에 당황한 북한군이 월남을 저지하고자 권총을 발사하며 경고하였고 실패하게 되자 곧바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쪽 150m까지 침범해 자유의 집 앞 연못(현재는 정원)까지 내려왔다 이때 군사분계선을 침범한 북한 경비병은 총 17명이었으며 연못을 중심으로 30여 분간의 총격전이 이루어졌다 북한군의 총격에도 불구하고 소련인은 무사하였으나 이 총격전으로 인해 한국군 장명기 상병(당시 일병)이 사망하고 미군 1명이 부상하는 희생이 뒤따랐다 북한군도 3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을 당하는 피해를 입었다

자신의 임무를 다하고 산화한 장명기 상병을 기리기 위해 매년 추모식을 개최하는데, JSA경비대대 장병, 중립국감독위원회, 한미연합군지휘부 인원 대부분과 유족들이 참석한다 추모식이 열리는 선큰가든은 장명기 상병이 사망한 지점이다

(6) 파주 장단콩

[그림 II-67] 파주 장단콩



출처 파주 장단콩마을, <<http://kgfarm.gg.go.kr/farm/00216/>>

1913년 일제는 장단지역에서 수집한 재래종 콩들 중에서 ‘장단백목’이라는 장려품종을 선발하였다. 콩의 색깔은 노랗고 껍질이 얇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장단백목’은 한반도 최초의 보급품종 콩이다.

원래 민통선마을 안에서 통일촌 사업에 의해서 재배되던 것이 DMZ의 청정자연 이미지에 힘입어 1990년대 이후 신토불이 바람과 웰빙 바람을 타고 크게 인기를 끌게 되었다.

사실 장단콩을 일제시대 보급된 품종이라 현재 다른 곳에서 재배하는 백태보다 뛰어난 풍미를 자랑하거나 생산량이 높은 것은 아니다.

따라서 DMZ와 청정자연의 이미지가 장단콩의 보급에 제일 큰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임진각 안보관광지를 통해서도 구할 수 있으며, 인터넷과 전화 등으로 주문이 가능하다. 임진각공원이나 파주 헤이리 예술인마을 등 인근의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에 장단콩을 재료로 한 두부음식점들이 성업 중이다.

[그림 II-68] 파주 장단콩두부음식점



출처: 코리아DMZ협의회 자료

장단콩의 인기에 힘입어 파주시의 주최로 매년 임진각광장에서 파주 장단콩축제가 개최하고 있다 장단콩과 장단콩을 사용하여 만든 다양한 음식의 판매는 물론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여, 인기를 끄는 지역축제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림 II-69] 2011년 장단콩축제 포스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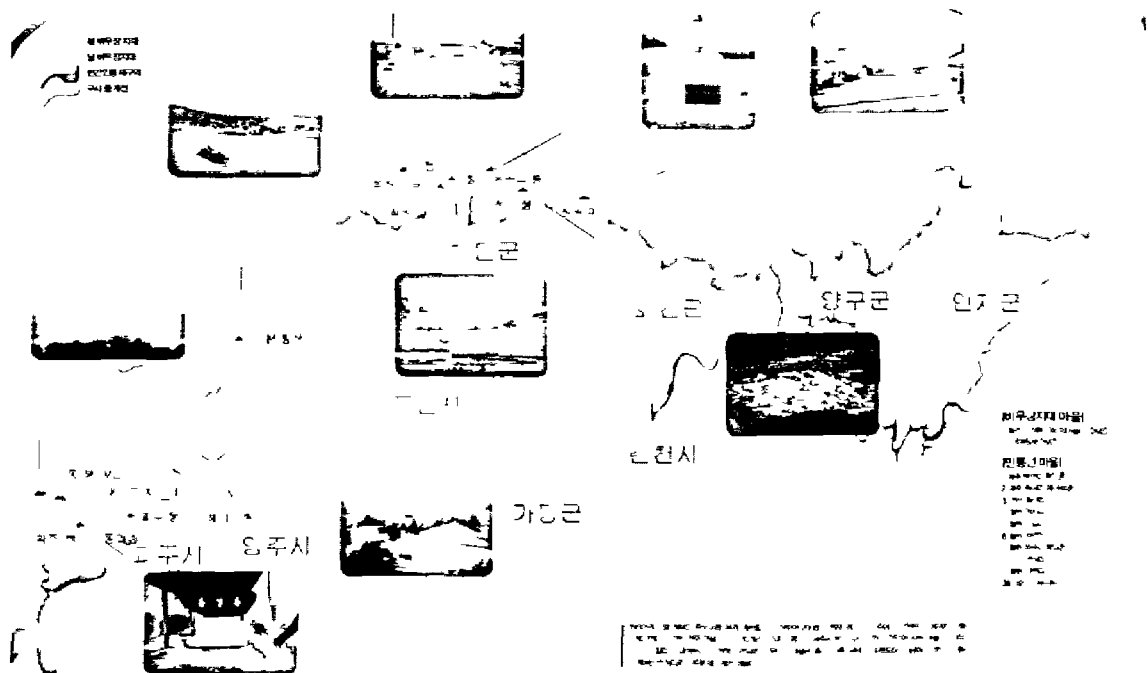


출처 파주시 축제홈페이지, <<http://festival.paju.go.kr/>>

Ⅲ. DMZ의 마을

[그림 III-1] DMZ의 마을

민통선 마을



출처 녹색연합 『DMZ 155마일을 걷다 2008 비무장지대일원 환경실태 보고서』
(서울 도서출판 작은것이 아름답다, 2008), pp 41~42

민통선은 DMZ 일대의 군사작전과 군사시설 보호, 보안유지를 위해 정전협정이 체결된 뒤인 1954년 설정되었다 설정 당시에는 민간인의 영농활동을 제한하는 ‘귀농선’으로 관리되다 1958년 출입영농과 입주영농이 허가되면서 ‘귀농선’이 ‘민간인통제선’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민통선의 통제권이 한국군에게 이양된 뒤, 국토 이용의 제고와 북한의 계획된 선전촌 건설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게 되면서 1959년부터 99개의 자립안정촌을 건설하기 시작하였다

1960년대 말부터 정부주도 아래 민통선마을이 본격적으로 개척되기 시작하였다 1968년부터 한국 정부는 ‘민통선북방유휴지 개발’과 ‘대북 심리전 효과증진’을 위해 제대 장병들과 영세민들을 중심으로 민통선

마을을 조성하고 집단이주시켰다 같은 이유로 한국 정부는 1968~1973년에 12개의 재건촌을 건설하고, 1973년 경기도 파주와 강원도 철원에 각각 하나씩 통일촌을 건설하였다

1980년대 중반부터 주민들의 출입절차가 간소화되고, 영농활동에 따른 시설규제 완화에 대한 요구가 쌓이면서 민통선이 북상하기 시작했다 현재 경기도 파주에서 강원도 고성까지 민통선 이북지역에 있는 민간인 거주 마을은 10개이다

1 대성동 자유의 마을

행정구역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조산리 (DMZ 안쪽에 위치)

파주시 군내면 조산리 대성동에 위치한 일명 ‘자유의 마을’은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DMZ 안에 위치해 있다 대성동은 한국전쟁 이전부터 사람들이 거주했었다 정전협정이 체결된 직후인 DMZ의 원래 거주하던 민간인은 계속 거주할 수 있다는 「정전협정문」에 의해 판문점 남쪽에 위치한 대성동은 원래 살던 주민들 위주로 복구되었다 북한의 선전마을인 기정동에 대항하기 위해 복구가 빨리 진행되었다 냉전 당시 대성동에는 100m 높이, 기정동에는 160m의 높이의 국기게양대가 세워졌고 현재까지 남아 있다 한국전쟁 이전 대성동의 행정구역은 장단군 군내면 조산리였다 1962년 행정구역이 개편되면서 파주군에 속하게 된다

2 백연리 통일촌

행정구역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백연리

1973년, 파주시 군내면 백연리 마을은 ‘통일촌’이라는 이름으로 조성되었다. 한국전쟁 전에도 사람들이 살던 마을이었기에, 정부는 실향민 40세대, 제대군인 40세대로 구성하여 80가구를 입주시켰다. 입주할 당시 가구당 8천 평의 토지를 임의로 나눠 주었다. 그러나 1982년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 시행되면서 경작자인 백연리 주민과 원토지 소유자 간에 소유권 분쟁이 시작되었다. 갈등이 심각해지자 정부가 용자를 지원하여 백연리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일부 땅을 원소유자에게 매입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나머지는 원소유자의 소유권이 인정되었다. 현재에도 소작의 형태로 농사를 짓는 주민들이 많다.

3 동파리 해마루촌

행정구역 경기도 파주시 진동면 동파리

파주시 진동면 동파리 ‘해마루촌’은 민통선마을 가운데 가장 최근에 조성된 마을이다. 다른 민통선마을들이 냉전 시절, 체제강화를 위한 선전촌의 성격으로 조성된 것에 반해 해마루촌은 한국전쟁 당시 마을을 떠났던 실향민들의 건의에 의해 만들어진 정착촌이다. 1971년부터 출입영농이 허가되어 농업활동을 이루어지고 있었다. 2001년 지역 실향민들의 계속된 요구에 따라 파주시청이 마을을 조성하였고 60여 가구가 입주하였다.

4 황산리

행정구역 경기도 연천군 중면 황산리

황산리 마을은 임진강의 충적지대에 자리한다 본래 연천현 북면이었으나,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중면에 편입되었다 해방 후 북한의 통치 하에 있었으나, 한국전쟁을 통해 수복되었다 남방한계선과 인접한 민통선 지역이라 출입영농만 허락되다가 1977년 10세대가 입주하여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 이 마을에는 제대한 군인들이 주로 들어왔다 처음 입주민들은 골짜기에 흩어져 살았다 그러다 1986년 정부의 농경지확장 정책의 일환으로 행정리로 승인이 되면서 41가구가 입주해 살기 시작했다 당시 국가의 지원을 받아 집 40채를 지었다 바둑판처럼 정연하게 집들이 지어졌는데, 이는 황산리가 북한 오장동 집단농장에 대응하기 위한 선전용 마을이기 때문이다

5 양지리

행정구역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양지리

한국전쟁 후 20년 동안 방치되었던 양지리는 1972년 입주를 시작해 1973년 100가구가 입주를 완료했다 정부의 국토활용 정책에 따라 민통선 북방의 유휴지 개발을 위해 조성된 마을로 입주 초기에는 본인 소유의 땅이 3천 평 이상인 사람만 입주할 수 있었다 당시 정부가 집을 지어주는 비용으로 가구당 12만 5천 원(당시 쌀 14가마 값)이나 지급했다 대부분의 입주자가 자신의 경작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민통선마을에서 나타나는 토지분쟁은 일어나지 않았다

1990년대 초반 봄이 되었는데도 탈진해서 북쪽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독수리에게 양지리 주민들이 먹이를 주기 시작했다 그 뒤로 철새들의 개체 수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겨울 철새 먹이주기는 1998년에 이르러 공식행사로 자리 잡았다 지금은 양지리 주민들이 조직한 한국두루미보호협회를 중심으로 겨울철새보호활동을 하고 있으며 ‘철새마을’로 이름이 알려지고 있다

6 정연리

행정구역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정연리

갈말읍 정연리는 1972년 120가구 주민들이 입주했다 입주한 주민은 대부분 평강군 출신의 실향민들이었다 이들은 전쟁 뒤 고향을 떠나 월남하여 갈말읍 여러 곳에 흩어져 살다가 정부의 이주정책으로 마을을 구성하였다 한국전쟁 이전에는 북한 평강군에 속해 있었으나 한국전쟁 후 행정권이 철원군에 이양되었다 그 뒤 1972년 갈말읍에 편입되었다 1980년 같은 마을 60여 가구가 바로 옆 동송읍 이길리로 분가하였다 1996년 홍수로 마을이 모두 수몰되는 참사를 겪은 뒤 정연리 1, 2반이 기존 마을에서 북쪽 산기슭으로 이주하여 신정연리로 이름을 바꾸었다

7 유곡리 통일촌

행정구역 강원도 철원군 근북면 유곡리

근북면 유곡리 통일촌은 파주 백연리 통일촌과 역사적 맥락을 같이 한다 1973년 정부의 주도로 민간인 30세대, 제대군인 30세대가 입주했

다 당시 민간인 가운데 마을 원주민은 3~4가구밖에 없었다 입주 시 정부는 가구마다 땅을 6천 평씩 나누어 주었는데 이것은 토지의 소유권을 준 것이 아니라 경작할 권리만 준 것이다 특별조치법이 시행되면서 원소유자가 토지를 되찾기 시작했고, 소유권이 불분명한 땅은 국가소유가 되었다 그 뒤 2000년 유곡리가 금강산선 남한 종착역이라 소문에 의해 땅투기가 집중되면서 토지 소유관계는 더욱 복잡해졌는데 심지어 한 구역에 소유자가 20명인 땅도 있다 행정구역으로는 근북면 유곡리이나 행정처리는 김화읍에서 관할한다

8. 생창리

행정구역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생창리

생창리는 1970년 103가구가 입주하였다 생창리 출신의 원주민 3가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제대군인 출신으로, 예비군 성격의 마을이었다 입주 초기에는 예비군의 역할과 농사일을 병행했다 생창리의 토지분쟁은 다른 곳과는 다른 형태로 진행되었다 특별조치법이 시행되고 나서 주민들이 개인이나 국가로부터 토지를 매입하였다 그러나 2000년 들어와서 원소유자가 일제시대 등기를 가지고 나타나는 일들이 벌어졌다 특별조치법 시행 초기에 국가와 개인이 미복구된 땅에 대해 임의로 등기를 내고, 그것을 다시 거주민들에게 팔았던 것이다 아직도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며 많은 주민들이 임대료를 내고 농사를 짓는다

9. 마현1, 2리

행정구역 강원도 철원군 근남면 마현1리, 마현2리

마현1리는 1959년 사라호 태풍으로 집을 잃은 경북 울진의 주민 364명이 1960년 4월 집단이주하여 조성된 마을이다 북한의 선전촌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필요와 맞아떨어졌으며, 이 마을에서는 아직도 경북 방언을 사용하며, 울진지역의 전통음식인 덩병김치를 담가먹는다고 한다

마현2리는 한국 정부의 간첩대비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되었다 1968년 처음 50세대가 입주하여 농사를 지으며 경계근무를 하였다 입주 당시 가구마다 토지를 5천 평씩 나누어 주었는데, 군부대에 의해 한 논마다 9백 평씩 정리된 땅이었다 토지 소유권은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고, 현재도 정부 소유의 땅이 상당수여서 정부에 임대료를 내고 농사를 짓는 가구가 많다

IV. DMZ의 영화

DMZ는 분단과 한국전쟁의 상징으로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많은 작가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많은 작품의 주제가 되었다 DMZ와 관련된 장소들마다 평화와 안보를 염원한 조각 작품들이 항상 그 주변을 꾸미고 있다

이 장에서는 DMZ를 주제로 한 예술 작품들 중에서 영화라는 도구를 통해 표현된 DMZ에 관해 정리하고자 한다 분단과 평화, 비무장과 무장이 공존하는 혼돈스러운 땅 DMZ는 영화감독들에게 충분히 매력이 있는 곳이다

하지만 2000년대 이전의 영화들은 DMZ 일원에서 한국전쟁 당시 있었던 영웅적인 국군의 전투를 단순히 묘사하는 것에 그쳤다 이는 DMZ의 복합적인 의미를 부각시키지 못하며 동시대적인 의미 또한 제공하지 못한다고 판단된다

DMZ의 의미를 대중들에게 환기시킨 최초이자 최고의 공로자는 바로 ‘공동경비구역 JSA’라고 할 수 있다 이 영화의 파급력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DMZ와 공동경비구역에 대한 관심이 환기되었다 이 영화 이후로 DMZ를 그저 근대의 한 전쟁터로서가 아닌, 긴장과 평화의 소망이 공존하는 땅으로서의 의미를 담으려는 영화들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1. 공동경비구역 JSA

[그림 IV-1] 공동경비구역 JSA 포스터



개봉 2000년 9월 9일

감독 박찬욱

출연 송강호 (오경필 중사 역),
이병헌 (이수혁 병장 역),
이영애 (소피E 장 소령 역),
김태우 (남성식 일병 역),
신하균 (정우진 전사 역)

영화의 배경이 되는 곳이 DMZ 안의 JSA이다 JSA 경비대대의 병사들과 북한군 사이의 금지된 교류를 통해 이념적 대립이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별 문제가 아닌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과, 한편으로 거대한 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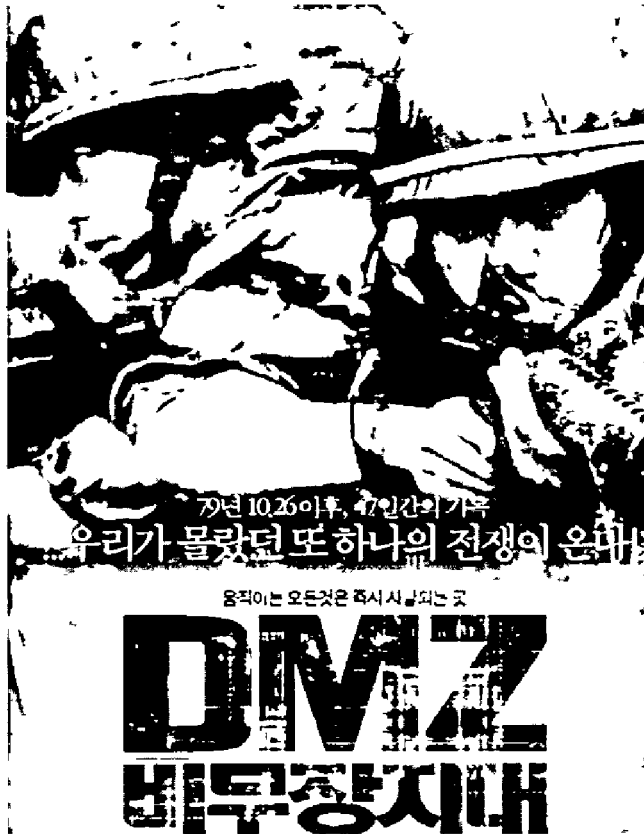
출처 네이버 영화, <<http://movie.naver.com/movie/bi/m1/basic.nhn?code=15899>>

조적 대립 앞에서 나약해지는 개인의 모습을 보여준다 JSA는 이념이 개인을 억압하는 통로인 동시에, 인간의 관계성을 회복시킬 수 있는 길임을 암시한다

JSA와 DMZ에 대한 관심, 나아가 북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데 지대한 공헌을 했다

2 DMZ, 비무장지대

[그림 IV-2] DMZ, 비무장지대 포스터



출처 네이버 영화, <<http://movie.naver.com/movie/bi/mi/basic.nhn?code=32620>>

개봉 2004년 11월 26일

감독 이규형

출연 김정훈 (김지훈 일병 역)

박건형 (이민기 병장 역)

정채경 (북한군

리상호 상위 역)

영화의 제목부터 배경까지 모두 DMZ이다 땅굴탐지와 DMZ 내에서의 교전, GOP 내의 생활상이 자세하게 그려졌다 메시지가 명확하지 못하고 스토리도 대중들의 흥미를 끌지 못해서 흥행에 성공하지는 못했으

나 DMZ를 지키는 장병들의 문화를 잘 묘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3. 태극기 휘날리며

[그림 IV-3] 태극기 휘날리며 포스터



출처 네이버 영화, <<http://movie.naver.com/movie/bi/mi/basic.nhn?code=36666>>

개봉 2004년 2월 5일

감독 강재규

출연 장동건 (이진태 역),
원빈 (이진석 역),
이은주 (영신 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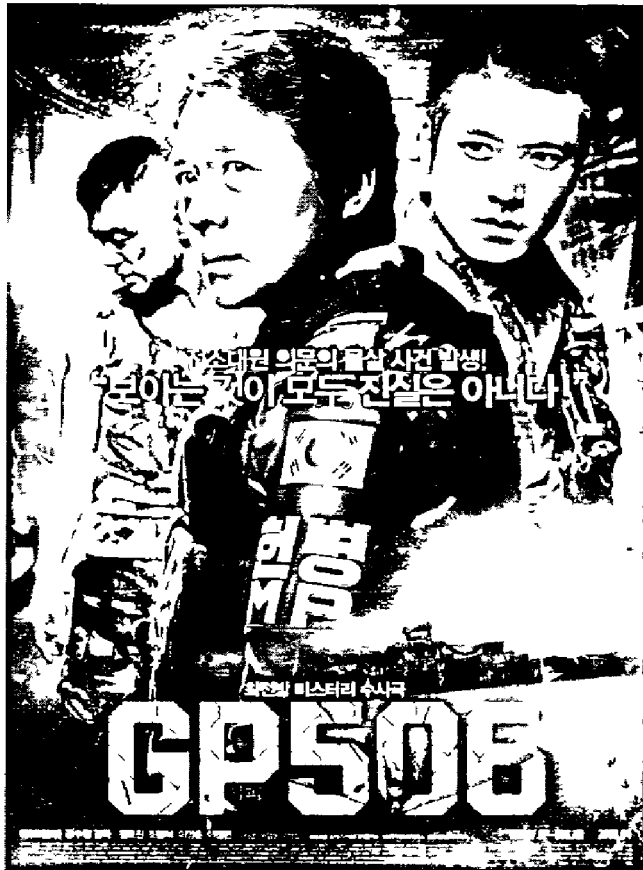
이념도 사상도 없이 오직, 동생의 생존을 위한다는 이유 하나로 전쟁영웅이 되어가고 있는 ‘진태’와 전쟁을 통해 스스로 강해져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진석’은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고 승승장구하며 평양으로 진격한다 하지만 오해로 인해

진태는 국군이 진석을 죽였다고 생각하고 군국에 대한 복수심만으로 북한군에 들어간다 형제가 적이 되어 최후로 만나는 곳이 DMZ 일원에서 고지전이 벌어지던 곳이며, 전쟁의 비극 가운데 두 형제는 만남과 이별을 동시에 겪게 된다 이후 진석은 유해 발굴작업을 통해 진태와 다시 만나게 된다

전쟁이 이념과 상관없는 사람들마저 얼마나 비참하게 만드는 비극인지 잘 보여주고 있으며 DMZ가 만남과 헤어짐의 장소로 등장한다

4 GP506

[그림 IV-4] GP506 포스터



출처 네이버 영화, <<http://movie.naver.com/movie/bi/mi/basic.nhn?code=66215>>

개봉 2008년 4월 3일

감독 공수창

출연 천호진 (노성규 원사 역),
조현재 (유정우 중위 역),
이영훈 (강진원 상병 역),
이정현 (군의관 역),
김병철 (윤하사 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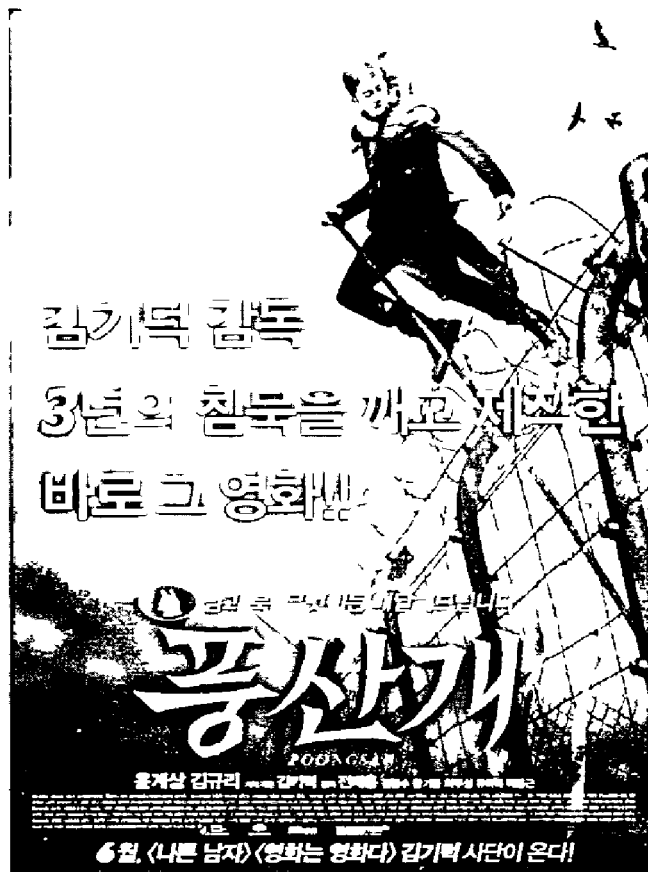
GP 안에서 벌어지는 의문의 죽음을 파헤치는 미스터리물이다 GP는 DMZ 안에 존재하는 중무장을 갖춘 최전방 경계초소이다 GP의 주요임무는 북한군의 군사활동을 최전선에서 감시하고, 침투나 매복을 발견

했을 시 조기 대응하는 것이다 특수인가를 받은 군인들만이 교대로 들어가서 2개월씩 교대로 근무한다

감독은 DMZ와 GP의 고립성을 영화적 장치로 이용하였다 흥행결과가 썩 좋지는 않지만 DMZ 안에서 고생을 감수하며 근무하는 군장병들이 있다는 것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5 풍산개

[그림 IV-5] 풍산개 포스터



출처 네이버 영화, <<http://movie.naver.com/movie/bi/mi/basic.nhn?code=79159>>

개봉 2011년 6월 23일

감독 전재홍

출연 윤계상 (풍산 역),
김규리 (인옥 역),
김종수 (망명남자 역),
한기중 (과장 역),
최무성 (팀장 역)

서울에서 평양까지 어떤 물건이든 3시간 안에 배달하는 의문의 남자가 있다 남한의 정보기관은 북에서 남으로 망명한 북측 고위급 인사의 애인을 데리고 오는 데 이 남자를 이용한다 이 남자와 북한 고위급 인사의

애인은 사랑을 느끼나 결국 모두 죽고 만다

영화 가운데 주인공 남자는 정보기관으로부터 어느 편에 속하였는지 대답할 것을 강요받지만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는다 이는 그가 남에도 북에도 속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영화의 배경으로 사용되는 DMZ도 서로의 영향력이 완벽하게 미치지 못하는 지역이다 주인공이 장대로 철책을 넘듯이 DMZ가 남북한이 통할 수 있는 길이 되길 기대한다

6. 고지전

[그림 IV-6] 고지전 포스터



출처 네이버 영화, <<http://movie.naver.com/movie/bi/mi/basic.nhn?code=74315>>

개봉 2011년 7월 20일

감독 장훈

출연 신하균 (강은표 역),
고수 (김수혁 역),
이제훈 (신일영 역),
류승수 (오기영 역),
고창석 (양호삼 역),
김옥빈 (저격수 2초 역)

한국전쟁 막바지 휴전협정이 완전히 조인되기 전까지 마지막 한 치의 땅이라도 더 뺏기 위해 DMZ 일원에서 벌어졌던 고지전을 배경으로 한다 수십 차례 고지의 주인이 바뀌던 어느

순간, 퇴각하며 땅에 물건과 편지를 묻어놓는 방법으로 남과 북의 병사들은 서로의 물건을 교환하고 편지를 전달한다 하지만 이들의 아슬아슬한 우정도 마지막 고지탈환 작전¹⁶으로 인해 끝나게 된다 죽음 앞에

¹⁶ 정전협정문은 조인된 후 12시간 이후 효력이 발생되게 되어 있어서, 정전협정 직후 한국전쟁의 마지막 12시간 동안 DMZ 일원에서의 남북의 군인들은 한 치의 땅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하여 많은 희생을 치러야 했다 이와 관련한 정전협정문의 내용을 다음과 같다 제2조 停火 및 停戰의 구체적 조치가 총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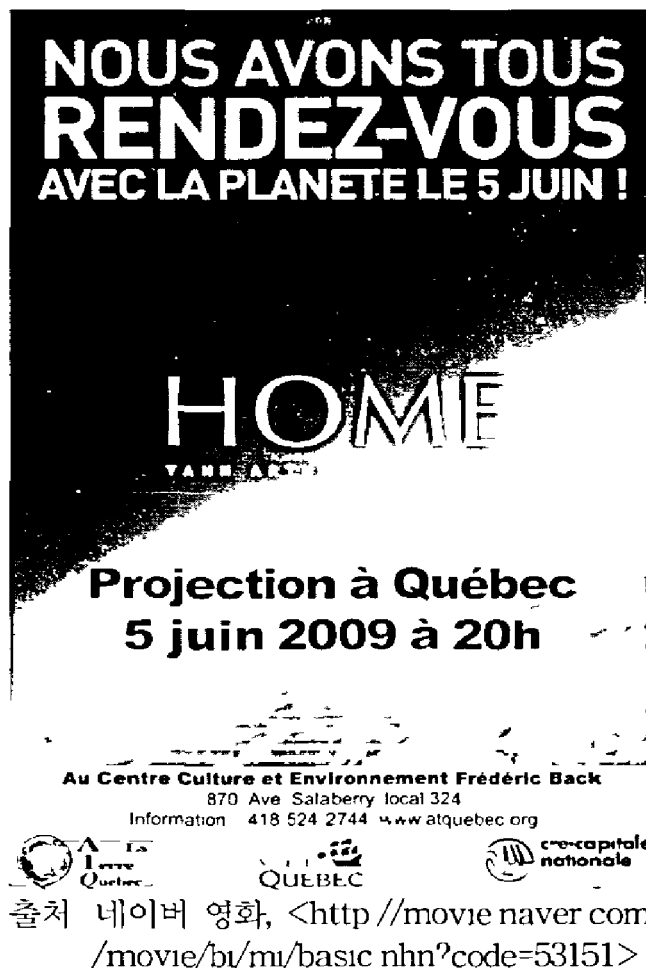
12 적대 쌍방 사령관들은 육해공군의 모든 부대와 인원을 포함한 그들의 통제하에 있는 모든 武裝力이 한국에 있어서의 일체 적대행위를 완전히 정지할 것을 명

서 그들은 서로가 편지를 주고받던 상대임을 알게 된다

기존의 JSA류의 영화와 같이 이 영화에서도 DMZ는 인간적 소통을 차단하고 서로를 죽이게 만드는 거대한 구조로 묘사되지만, 그 틈새에서도 인간애를 펼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다

7. 홈(Home)

[그림 IV-7] 홈 포스터



출처 네이버 영화, <<http://movie.naver.com/movie/bi/mi/basic.nhn?code=53151>>

개봉 2009년 6월 5일

감독 얀 아르튀스 베르트랑
(Yann Arthus-Bertrand)

얀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진작가이다 특히 열기구 등을 타고 하늘에서 아래의 자연을 조망하여 찍은 사진으로 유명하다 환경문제를 환기하기 위해서 전 세계의 대표적인 자연적, 인공적 자원을 담은 이 작품에 한국을 대표하는 장면으로 DMZ가 선택되었다

그는 DMZ를 촬영한 이

령하고 또 이를 보장한다 본 항의 적대행위의 완전 정지는 본 정전협정이 조인된 지 12시간 후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본 정전협정의 기타 각항의 규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일자와 시간에 대하여서는 본 정전협정 제63항 참조)

유에 대해서 “DMZ는 부조리함을 보여준다 가장 중무장한 지역이 가장 평화로워 보이는 역설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DMZ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가장 잘 표현한 말인 듯하다

관계기관의 검열과 통제로 인해 아무런 의미 없어 보이는 삼림지역을 짧은 시간 동안 보여주는데 불과하지만 이 통제와 검열 자체가 DMZ의 군사적 의미를 내포한다고 할 수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의미 있는 장소들을 모은 곳 중의 하나로 DMZ가 등장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8. 발해를 꿈꾸며 뮤직비디오

[그림 IV-8] 발해를 꿈꾸며 뮤직비디오 한 장면



출처 유튜브, <<http://www.youtube.com>>

개봉 1994년 8월 13일
출연 서태지와 아이들

당시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가수그룹이었던 서태지와 아이들은 자신들의 3집에 평화와 통일의 염원을 담은 ‘발해를 꿈꾸며’라는 노래의 뮤

직비디오의 배경으로 철원 노동당사를 이용했다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아이디어였다

‘발해를 꿈꾸며’ 또한 다른 앨범과 마찬가지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게 되었고, 덩달아 뮤직비디오의 배경으로 나왔던 철원 노동당사도 사람들

의 궁금증을 자아냈다

분단과 공산치하의 상징을 평화와 통일을 기원하는 노래에 사용한 점이 DMZ의 평화적 의미와 부합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철원노동당사는 근대유적지로 정해져 별다른 신고절차 없이 누구나 관람할 수 있다

[발해를 꿈꾸며] 가사

진정 나에겐 단 한 가지 내가 소망하는 게 있어
갈려진 땅의 친구들을 언제쯤 볼 수가 있을까
망설일 시간에 우리를 잃어요

한민족인 형제인 우리가 서로를 겨누고 있고
우리가 만든 큰 욕심에 내가 먼저 죽는 걸
진정 너는 알고는 있나 전 인류가 살고 죽고
처절한 그날을 잊었던 건 아니었겠지

우리 몸을 반을 가른 채 현실 없이 살아갈 건가
치유할 수 없는 아픔에 절규하는 우릴 지켜줘

시원스레 맘의 문을 열고 우리와 나갈 길을 찾아요
더 행복할 미래가 있어 우리에게

언젠가 나의 작은 땅에 경계선이 사라지는 날
많은 사람이 마음 속에 희망들을 가득 담겠지
난 지금 평화와 사랑을 바라요

젊은 우리 힘들이 모이면 세상을 흔들수 있고
우리가 서로 손을 잡은 것으로 큰 힘인데

우리 몸을 반을 가른 채 현실 없이 살아갈 건가
치유할 수 없는 아픔에 절규하는 우릴 지켜줘
갈 수 없는 길에 뿌려진 천만 인의 눈물이 있어
워 나에겐 갈 수도 볼 수도 없는가

저 하늘로 자유롭게 저 새들과 함께 날고 싶어

9. 박치기

[그림 IV-9] 박치기 포스터



출처 네이버 영화, <<http://movie.naver.com/movie/bi/mi/basic.nhn?code=40032>>

개봉 2005년 1월 23일

감독 이즈츠 가즈유키

(井筒 和幸)

출연 시오야 슌

(마츠야마 코우스케 역),

타카오카 소스케

(리안성 역),

사와지리 에리카

(리경자 역),

오다기리 조

(사카자키 역)

영화의 제목은 한국어 ‘박치기’를 카타카나로 적은 것이다

영화에서 DMZ에 대한 언급이 직접 나오지는 않지

만 영화의 주제음악인 ‘림진강’이 상징하는 바가 매우 크다 1968년 교토시에 있는 히가시고등학교(東高校) 2학년생인 마츠야마 코스케(松山康介)는 사회주의에 심취해 있던 담임선생님의 지시에 따라 학생들간의 싸움이 끊이지 않았던 조선고급학교(朝鮮高校)에 친선축구시합을 신청하게 되었다 마지못해 조선고교를 방문한 코스케는 음악실에서 플루트를 연주하던 소녀 리경자(李慶子)를 보고 한눈에 반한다 이때 음악실에서 리경자가 연주하던 곡이 림진강이다 코스케는 경자에게 다가가기 위해 기타를 사서 선배에게 금지곡인 이 곡과 조선어를 배우며

경자 앞에서 림진강을 연주해주고 싶어 한다

한편 두 학교 학생들 간의 싸움은 더욱 격렬해지고 그 와중에 조선고교의 학생 중 하나가 죽는다 이로 인해 두 학교의 반목이 최고에 다다르고 코스케도 조총련 계열인 리경자의 가족들에게 배척을 당하는데, 코스케는 우여곡절 끝에 라디오 방송을 통해 금지곡인 림진강을 부르며 화해의 메시지를 전한다 영화의 주제는 조총련 계열 재일동포들의 삶과 애환을 조명하고 일본과의 화해를 도모하는 것이지만 영화의 중심을 관통하는 음악인 림진강의 가사 및 알려진 배경이 의미 또한 깊다고 할 수 있다

림진강은 북측의 국가를 작사한 박세영이 1957년 지은 시에 고종한이 곡을 붙인 노래이다 박세영은 본래 남한 출신인데, 광복 후 월북하였다가 고향인 남한을 그리워하면서 림진강을 지었다 이 곡을 1986년 일본의 대학생그룹 ‘더 포크 크루세이더(the fork crusader)’가 불러 일본에서 인기를 얻었는데, 이 곡을 그들에게 가르쳐준 사람이 마츠야마 타케시(松山猛)이다

그는 고교시절 영화에서처럼 학생들 간의 폭력을 스포츠로 풀어보고자 조선학교에 축구시합 신청을 하러 갔다가 조선학교 학생들이 부르는 ‘림진강’을 듣고 감동을 받아 알게 되었다고 한다

이 곡이 발매되던 당시, 조총련에서 이 곡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노래임을 명시해줄 것을 요청했고 당시 일본은 북한을 정식국가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거부했다 이러한 이유로 결국 이 곡은 발매가 중지되었고 금지곡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이러한 낙인 덕분에 림진강은 사회운동을 하던 일본 대학생들 사이에서 더 높은 인기를 끌게 되었다

북측의 국가를 지은 사람이 남측의 고향을 그리워하며 지은 노래가 남한에까지 널리 알려진 사연은, DMZ를 가로질러 흐르는 림진강처럼 남북이 다시 만날 날이 멀지 않다는 희망을 전해준다

영화의 대사 중 이미 자리를 잡고 사는 재일조선인이 남한에서 돈을 벌기 위해 일본으로 밀입국한 청년에게 일본생활에 대한 조언을 건네며 ‘북이나 남이나 여기선 다 하나야’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있다 ‘북이나 남이나 여기선 다 하나야’라는 이 대사가 림진강과 영화 전체의 뜻을 직설적으로 잘 표현해주는 듯하다

[한국어 가사]

림진강 맑은 물은 흘러흘러 내리고
못새들 자유로이 넘나들며 날건만
내 고향 남쪽땅 가고파도 못가니
림진강 흐름아 원한 싣고 흐르느냐

강 건너 갈밭에선 갈새만 슬피 울고
메마른 들판에선 풀뿌리를 캐건만
협동벌 이삭바다 물결 우에 춤추니
림진강 흐름을 가르지는 못하리라

내 고향 남쪽땅 가고파도 못가니
림진강 흐름아 원한 싣고 흐르느냐

[일본어 가사]

イムン川 水清く とうとうと流る
水鳥 自由に 群かり 飛び交うよ
我が祖國 南の地 想いははるか
イムジン川 水清く とうとうと流る

北の大地から 南の空へ
飛び行く 鳥よ 自由の使者よ
誰か祖國を 二つに 分けてしまったの
分けてしまったの

イムジン川 空遠く 虹よかかっておくれ
 河よ 想いを 伝えておくれ
 ふるさを いつまでも 忘れはしない
 イムシン川 水清く とうとうと流る

10 전조선

[그림 IV-10] 전조선 영화장면들



출처 유튜브, <<http://www.youtube.com>>

감독 최부길

출연 박효선 (김명복 역), 장유성 (만길 역), 황명일 (변대식 역), 최상진 (변치백 역)

북한에서는 영화를 ‘직관예술’이라 하여 선전 선동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예술장르로 취급해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꽃 파는 처녀’라는 혁명 영화가 북한의 최고 지도자인 김정일의 주도로 만들어졌다는 점을 보더라도 이를 알 수 있다 대부분의 영화에는 처절한 계급투쟁 끝에 결국 영웅적으로 승리하는 주인공이 등장한다

전초선도 이러한 북한영화의 특징을 그대로 답습하는데, 영화의 배경과 주인공이 DMZ와 그곳에서 근무하는 북한 군인 ‘민경’이다

주인공 김명복은 한국전쟁 전 지주에 의해서 고통받았던 천민 계급의 아들이었다가 공산치하가 된 북한에서 성장한 후 DMZ에서 근무하게 된다

한편 남측의 군인들은 항상 오발사고 등을 가장한 기만을 통해 군사분계선 표지판을 북쪽으로 옮기고자 한다 국군부대의 지휘자는 김명복의 부모를 죽음에 이르게 한 악덕지주 변대식의 아들 변치백이다 결국 국군은 불법으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군 ‘민경’을 공격하는데 김명복은 총알이 떨어진 상황에서도 맨손으로 싸워 이들을 모두 물리친다

인물의 가상적인 개인사를 비극적으로 꾸며 이념적 대립의 정당성을 드러내었으며, 인민들을 대상으로 국군과 미국에 대한 적개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영화적 장치들이 잘 배치되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북한영화는 인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순차적인 전개를 선호하는데, 이 영화는 회상, 과거장면, 현재장면들을 복잡하게 배치하여 영화적 완성도를 높였다

소도구나 배경을 통해 DMZ의 모습 또한 잘 살렸다 과거 DMZ 인근의 마을의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 생활양식, 건축양식 등의 배경에 많은 신경을 쓴 것은 물론이고, DMZ의 경비대인 ‘민경’에 대한 박진감을 살리기 위해 실제 조선인민 제567부대에서 촬영했다

영화의 내용 중 주인공인 김명복의 부모를 죽음에 이르게 한 악덕지주 변대식은 김명복이 경계를 서는 군사분계선 앞에 와서 선전활동을 벌인다 선전활동 중에 변대식이 미국기자와 인터뷰 하는데 ‘지금 이 DMZ 인근의 땅이 전부 자기 땅이었으며, 쌀 만 석을 내기도 했다’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온다 지금 DMZ 안에 묵논으로 잠들어 있는 비옥한 철원평야를 연상하게 하여 영화적 재미를 더해준다

V. DMZ 일원 북한지역의 문화유적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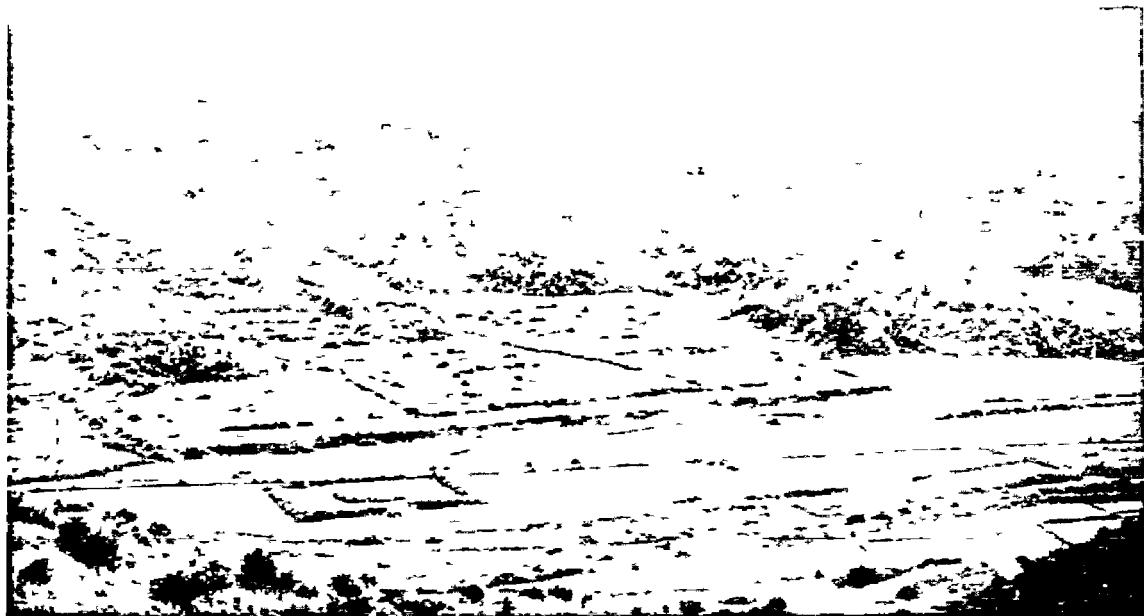
이 장에서 정리된 내용은 모두 북한의 직접자료인 『조선헌토대백』에서 발췌 및 정리하였으며, 문화유적의 명칭은 북한에서 사용하는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남한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DMZ 인근지역도 한반도 역사문화의 중심지였다 특히 개성과 가까운 지리적 위치로 인해 고려사 연구에 중요한 역사문화유적들이 DMZ 인근에 많이 잠들어 있다 또한 동해안의 고성군과 금강군을 중심으로 금강산의 수려한 경치와 어울리는 명승고적과 사찰들이 많이 남아 있다

이 장에서는 DMZ와 접한 북한의 행정구역들이 지니고 있는 역사문화자원을 표와 사진을 통해 대략적으로 개괄하고자 한다

1 판문군

[그림 V-1] 불일사터



출처 북한지역정보넷, <[tp://www.cybernk.net/common/ImgPopup2.aspx?id=A40502150321&direct=1](http://www.cybernk.net/common/ImgPopup2.aspx?id=A40502150321&direct=1)>

[그림 V-2] 후릉



출처 북한지역정보넷, <<http://www.cybernk.net/common/ImgPopup2.aspx?id=A40502150793&direct=1>>

[그림 V-3] 후릉의 문무관원상과 석수들



출처 북한지역정보넷, <<http://www.cybernk.net/common/ImgPopup2.aspx?id=A40502150777&direct=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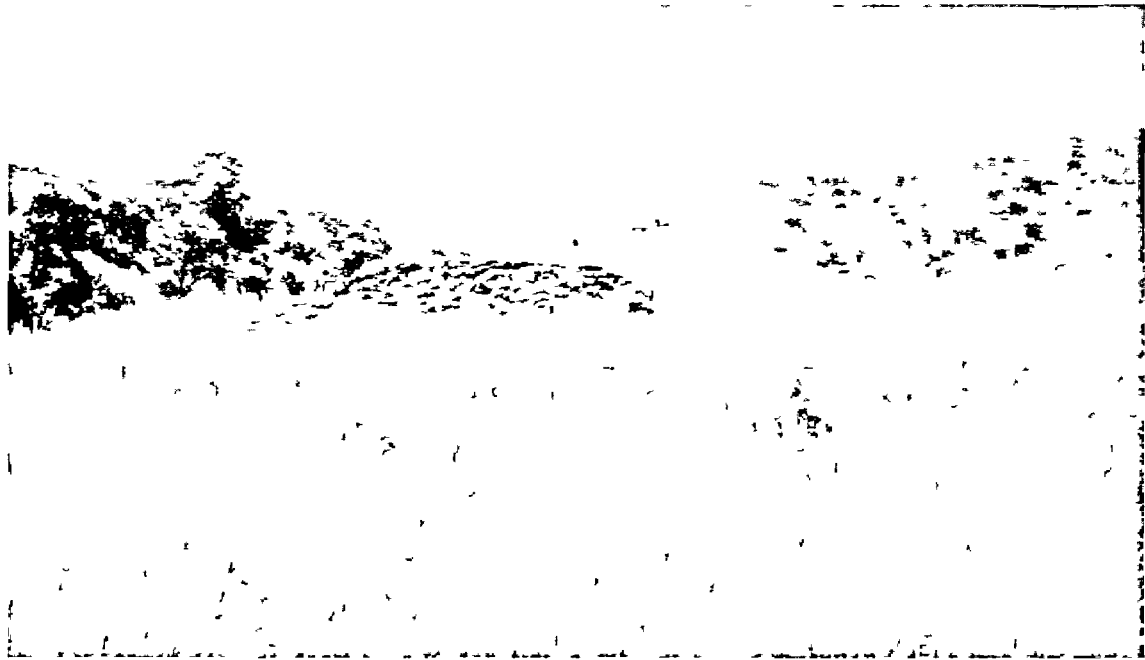
[표 V-1] 판문군 문화유적

| | | |
|---------|-------------------|---|
| 강릉 | 국가지정문화재보존급 제567호 | 진봉리에 있는 무덤 고려 6대 왕 성종의 무덤이다 |
| 경릉 | 국가지정문화재보존급 제570호 | 선적리의 북쪽에 있는 옛무덤, 고려 11대 왕 문종의 무덤이다 |
| 림한리 토성 | | 림한리의 성내동부락에 있는 토성 임진강 유역의 해안방어기지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
| 배남산 토성 | 국가지정문화재보존급 제580호 | 조강리 등대골의 배남산에 있는 옛 성터 북한강변의 절벽을 그대로 이용해 축성했다 |
| 불일사 터 | | 선적리에 있는 절터 고구려의 자를 기준으로 설계하여 고구려와 고려와의 연계를 보여주는 역사유물이다 |
| 성릉 | 국가지정문화재보존급 제568호 | 진봉리의 옛 무덤 고려 순종의 무덤이라는 설과 성종 부인의 무덤이라는 설이 있다 |
| 영릉 | 국가지정문화재보존급 제569호 | 진봉리의 옛 무덤 고려 5대 왕 경종의 무덤이다 |
| 전재리 무덤떼 | | 무덤 중 하나에는 ‘범당방무덤벽화’로 알려진 벽화가 있는데, 12지신의 머리가 그려져 있다 중요한 사료이나 일제의 도굴로 많은 유물이 사라졌다 |
| 정릉 | 국가지정문화재보존급 제573호 | 화곡리에 있는 옛 무덤 고려 태조 신성왕후의 무덤이다 |
| 제릉 | 국가지정문화재보존급 제556호 | 대련리의 옛 무덤 조선 태조의 아내 신의황후 한씨의 무덤이다 병풍석과, 석수, 석등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민왕릉을 모방한 조선 초기의 무덤으로 추정된다 |
| 제릉비 | 국가지정문화재보존급 제1624호 | 조선 말기인 1900년대에 만들어진 비석으로, 신의황후 한씨의 경력과 추증된 시호가 기록되어 있다 |
| 황진이 묘 | | 선적리의 옛 무덤 16세기 초 ‘송도3절’로 이름 높았던 여류시인 황진이의 묘이다 |
| 후릉 | 국가지정문화재보존급 제551호 | 령정리의 옛 무덤 조선 2대 왕 정종과 안정왕후의 무덤이다 공민왕릉을 많이 모방했으면서도, 조선시대 왕릉의 특징도 모두 갖추고 있는 무덤이다 |

출처 평화문제연구소, 『조선향토대백과 2』 (서울 평화문제연구소, 2005) pp 395~3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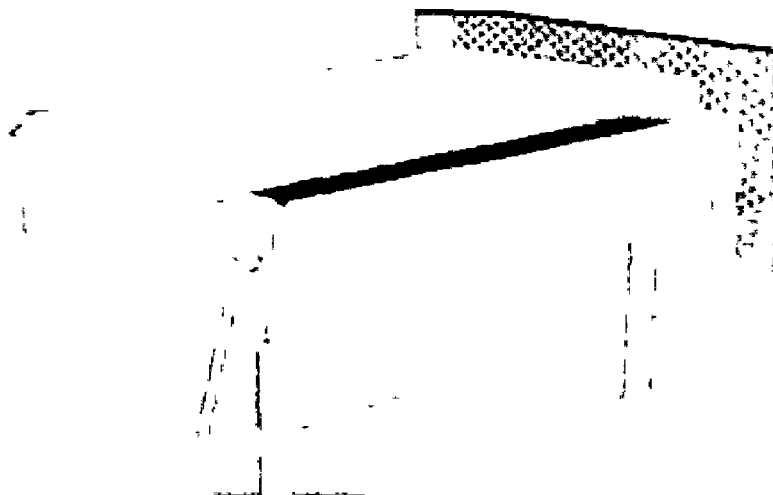
2 장풍군

[그림 V-4] 장학리 적석무덤



출처 북한지역정보넷, <<http://www.cybernk.net/common/ImgPopup2.aspx?id=A40502151041&direct=1>>

[그림 V-5] 고려돌관



출처 북한지역정보넷, <<http://www.cybernk.net/common/ImgPopup2.aspx?id=A402316242&direct=1>>

[표 V-2] 장풍군 문화유적

| | | |
|----------|-------------------|---|
| 건릉 | 국가지정문화재보존급 제572호 | 월고리 현화동 서북쪽 왕릉골에 있는 옛 무덤
고려 8대 현종의 아버지인 안종의 무덤이다 |
| 경릉 | 국가지정문화재보존급 제570호 | 대덕산리에 있는 옛 무덤 고려 11대 왕 문종의 무덤이다 |
| 고려돌관 | | 가곡리에서 발굴된 고려시기의 석관 화장한 뼈를 담았던 것이다 |
| 구화산성 | | 구화리에 있는 옛 성터 |
| 백치산성 | 국가지정문화재보존급 제581호 | 장좌리 있는 수룡산 고개 서쪽의 산성 백치진성이라고도 한다 백제의 성으로 추정된다 |
| 심복사 7층탑 | 국가지정문화재보존급 제532호 | 덕절리 룡봉산 기슭 옛 심복사터에 있는 돌탑 고려 초기의 양식으로 추정되고 있다 |
| 원릉 | 국가지정문화재보존급 제571호 | 월고리 현화동의 서북쪽 왕릉골에 있는 무덤
고려 8대 현종의 어머니 현정왕후 황보씨의 무덤이다 |
| 장학리 적석무덤 | 국가지정문화재보존급 제1723호 | 장학리에 있는 백제식의 적석무덤 임진강 유역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백제식 적석총으로 고구려와의 차별성을 보여준다 |
| 현화사 당간지주 | 국가지정문화재보존급 제534호 | 월고리에 있는 고적 현화사터에 위치하고 있는데 규모가 웅장하고 돌을 다듬은 솜씨가 뛰어나다 |
| 현화사 돌다리 | 국가지정문화재보존급 제533호 | 현화사 앞 개울에 놓은 4m 길이의 돌다리 개성 선죽교와 함께 매우 드문 고려시대 돌다리 유적 중 하나이다 |

출처 위의 책 pp 349~351

3 철원군

[표 V-3] 철원군 문화유적

| | | |
|-----------|----------------------|--|
| 가설
산성 | 국가지정문화재보존급
제1150호 | 대전리의 서북쪽에 있는 옛 성터 궁예가 쌓은
철원읍성과 관련 있는 것으로 추정되나 확인된
바는 없다 |
| 내문리
진성 | 국가지정문화재보존급
제340호 | 내문리 서남쪽에 있는 옛 성터 돌로 쌓은 성이
며 성벽의 일부가 남아 있다 |
| 립석리
산성 | 국가지정문화재보존급
제339호 | 립석리 동남쪽에 있는 옛 성터 성 안에는 여러
건물터가 남아 있고 궁예가 쌓았다고 전해지나
확인된 바는 없다 |
| 철원
읍성 | 국가지정문화재보존급
제1149호 | 철원읍 서남쪽에 있는 옛 성터 거성이라고도
하는데 배 모양으로 쌓은 석성이다 909년에 궁
예가 쌓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

출처 평화문제연구소, 『조선향토대백과 11』 (서울 평화문제연구소, 2005), p 745

4. 평강군

[표 V-4] 평강군 문화유적

| | | |
|----------|----------------------|---|
| 고성
산성 | 국가지정문화재보존급
제336호 | 남양리에 있는 옛 성터 궁예가 왕건의 반란군을
피해 피난처로 이용했다고 전해진다 |
| 문봉
리성 | 국가지정문화재보존급
제334호 | 문봉리 북쪽 등지산 정상에 있는 옛 성터 궁예가
쌓았다고 추정하나 확인되지는 않았다 |
| 송현
봉수 | 국가지정문화재보존급
제1231호 | 신정리 서쪽 신서산에 위치한 옛 성터 궁예가 쌓
았다고 전해진다 일제가 철도부설을 위해 성곽을
없앴으며, 현재는 토성 일부가 남아 있다 |

(표 계속)

| | | |
|----------------|----------------------|---|
| 아두
산성 | 국가지정문화재보존급
제333호 | 평강읍에 있는 옛 성터 황당산성, 애두산성이라
고도 한다 성의 외부는 다듬을 돌로 쌓고 안쪽은
자연석으로 채운 후 흙으로 덮었다 |
| 원골
고개
봉수 | 국가지정문화재보존급
제1233호 | 옥동리 서쪽에 있는 봉화터 옥실령 산봉우리에
위치해 있으며 보존상태가 매우 양호하다 |
| 할미
산성 | 국가지정문화재보존급
제335호 | 상송관리의 할미산 봉우리에 위치한 옛 성터 산
봉우리를 중심으로 원형으로 쌓은 테메식 산성이
다 삼국시대에 축석했다 하나 고증된 바는 없다 |

출처 위의 책 p 912

5. 김화군

[표 V-5] 김화군 문화유적

| | | |
|----------|---------------------|--|
| 김화
읍성 | 국가지정문화재보존급
제364호 | 김화읍의 동쪽 금성강 기슭의 산봉우리에 위치
한 옛 성터 돌을 다듬어 7m 높이로 쌓았다 |
|----------|---------------------|--|

출처 위의 책, p 3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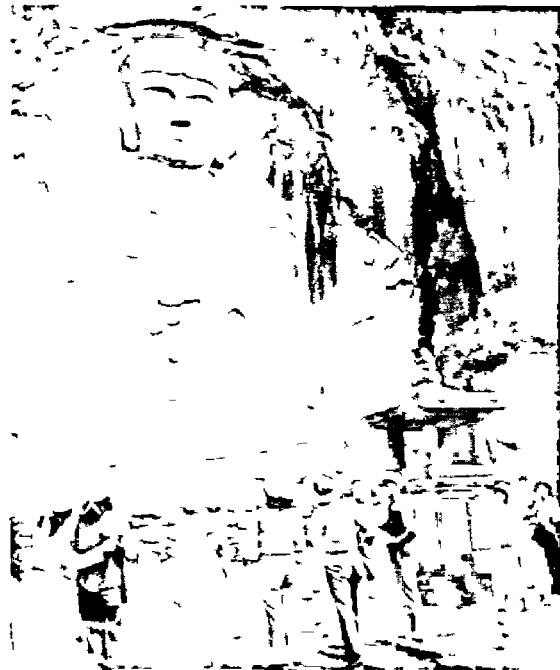
6 금강군

[그림 V-6] 금장암사자탑



출처 북한지역정보넷, <<http://www.cybernk.net/common/ImgPopup2.aspx?ud=A41502303009&direct=1>>

[그림 V-7] 묘길상



출처 북한지역정보넷, <<http://www.cybernk.net/common/ImgPopup2.aspx?ud=A22002307058&direct=1>>

[그림 V-8] 보덕암



출처 북한지역정보넷, <<http://www.cybernk.net/common/ImgPopup2.aspx?ud=A40502303013&direct=1>>

[표 V-6] 금강군 문화유적

| | | |
|----------------|----------------------|--|
| 금강암
사자탑 | 국가지정문화재국보급
제100호 | 내금강리 금강동 금잠암터에 있는 고려 초기의 석탑 돌사자의 모습을 역동적이고 안정적으로 잘 표현한 수작으로 평가받는다 |
| 망군성 | 국가지정문화재보존급
제341호 | 내금강리 망군대 구역에 있는 옛 산성터 임진왜란 당시 쌓은 것으로 전해진다 |
| 면천산성 | 국가지정문화재보존급
제1139호 | 오천리의 북쪽 장수봉 능선에 있는 옛 성터 호란 때 축성하여 승리를 거둔 곳이라 전해진다 |
| 묘길상 | 국가지정문화재국보급
제102호 | 내금강리 만폭동 옷골짜기의 높이 40m 벼랑에 새긴 고려시대 마애불상조각 북한의 돌부처조각 가운데 가장 크고 뛰어난 작품으로 평가받는다 원래 이름은 아미타여래상인데 18세기 묘길상이라는 이름이 새겨졌다고 한다 |
| 보덕암 | 국가지정문화재국보급
제98호 | 내금강 만폭동에 있는 조선시기의 암자 고구려 때 처음 세워졌다고 전해지나 현재의 건물은 1675년 다시 세워진 것이다 20m 벼랑 위에 하나의 구리기둥을 세워 그 위에 암자를 올린 놀라운 건축방식으로 유명하다 |
| 삼불암 | 국가지정문화재보존급
제309호 | 내금강 표훈동에 있는 큰 바위에 고려시대 승려 나옹선사가 자신이 섬기는 부처로 조성한 소원불이다 |
| 서산대사
부도 | 국가지정문화재보존급
제306호 | 조선의 명승 서산대사 휴정의 부도이며, 1632년 서산의 제자들에 의해서 세워졌다 |
| 장안사무령
당령운부도 | 국가지정문화재보존급
제307호 | 내금강리 장안사터 동쪽에 있다 비석이 없어 부도의 주인은 알 수 없으나, 금강산 일대의 부도들 중 조형미가 가장 우수하다고 평가받는다 |

(표 계속)

| | | |
|------------|----------------------|--|
| 장안사터 | 국가지정문화재국보급
제96호 | 내금강리의 금강산 초입에 있는 절터 금강산 4대 사찰 중 하나로 551년에 창건했다가 1731년 중건했다 역사적, 미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건물이었으나 한국전쟁으로 전소되었다 |
| 장연사
3층탑 | 국가지정문화재국보급
제101호 | 장연사터에 있는 통일신라 말기의 돌탑이다 신계사3층탑, 정양사3층탑과 함께 금강산의 3대 고탑으로 불린다 |
| 정양사 | 국가지정문화재국보급
제99호 | 금강산 중에서도 가장 양지바른 곳에 위치하여 정양사(正陽寺)라고 불린다 후기 신라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보존과 개축을 거듭한 절이므로 역사적인 가치가 매우 높다 |
| 정양사돌등 | 국가지정문화재보존급
제1720호 | 정양사 내에 있는 고려시대 석등 |
| 정양사
3층탑 | 국가지정문화재국보급
제186호 | 금강산 3대 고탑들 중 하나로, 희귀한 통일신라 말기의 석탑이다 |
| 표훈사터 | 국가지정문화재국보급
제97호 | 내금강에 있는 사찰로 장안사, 신계사, 유정사와 함께 금강산 4대 사찰로 알려졌다 670년에 창건되었으나, 화재와 수해 등을 입어 지금의 건물들은 1778년에 새로 지은 것이다 조선후기건축양식을 매우 잘 표현해주고 있다 |
| 현리석성 | 국가지정문화재보존급
제342호 | 현리의 북쪽 산능선에 축조되어 있는 산성 보존상태가 좋지 못하다 |
| 현리토성 | 국가지정문화재보존급
제343호 | 현리의 북쪽 판봉산 위에 축조되어 있는 옛 토성 |

춘치 위의 책, pp 337~342

7. 고성군

[그림 V-9] 소실된 신계사 대웅전



출처 북한지역정보넷, <<http://www.cybernk.net/common/ImgPopup2.aspx?uid=A40502303007&direct=1>>

[그림 V-10] 신계사3층석탑



출처 북한지역정보넷, <<http://www.cybernk.net/common/ImgPopup2.aspx?uid=A41502160122&direct=1>>

[그림 V-11] 월비산리석불좌상



출처 북한지역정보넷, <<http://www.cybernk.net/common/ImgPopup2.aspx?uid=A40502303008&direct=1>>

[표 V-7] 고성군 문화유적

| | | |
|-----------|-------------------|---|
| 고성읍성 | 국가지정문화재보존급 제331호 | 구읍리에 있는 옛 성터 흙과 돌을 섞어서 쌓았다 |
| 두포리성 | 국가지정문화재보존급 제1138호 | 두포리의 북쪽 동해 기슭에 위치해 있다 남문, 북문터가 남아 있는데, 과거 이곳이 원래의 읍성지였다고 한다 |
| 만리성 | 국가지정문화재보존급 제328호 | 고성읍 남쪽 만리성고개의 양쪽 언덕을 연결하여 축성하였다 조선시대 성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
| 삼일포리 무덤떼 | | 봉화리의 옛 무덤 돌덧널부둣(북한명 돌곽 흙무덤)으로, 한 쌍의 금귀걸이, 쇠로 만든 못 등이 발견되었다 삼국시대의 동해안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
| 신계사터 | 국가지정문화재국보급 제95호 | 온정리 외금강에 있는 절터 금강산 4대 사찰 중 하나이다 519년 창건한 것으로 전해진다 수려한 건물들이 많았으나 한국전쟁 당시 대부분 소실되어 현재 당간지주, 3층탑(보존급 제1234호)만이 원래 모습으로 남아 있다 |
| 온정리성 | 국가지정문화재보존급 제329호 | 온정리 동쪽 성안골에 있는 옛 성터 성벽은 돌로 쌓았으며, 동서남북의 문터가 있고, 북쪽에는 장대터가 남아 있다 신라시대 환가현의 현청소재지가 있었던 자리라 전해진다 |
| 월비산리 석불좌상 | | 고려 말기의 석불로 내금강리에서 외무재령을 넘어 유점사로 가는 길 오른쪽에 있다 자연석 위에 불상을 놓고 생동감 있고, 섬세하게 조각했다 머리 위에 놓인 육각보개는 분리되어 있으나 균형을 잘 맞추어 놓아 흔들어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 |

(표 계속)

| | | |
|----------|----------------------|--|
| | | |
| 유점사터 | 국가지정문화재보존급
제1719호 | <p>월비산리에 있는 절터로, 금강산 4대 사찰 가운데 가장 큰 사찰이었다 9세기 후반 신라시대에 창건되었고, 1168년 고려시대에 대대적으로 500칸의 큰 절로 중창되었다 15세기에 이르러 3,000칸의 대규모 사찰이 되었다가 1882년 화재로 모든 건물이 소실되었는데, 1884년 중건되었다</p> <p>한국전쟁 당시 소실되었으나, 유점사에서 나온 불상, 불탑 등이 불교사 연구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절터 내에는 5m 높이의 석조무지개다리가 남아 있다</p> |
| 주둔리무지개다리 | 국가지정문화재국보급
제106호 | <p>주둔리의 옛 석조 구조물 인근에 발연사라는 사찰이 있어서 발연사다리라고 부르기도 한다 지금은 무지개 모양의 교각만 남아 있으나 다리의 전체 길이가 855m에 달해 고려시대의 우수한 석조건축술을 가늠하게 해주는 귀한 유적으로 평가받는다</p> |

출처 위의 책 pp 282~284

참고문헌

1. 단행본

- 강원도 『Global DMZ 평화 생태 역사관광지』 2010
- 김귀곤 『평화와 생명의 땅 DMZ』 서울 드림미디어, 2010
- 김영봉 이문원 조진철 『북한강 유역의 남북한 평화적 이용방안』 서울 국토연구원, 2003
- 김재한 편 『DMZⅣ 天 그리고 鳥 航 彈 電』 서울 소화, 2003
- 김호기 강석훈 이윤찬 김환기 『DMZ, 유럽행 열차를 기다리며』 서울 플레닛미디어, 2009
- 이봉희 『강원도 DMZ관광 활성화 방안연구』 춘천 강원발전연구원, 2006
- 전영재 『한국 DMZ 비밀 비무장지대 50년을 간다』 서울 수문출판사, 2002
- 전영재 『아주 특별한 땅 DMZ의 비밀』 서울 예림당, 2004
- 정규서 최성철 김재한 강택구 『DMZ Ⅲ 접경지역의 화해 협력』 서울 소화, 2002
- 손기웅 편 『접경지역의 평화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Ⅰ) 접경지역 평화적 이용을 위한 이론적 검토와 사례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2009
- 손기웅 『비무장지대내 유엔환경기구 유치방안』 서울 통일연구원, 2000
- 손기웅 『DMZ 평화적 이용방안 비판적 고찰과 실천적 추진방안』 춘천 강원발전연구원, 2008
- 손기웅 편 『접경지역의 평화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Ⅱ) 접경지역 평화적 이용을 위한 기존 제안 검토』 서울 통일연구원, 2009
- 손기웅 편 『접경지역의 평화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Ⅲ) 정책제안』 서울 통일연구원, 2010

- 손기웅 Andreas Henneka Bernhard Seliger 『접경지역의 평화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IV) 2010년 「코리아 접경 포럼」 자료집』
서울 통일연구원, 2010
- 최성록 박은진 『DMZ일원의 주요자원의 보전가치 추정연구』 춘천 강원
발전연구원 서울 경기개발연구원, 2010
- 코리아DMZ협의회 『DMZ총람』 서울 늘품플러스, 2011
- 통일교육원 『미래를 위해 남겨놓은 과거, DMZ』 서울 (주)컴프리즈, 2010
- 평화문제연구소 『조선향토대백과 2 남포시 개성시 라선시』 서울 평화문제
연구소, 2005
- 평화문제연구소 『조선향토대백과 11 강원도』 서울 평화문제연구소, 2005
- 환경부 『2008 비무장지대 일원 보호지역 관리범위 연구』 서울 환경부,
2008
- Edward B Tylor, *Primitive Cultur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871

2 논문

- 손기웅 “DMZ 평화 정착과 환경보호를 위한 이니셔티브 ” 『DMZ 평화
정착과 환경보호를 위한 이니셔티브』 (코리아DMZ협의회 제2차
국제학술회의, 2011 10 17)

3 기타

- 『국민일보』
『뉴스와이어』
『동아일보』
『데일리안』
『연합뉴스』

『오마이뉴스』

『조선일보』

『통일뉴스』

강원도DMZ관광청, <[http //www korea-dmz com](http://www.korea-dmz.com)>

동아닷컴, <[http //www danga com](http://www.danga.com)>

북한지역정보넷, <[http //www cybernk net](http://www.cybernk.net)>

유튜브, <[http //www youtube com](http://www.youtube.com)>

여 백

여 백

여 백

여 백

여 백

D E M I L I T A R I Z E D Z O N E

DMZ 총람

문화·관광 현황

DMZ



DMZ
32
손